

SANGMYUNG UNIVERSITY



2024학년도 1학기

상명

엑스퍼트

공모전

1. 내가 수강한 우수강의 공모전
2. 나만의 학습전략 사례 공모전

교수학습개발센터





CONTENTS

1. 내가 수강한 우수강의 공모전

1 대상_ '경영빅데이터분석'으로 데이터 분석
지능데이터융합학부 22학번 신지우_1

2 최우수상_ 예술을 통해 시대를 보는 법
-테크놀로지와 함께
역사콘텐츠전공 23학번 조한희_11

3 최우수상_ 네잎클로버 같은 강의,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국어교육과 21학번 이해림_17

4 우수상_ 감동을 주는 교육 전문가로서의 성장
영어교육과 20학번 김지민_24

5 우수상_ 경영학부가 빅데이터 분석하는
브이로그
경영학부 22학번 김유진_32

6 장려상_ 머릿속의 물음표, 종잡을 수 없는
수업
영어교육과 22학번 최민경_36

7 장려상_ 대차도 모르던 내가 'A+'?
: 회계 진심남 되기
경제금융학부 22학번 김경환_43

8 장려상_ 데이터의 바다에서, 정보를 찾다
휴먼지능정보공학전공 22학번 문채린_50





CONTENTS

2. 나만의 학습전략 공모전

1

대상_왕복 5시간 통학러의 ChatGPT
활용 지하철 학습법
컴퓨터과학전공 21학번 이다원_55

2

최우수상_학습 전략도 나에게 맞는 옷을 입자
공간환경학부 21학번 이유민_65

3

최우수상_작은 무대로 무섭게 성장하는 방법
식품영양학전공 21학번 이지연_71

4

우수상_걱정 많은 대학생
경영학부 21학번 강희용_77

5

우수상_챗지피티와 함께 A+ 만들기
휴먼지능정보공학전공 19학번 김형선_83

6

장려상_JLPT N3, 초보자도 한 달 만에
합격하는 비법
경영학부 21학번 홍재영_91

7

장려상_방랑자가 아닌 신대륙을 발견한
개척자
경영학부 23학번 김영아_98



‘경영빅데이터분석’으로 데이터 분석

지능데이터융합학부 22학번 **신지우**

제가 소개할 우수강의는 이애리 교수님의 ‘경영빅데이터분석’입니다.

1. <경영빅데이터분석> 강의 정보

2024학년도 1학기에 수강한 이애리 교수님의 <경영빅데이터분석> 강의를 우수강의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최근 기업 비전 및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해 디지털화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용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도출하여 데이터 분석에 기반하는 기업경영 상의 문제 해결과 적시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빅데이터분석의 핵심 이론과 함께 주요한 데이터마이닝 기법과 머신러닝 기법들을 실습하여 학습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로서의 필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영빅데이터분석은 경영학부 경영정보의 3학년 전공으로 개설된 강의로, 수강 대상 학년 및 학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인문사회과학대학 빅데이터과학연계전공) / 3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 전체 (경영경제대학 빅데이터애널리틱스융합전공) / 전체 (경영경제대학 핀테크인텔리전스융합전공) / 전체 (융합공과대학 금융데이터AI융합전공)

이렇게 경영학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계 전공자들이 경영빅데이터분석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2. 강의 수강 이유

제가 경영빅데이터분석 강의를 수강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융합공과대학 금융데이터AI융합전공을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수강 대상에 나와 있는 전공 중 하나로, 전공 이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수강하였습니다. 금융데이터AI융합전공 학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융합전공, 휴먼지능정보공학과, 경제금융학부, 경영학부, 금융데이터AI융합전공 등에서 개설된 강의 수강이 필요하며, 교육과정을 영역별로 이수하여 최소 인정 학점(36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표 1>에 있는 교과목 중 경영빅데이터분석, 개인정보보호론, 경제학의 이해, 금융시장과금융기관, ICT융합비즈니스개론을 수강하였습니다.

제 소속은 지능데이터융합학부이며, 앞으로 3가지의 전공 중 빅데이터융합전공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학습하면서 금융데이터분석에 흥미가 생겨 금융데이터AI융합전공 교육과정을 따라 학습하고 있습니다.

다. 금융데이터AI융합전공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졸업이수학점	개설학부(과)/전공
융합필수	금융데이터베이스	3	9학점	금융데이터AI 융합전공
	웹서비스프로그래밍	3		금융데이터AI 융합전공
	인공지능기초	3		인공지능융합전공
융합선택	인공지능사회와윤리	3	15학점 이상 (현장실습으로 12학점 대체 가능)	인공지능융합전공
	개인정보보호론	3		휴먼지능정보공학과
	객체지향프로그래밍	3		휴먼지능정보공학과
	네트워크프로그래밍	3		휴먼지능정보공학과
	블록체인프로그래밍	3		휴먼지능정보공학과
	패턴인식	3		휴먼지능정보공학과
	빅데이터분석	3	6학점 이상 (현장실습으로 3학점 대체 가능)	휴먼지능정보공학과
	경제학의 이해	3		경제금융학부
	자산운용과투자전략	3		경제금융학부
	금융시장과 금융기관	3		경제금융학부
	핀테크산업의이해	3		경제금융학부
	가계금융론	3		경제금융학부
	서비스운영론	3	6학점 이상 (현장실습으로 3학점 대체 가능)	경영학부
	데이터사이언스	3		경영학부
	품질경영론	3		경영학부
	경영빅데이터분석	3		경영학부
	ICT융합비즈니스개론	3		경영학부
	SW중심대학사업현장실습(전공영)	3		금융데이터AI 융합전공
SW중심대학사업현장실습(전공영)	15	금융데이터AI 융합전공		

표 1 금융데이터AI융합전공 교육과정
(출처: 상명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둘째, 데이터 분석에 대해 복습하면서 경영에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을 학습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전공 강의 및 일반 교양 강의를 통해 데이터 분석 이론 학습과 실습을 진행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잊은 내용도 있고, 당시에는 어려워 이해를 미뤘던 내용도 있기에 이번 기

회에 복습하며 기초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데이터 분석 내용을 학습하며 공식 이해 및 암기 위주로 진행했다고 느껴 경영 사례를 살펴보며 적절한 데이터 분석 방법을 학습하고자 본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강의에서 활용한 교재는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딥러닝(박해선_한빛미디어)이며, 머신러닝 분야를 중심으로 다루었습니다. 교재의 특징은 <그림 1>과 같이 학습에 들어가기 전, ‘시작하기 전에’ 부분에서 이번에 학습할 내용에 맞는 비즈니스 문제 상황의 예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배울 데이터 분석 기법이 어떤 상황에서 적합하게 쓰이는지 분석 방법을 개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이론과 실습의 거리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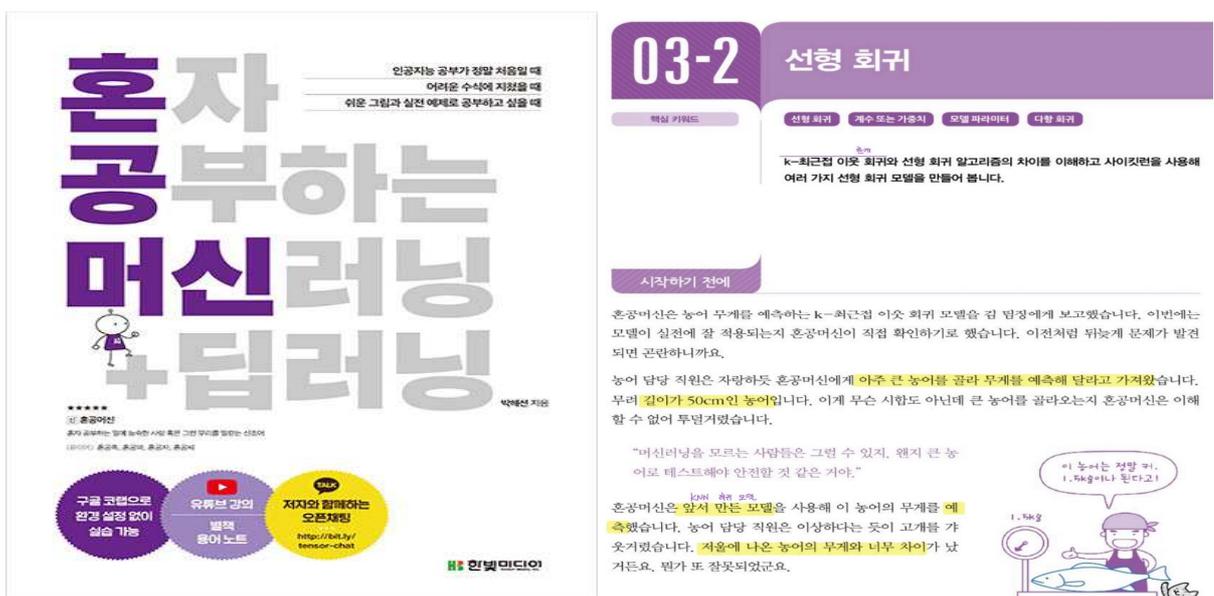


그림 1 좌: 교재, 우: 교재 특징 - 비즈니스 문제 상황 소개 (출처: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딥러닝, p.130)

3. 강의 내용 및 중간/기말고사

경영빅데이터분석 강의 내용을 <표 2>와 같이 이론/실습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강의는 머신러닝 교재를 기반으로 본 교과목에서 다룰 비즈니스 경영을 위한 데이터 분석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에는 구글 코랩을 활용하여 실습 환경을 구축하고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마이닝/머신러닝 기법인 KNN 분류 기법부터 회귀, 로지스틱 회귀, 랜덤포레스트, 군집 분석, 인공신경망, 연관성 분석, 상관관계 분석 등의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해 학습하면서 분석 및 검증에 필요한 기초 이론 내용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는 2시간 50분 동안 이론 및 실습 문제를 풀이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론 시험은 다른 강의와 비슷하였고, 실습의 경우에는 그동안 학습했던 내용들을 한 문제에

서 단계별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약 4문제였습니다. 2시간 50분 동안 학교 시험을 봐야 했던 경험이 없어서 시간이 충분할 것이라 예상했었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2시간 50분이 부족하거나 딱 맞는 정도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관련 전공생들과 함께 수강하므로 시험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간고사 기준 상위 10명의 학생의 전공 비율은 경영학부 70%, 지능데이터융합학부 20%, 수학교육과 10%였으며 만점자 모두 경영학부생인 것을 고려하면 관련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학습하면 만족할 만한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1주차	OT, 비즈니스 경영을 위한 데이터 분석 이해 / 구글 코랩 실습 환경 구축 및 실습
2주차	데이터 분석 수행 과정 / KNN (K-최근접 이웃) 분류 알고리즘 다루기
3주차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점 이해, 훈련 data set과 테스트 data set의 분리 필요성 / 데이터 다루기 I - 훈련/테스트 데이터 세트 구축 및 적용
4주차	데이터 전처리(Data Preprocessing)의 중요성 이해 및 전처리 전/후 데이터 분석 결과 차이점 비교 / 데이터 다루기 II - 데이터 전처리
5주차	회귀 분석이 필요한 비즈니스 상황 이해 / (지도학습) 예측 분석 - 회귀(Regression) 알고리즘 I
6주차	다중 회귀, 과대적합/과소적합 개념 이해, 회귀 알고리즘별 차이점 이해, 과대적합 규제 방법 및 관련 기법(릿지/라쏘 회귀) 학습 / (지도학습) 예측 분석 - 회귀(Regression) 알고리즘 II
7주차	로지스틱 회귀, 다중 분류의 차이점 / (지도학습) 분류 알고리즘 - 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
8주차	중간고사 /이론 및 실습 혼합 시험 - 2024 기준 오픈북
9주차	의사결정트리 알고리즘 이해 및 비즈니스 분류 문제 해결 / (지도학습: 분류) 트리 알고리즘 I - 의사결정트리 (Decision Tree)
10주차	분류 모델 성능지표 혼동행렬 이해, 랜덤 포레스트 학습 / (지도학습) 트리 알고리즘 II - 분류 모델 성능지표(혼동행렬), 교차검증 및 트리 앙상블
11주차	군집 분석이 필요한 비즈니스 상황 이해, 군집 알고리즘 개념 / (비지도학습) 군집 분석 (Cluster Analysis)
12주차	인공신경망 알고리즘 이해, 텐서플로(케라스) 활용 학습 / (지도학습) 딥러닝 -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13주차	연관성 분석, 상관관계 분석, 히트맵 작성법 / (비지도학습) 연관성 (Association) 분석 및 상관관계 (Correlation) 분석
14주차	데이터 분석 전체 프로세스(CRISP-DM), 비즈니스 문제 상황별 머신러닝 기법 종합 정리, RapidMiner 알아보기
15주차	기말고사 /이론 및 실습 혼합 시험 - 2024 기준 오픈북

표 2 경영빅데이터분석 주차별 학습 내용

4. 강의 추천 이유

코딩이 익숙하지 않은 경영학부 학부생들과 데이터 분석 전공 과정을 이수 중인 학우들에게 경영빅데이터분석 강의를 추천하고자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강의를 수강하면서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을 경험해 보지 않은 경영학부의 학우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데이터 분석을 접할 수 있는 강의라고 느꼈기 때문이고, 둘째는 데이터 분석 전공 강의를 들어온 체계도 많은 도움이 된 강의였기에 비슷한 전공 과정을 이수한 학우들에게도 의미 있는 수강이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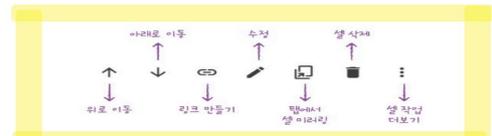
본 강의는 코딩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듣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강 대상의 대부분이 1학년 기초 교육과정 중 <컴퓨팅사고와데이터의이해> 강의와 <알고리즘과게임콘텐츠> 강의를 수강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강의에서는 프로그래밍 기초 이론과 파이썬 문법을 배우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내용인 if 조건문, for 반복문 등의 문법과 리스트, 튜플 등의 자료 구조 개념만 알고 있다면 경영빅데이터분석 강의 내용을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게 구성 되어있다고 느꼈습니다.

설령 프로그래밍에 자신이 없다고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림 2>와 같이 실습 환경 구축부터 차근차근 진행하고, 활용하는 교재도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딥러닝’으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교재이기 때문입니다.



코랩은 웹 브라우저에서 텍스트와 프로그램 코드를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는 온라인 에디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코랩 파일을 노트북(Notebook) 혹은 코랩 노트북이라고 부릅니다.

텍스트 셀을 수정하려면 원하는 셀로 이동한 후 **Enter** 키를 누르거나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여 편집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셀을 편집해 봅시다.



위아래 화살표는 셀을 화면 위아래로 이동시킵니다. 아래 화살표 옆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셀 위치로 바로 이동하는 하이퍼링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본 아이콘을 누르면 (Enter) 키를 눌렀을 때와 동일하게 수정 화면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필 아이콘 (✎) 옆을 탭에서 셀 미러링을 하는 아이콘입니다. 삭제 아이콘은 현재 셀을 삭제합니다. 돋보기 아이콘을 누르면 셀 복사와 셀 잘라내기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잠시 후에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림 2 구글코랩 실습 환경 설명
(출처: 혼자 공부하는 머신러닝+딥러닝, pp.33-36)

처음부터 단계별로 차근차근 진행하긴 하지만 전공 강의가 그렇듯 마냥 편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물며 데이터 분석 전공 학생과 경영학부 학생이 같이 수강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 상황을 확인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파이썬 문법에 대한 학습이 부족한 학우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림 3>과 같이 대화를 통해 학습 방향 설정에 작은 도움을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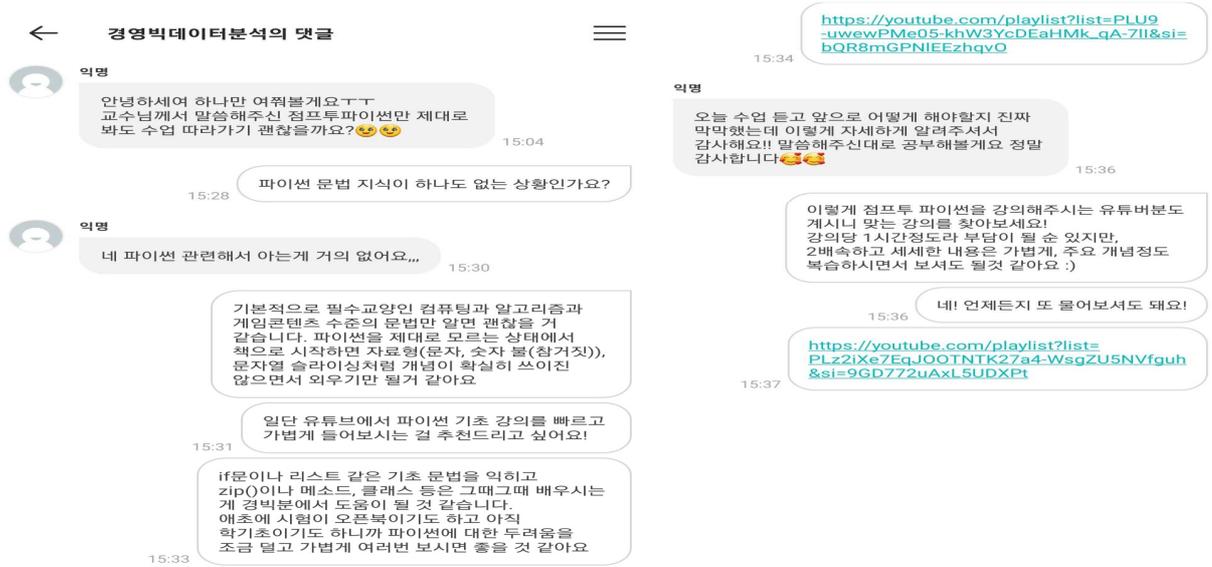


그림 3 경영빅데이터분석 수강생과의 학습 방향 고민 대화

첨부 자료 속 강의 수강생분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썬의 기본 문법에 관한 내용을 책이나 유튜브 강의를 통해 파악해 두는 것만으로도 경영빅데이터분석 강의를 수강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데이터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야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의를 수강하면서 배우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명대학교에 재학하면서 이전이 4학기 동안 빅데이터분석이론, 통계, 분석 실습, 시각화 등 7개의 데이터 분석 관련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경영빅데이터분석 강의를 수강하면서 크게 만족했던 점은 그동안 배운 내용을 한 강의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배울 수 있으면서도 데이터 분석을 전공하지 않은 경영학부생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담겨있어 데이터 분석에 활용된 수식과 같이 과도하게 어려운 부분은 가볍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요한 활용 부분에 집중할 수 있었던 점입니다. 많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면서 실습에 집중하는 부분에서 타 데이터 분석 강의와 비교했을 때, 본 강의를 수강하는 이점이 충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림 4>는 제가 강의 수강 중에 작성한 실습 파일 목록이며, <그림 5>는 7주 차 로지스틱 회귀 실습 일부와 11주 차 군집 알고리즘 실습의 일부분입니다. 이렇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예측과 연관, 군집화 그리고 분류와 회귀에 걸친 다양한 실습을 통해 비즈니스 문제

상황별 해결 기법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고, 교수님께서 더해주시는 실제 산업 필드에서의 사례와 이야기를 들으며 현재 배우고 있는 내용이 현장에서는 어떤 방식을 거쳐 사용되는지 알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용은 필드에서의 과소/과대적합 판정의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희가 학습할 때 사용하는 정제된 학습용 데이터와는 다르게 실제로 사용되는 데이터는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부족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시도해도 그 분석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별로 기준이 나뉘기 때문에 강의 수강생 사이에서도 과소/과대적합 기준에 관한 질문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학습용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는 등 교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산업 현장의 이야기가 경영빅데이터분석 강의 학습에 흥미와 재미를 주는 요소가 장점 중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습은 코랩 환경에서 진행하여 <그림 4>와 같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므로 어디서든 실습 환경에 접근할 수 있고 작성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도 학습을 편하게 하는 장점이었습니다.

W3.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_경박분_3.ipynb	W9.결정 트리.ipynb의 사본
특성 공학과 규제.ipynb	W10.(혼동행렬실습)결정 트리
로지스틱 회귀.ipynb	W5,6.특성 공학과 규제.ipynb의 사본
_신지우.ipynb	W10.교차 검증과 그리드 서치
_신지우.ipynb	W11.군집 알고리즘
경박분 9주차 결정트리.ipynb	W11.K-평균
교차 검증과 그리드 서치.ipynb	W12.인공 신경망
트리의 앙상블.ipynb	W13.연관성_분석
K-평균.ipynb	W13.연관성_분석_추가실습문제_화장품구매_풀이
인공신경망.ipynb	W13.상관_분석
연관성분석.ipynb	W2.BreamAndSmelt
상관분석.ipynb	W10,11.트리의 앙상블
W3.훈련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_신지우.ipynb
W4.데이터 전처리	그래프와 시각화.ipynb의 사본
W5,6.최근접 이웃 회귀.ipynb의 사본	딥러닝예제의 사본의 사본
W7.로지스틱 회귀	이미지 데이터 시각화와 분석.ipynb의 사본

그림 4 경영빅데이터분석 코랩 실습 파일

W7.로지스틱 회귀 ☆

파일 수정 보기 삽입 런타임 도구 도움말 6월 12일에 마지막으로 수정됨

+ 코드 + 텍스트

로지스틱 회귀

```

import numpy as np
import matplotlib.pyplot as plt

z = np.arange(-5, 5, 0.1)
phi = 1 / (1 + np.exp(-z))

plt.plot(z, phi)
plt.xlabel('z')
plt.ylabel('phi')
plt.show()

```

로지스틱 회귀로 이진 분류 수행하기

```

char_arr = np.array(['A', 'B', 'C', 'D', 'E'])
print(char_arr[[True, False, True, False, False]])

['A', 'C']

```

W7.로지스틱 회귀 ☆

파일 수정 보기 삽입 런타임 도구 도움말 6월 12일에 마지막으로 수정됨

+ 코드 + 텍스트

로지스틱 회귀로 이진 분류 수행하기

```

char_arr = np.array(['A', 'B', 'C', 'D', 'E'])
print(char_arr[[True, False, True, False, False]])

['A', 'C']

brean_smelt_indexes = (train_target == 'Brean') | (train_target == 'Smeit')
train_brean_smelt = train_scaled[brean_smelt_indexes]
target_brean_smelt = train_target[brean_smelt_indexes]

from sklearn.linear_model import LogisticRegression

lr = LogisticRegression()
lr.fit(train_brean_smelt, target_brean_smelt)

LogisticRegression()

print(lr.predict(train_brean_smelt[:5]))

['Brean', 'Smeit', 'Brean', 'Brean', 'Brean']

print(lr.predict_proba(train_brean_smelt[:5]))

[[0.99759865 0.00240145]
 [0.02735163 0.97264837]
 [0.99493072 0.00513928]
 [0.98584202 0.01415798]
 [0.99767269 0.00232731]]

print(lr.classes_)

['Brean', 'Smeit']

print(lr.coef_, lr.intercept_)

[[[-0.4037798 -0.57620209 -0.66280298 -1.01290277 -0.73168947]] [-2.16155132]

```

W11.군집 알고리즘 ☆

파일 수정 보기 삽입 런타임 도구 도움말

+ 코드 + 텍스트

```

fig, axes = plt.subplots(1, 2)
axes[0].imshow(fruits[100], cmap='gray_r')
axes[1].imshow(fruits[200], cmap='gray_r')
plt.show()

```

픽셀 값 분석하기

```

apple = fruits[0:100].reshape(-1, 100*100)
pineapple = fruits[100:200].reshape(-1, 100*100)
banana = fruits[200:300].reshape(-1, 100*100)

print(apple.shape)

(100, 10000)

print(apple.mean(axis=1))

[[ 88.3346  97.9249  87.3709  98.3703  92.8705  82.6439  94.4244  95.5999
  90.881  81.6226  87.0578  95.0745  93.8416  87.017  97.5078  87.2019
  88.9827 100.9158  92.7823 100.9184 104.9854  88.674  99.5643  97.2495
  94.1179  92.1935  95.1671  93.3322 102.8967  94.6695  90.5205  89.0744
  97.7641  97.2338 100.7564  90.5236 100.2542  85.8452  96.4615  97.1492
  90.711 102.3153  87.1529  89.8751  86.7327  85.3391  95.2855  88.1709
  95.8153  91.6804  95.1165  99.5829  94.9718  87.4812  89.2536  89.5269
  93.799  97.3983  87.151  97.825 103.22  94.4239  83.6657  83.5159
 102.8453  87.0379  91.2742 100.4848  93.8388  90.8968  97.4616  97.5022
  82.446  87.1789  96.9206  90.3135  90.565  97.6538  96.0919  93.6252
  89.2828  84.2898  89.1187  82.2542  89.8901  85.248  85.2898  89.2828

```

W11.군집 알고리즘 ☆

파일 수정 보기 삽입 런타임 도구 도움말

+ 코드 + 텍스트

```

abs_diff = np.abs(fruits - banana_mean)
abs_mean = np.mean(abs_diff, axis=(1,2))

banana_index = np.argsort(abs_mean)[:100]
fig, axes = plt.subplots(10, 10, figsize=(10,10))
for i in range(10):
    for j in range(10):
        axes[i, j].imshow(fruits[banana_index[i*10 + j]], cmap='gray_r')
        axes[i, j].axis('off')
plt.show()

```

그림 5 7주차 로지스틱 회귀, 11주차 군집 알고리즘 실습 일부

5. 강의 수강 성과 및 앞으로의 계획

저는 데이터 분석 실습 과정을 익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분석할 데이터를 선정하여 훈련 데이터 세트와 테스트 데이터 세트로 나누는 여러 가지 방법, 데이터에 맞는 분석 방법을 정리하면서 학습하였고, 3편의 논문을 읽고 데이터 분석 과정 및 결과를 정리하는 과제를 수행하며 과정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A+라는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No	학수번호	교과목명	미수구분	학점	평점	등급
1	HALF0104		교선	3		
2	HALF6072		교선	3		
3	HALF9319		교선	3		
4	HALF9377		교선	3		
5	HAAC0002		1전선	3		
6	HAIE0003		1전선	3		
7	HAAE6005	경영빅데이터분석	일선	3	13.50	A+

그림 6 2024학년도 1학기 경영빅데이터분석 성적

저는 경영빅데이터분석에서 데이터 분석을 학습한 것을 기반으로 하계방학 기간 동안 수강생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데이터 분석 공모전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그림 7>과 같이 다양한 데이터 분석 공모전에서 참가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빅데이터분석 강의를 수강할 학우분들도 공모전 입상을 목표로 강의를 수강한다면 더욱 열정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입상하지 못하더라도 데이터 분석에 대해 공부하고 문제 상황을 찾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함양되어 앞으로 내려야 할 여러 결정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림 7 데이터분석 공모전 포스터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정보를 마주하고 기억하고 경험하며 이를 기반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선택하며 해결하는 과정에 놓이게 됩니다. 경험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4차산업혁명을 지나 데이터의 양과 형태가 방대해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인사이트 추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기업 비전과 경영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디지털화된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용한 인사이트를 도출하여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과 적시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경영빅데이터분석 강의를 수강하는 모든 수강생이 데이터분석가가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데이터 분석은 이루어질 것이며 이때 데이터 분석 기반 소통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코딩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껴 데이터 분석을 학습하지 못했던 학우분들에게는 데이터 분석 입문 강의로, 데이터 분석을 전공하는 학우분들에게는 데이터 분석 총정리 복습 강의로 경영빅데이터분석 강의를 추천합니다.

예술을 통해 시대를 보는 법 - 테크놀로지와 함께

역사콘텐츠전공 23학번 **조한희**

강혜승 교수님의 <이미지 시대의 테크놀로지와 예술> 강의를 우수강의로 소개한다. 전공 강의보다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고 교양 필수인 핵심역량교양에 해당하는 강의라는 점에서, 꼭 들었으면 하는 교양으로 추천한다.

1. 강의 소개

1-1. 학습 목표

교수님의 강의 계획서에 따르면, <이미지 시대의 테크놀로지와 예술> 강의는, ‘오늘날 이미지 시대의 예술 작품을 테크놀로지의 발달이라는 시대의 산물로서 살피는 교과목’이라 명시되어 있으며, ‘기술을 활용한 예술의 새로운 양상뿐만 아니라 작품을 통해 살필 수 있는 철학적, 사회적 담론 또한 함께 논의한다. 문화콘텐츠가 갖는 사회적 효용을 분석함으로써 전문 지식을 함양한다.’이다. 즉, 본 강의를 통해 기술이 접목된 예술의 형태를 파악하고, 그러한 예술이 사회에 가져다주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1-2. 강의 내용

강의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사진, 영상, 영화라는 ‘매체’를 다룬다. 카메라라는 ‘기술’이 발명됨에 따라 등장한 사진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진으로 바탕으로 발명된 영상과 영화, 이에 편집과 같은 기술이 더해진 ‘미디어 아트’에 이르기까지, 예술과 기술의 경계를 중심으로 이미지와 미디어를 이해한다. 즉, 예술과 기술의 경계가 모호해진 것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한 인간 삶의 변화에 관해서도 이야기하며, 예시 작품을 바탕으로 인간과 미디어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시대에 따른 ‘뉴미디어 아트’를 다룬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디지털이라는 기술을 미디어 작품과 함께 이해한다. VR, AR, 픽셀 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기술이 활용된 예술 작품을 감상하며 디지털 미디어가 혁명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등장한 가상 실재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다.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고, 기존 담론에 대해 의문을 던져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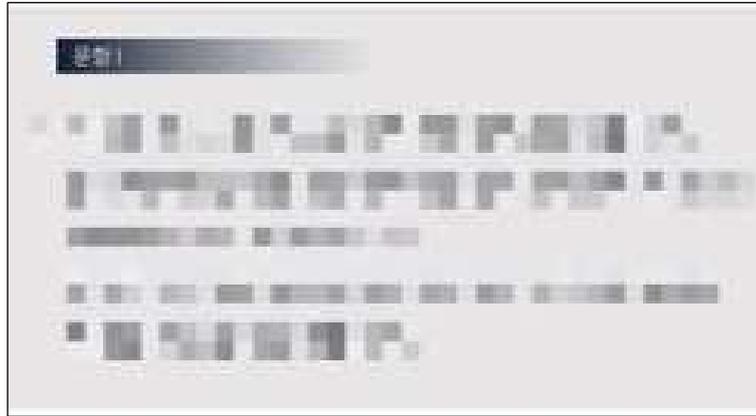
세 번째로는 디지털 기술에서 더 나아간 형태로, 공학 기술이 반영된 ‘바이오아트’를 다룬다. 포스트 휴먼에 따라 인간은 신체를 중요시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기술을 더욱 밀접하게 연결한 예술가들의 바이오아트를 이해하는 것이다. 생물학, 생명공학 등과 결합된 바이오아트 작품들을 감상하며, 디지털과 생명기술 시대에 인간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바이오아트에서 더 연장된 형태의, 생태와 생명 담론을 나타내는 ‘생태 미술’을 다룬다. 환경에 관한 관심이 전제된 형태의 작품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반성하기도, 대중의 참여를 이끌기도, 앞으로의 지속가능성을 묻기도 하며 생태 미술을 이해하는 것이다.

또한, ‘작가와의 만남’ 시간을 통해 작가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었고, 다양한 작품을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다. 작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스스로 작품을 해석하고 이해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존재했다.

1-3. 평가 방식

본 강의는 중간, 기말, 과제, 출결을 반영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약술형 3문항과 논술형 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논술형의 경우 문제를 미리 제시해 주셨기에 사전에 준비하여 시험을 볼 수 있었다. 과제의 경우, 타 예술 교양과 같이 전시회를 관람한 후 A4 1장 분량의 비평문을 작성하는 것이었는데, 중간고사가 끝난 직후에 전시 관람으로 수업을 대체하셨고, 과제의 기간과 분량이 넉넉하여 부담 없이 과제를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었다.



2. 추천 이유

2-1. 새로운 주제의 예술 교양인 점

<이미지 시대의 테크놀로지와 예술> 강의는, 새로운 주제의 예술 교양이라는 점이 흥미로웠다. 예술을 좋아하고 자주 즐기는 사람으로부터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반적으로 듣는 미술 교양은 보통 미술사를 중심으로 미술계의 대표 작품들을 감상하거나, 특정 시대, 양식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고, 본인도 예술에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딱 그 정도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본 강의에서는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시대를 바탕으로, 기술을 통한 예술을 다루었기 때문에 새로운 주제라고 느꼈고, 흥미로웠다. 기술과 예술의 경계가 뚜렷했다가 모호해지고, 결국 경계가 허물어져 상호소통에 이르기까지의 흐름이 이어지기 때문에 각 주제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사진이라는 주제에서는 '스트레이트 사진'의 개념을 새롭게 알게 되었고, 익숙한 주제였던 미디어아트에서는 백남준 작가 이외의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알 수 있었다. 생소했던 바이오아트 주제에서는 유전공학, 생명공학 같은 공학 기술이 융합된 작품에 대해 알게 되는 등 개념과 작품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다. 추가로, 전공 수업에서 본 강의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적이 있었는데 이미 강의를 통해 알고 있는 내용이라 내용의 흐름과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 인문학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때문에, 색다른 미술 또는 예술 교양을 배우고 싶다면 본 교양을 추천한다.

2-2. 자기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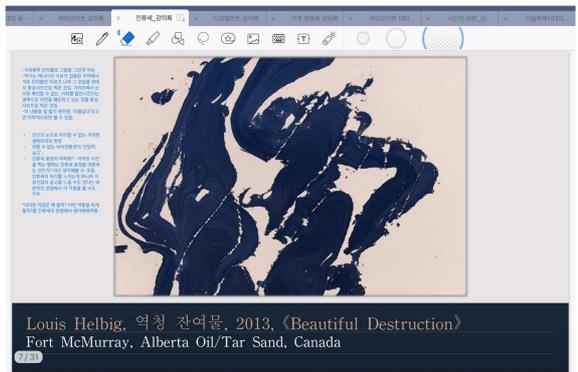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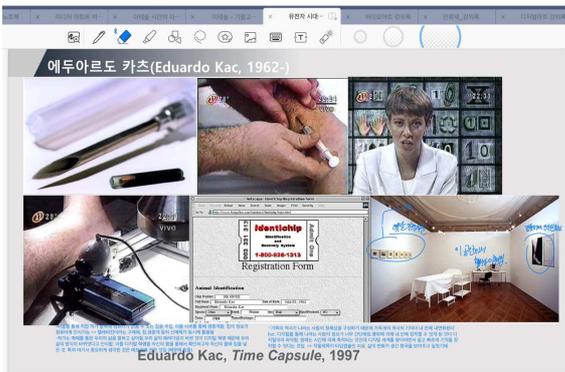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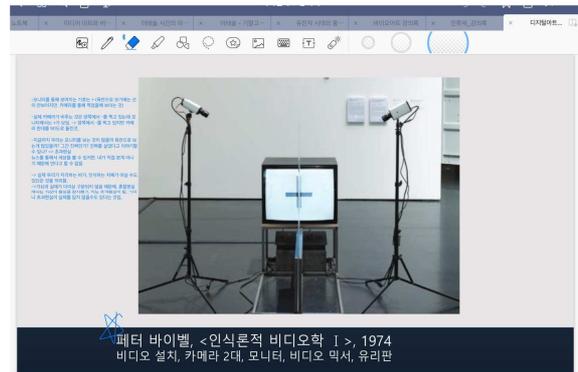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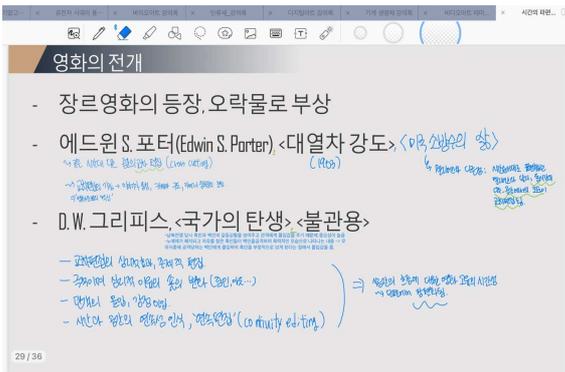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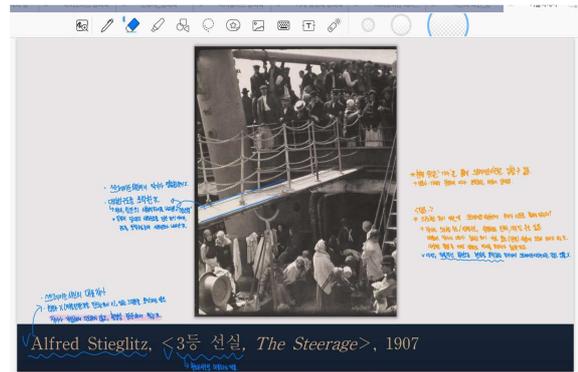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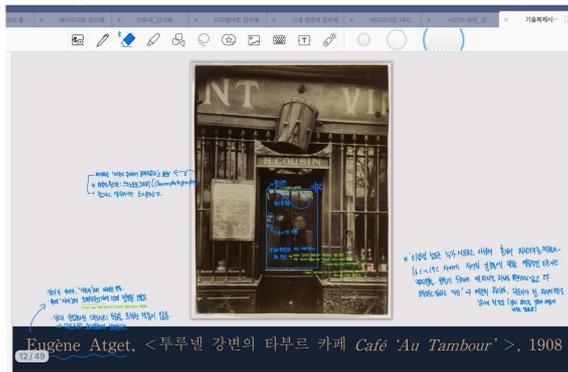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단순히 예술과 기술이 접목된 작품을 알아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회 문제를 언급한다거나, 주제의 개념이나 작품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나의 사고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볼 기회가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바이오아트를 주제로 다룰 때, 교수님께서 나누어주신 종이에 강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기 생각을 간단하게 적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짧게 언급하자면, 유전자 이식 미술을 통해 창조된 새로운 종(작품)에 대해 우리가 수용할 수 있을지, 이를 창조한 작가의 행위를 예술로 볼 수 있는지 같은 ‘정상, 이질성, 혼성성, 타자성’ 등에 관한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인간의 내부 형태를 바코드를 통해 들여다보며 마치 해부 실습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작품을 통해 ‘의학적 시선’, ‘제도적 감시’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시험과 과제에서 ‘하나의 키워드로 설명’, ‘두 작품이 관통하는 주제는 무엇인가?’와 같은 조건이 존재했는데,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정보 등과 결합하여 나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일상 생활에서 쉽게 떠오르지 않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더 확장된 형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본 강의를 추천한다.

2-3. 강의를 통해 소통한다는 점

교수님께서서는 매 강의 시간의 수업 내용을 정리해 주시며 이해가 된 부분도 되지 않은 부분도 한 번씩 짚어주셨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던 주제는 흔히 알고 있는 정보나 경험, 콘텐츠 등을 예로 들어 학생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주셨다. 쉬는 시간이나 강의 직후에도 질의응답의 과정을 통해 추가 질문에 대해 친절히 답해주셨고, 몇몇 질문에 대해서는 전 수 강생들과 공유할 만한 질문이라고 다뤄주셔서 더 확장된 형태로 학습이 가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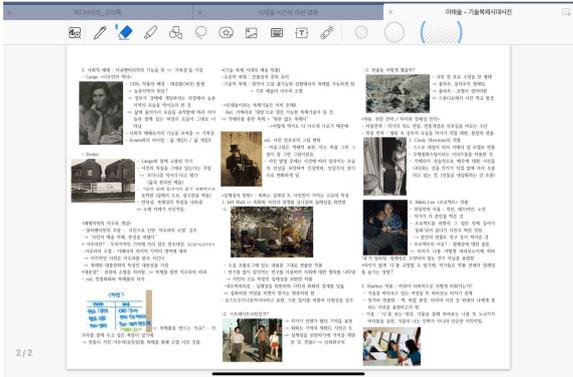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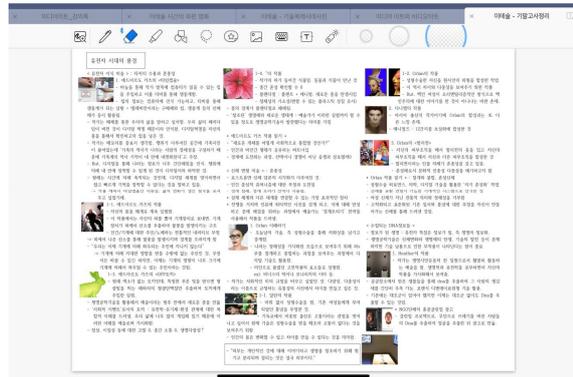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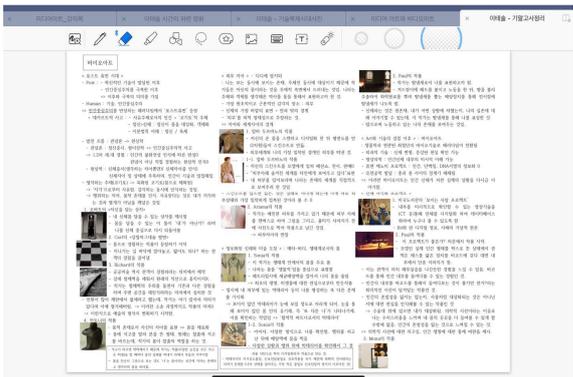
또한, 강의 형식이 소통의 부분에서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제공해 주시는 학생들의 PPT의 경우 빈칸이 있거나 사진 자료만 있는 경우가 많았다. 즉, 우리가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필기함으로써 강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작품 사진만 있는 상태에서 작품을 이해하려면 필기를 해야 하고 필기를 하려면 강의 내용을 집중해서 듣게 된다. 집중하면서 수업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작품과 관련 필기 내용이 익숙해지고,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그래서 시험공부하기 전에 필기 내용을 정리할 때도 기억나는 핵심 내용들이 많아서 분량은 많았지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다.



3. 공부 방법 및 성취

공부 방법은 매우 단순하다. 수업 시간에 필기하면서 한 번, 노트북으로 타이핑 정리하면서 두 번, 프린트 한 뒤 N독하여 시험을 보았다. 본 강의는 열심히 하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아 한번이라도 더 보려고 노력했었다. 강의 내용에 대한 흥미, 노력, 운이라는 삼박자가 맞았던 덕분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미지시대의테크놀로지예술	교필	3	13.50	A+
---------------	----	---	-------	----



4. 마무리

이번 학기 <이미지 시대의 테크놀로지와 예술>을 들은 것은 정말 잘한 선택 중 하나라 생각한다. 예술에 관심이 없던 나도 흥미롭고 의미 있게 들은 수업인 만큼, 오히려 예술에 관심이 없었던 학생이라면 더욱 재밌게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 기술을 통해 시대와 예술을 알아가며 과거를 돌아볼 수 있고, 막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는 현재를 이해할 수 있었고, 앞으로 있을 미래 시대에 대해서도 해결책, 보완점, 예측을 해볼 수 있었다. “대학교다운 교양”을 한 번쯤 생각해 봤다면 한 번쯤은 꼭 들었으면 하는 수업으로 추천한다.

네잎클로버 같은 강의,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국어교육과 21학번 **이혜림**

2024년 1학기, 행운의 네잎클로버 같은 강의를 만나게 되어서 상명대학교 학우들에게도 이 행운을 나누고자 한다. 내게 굴러온 네잎클로버 같은 강의는 바로 장덕호 교수님의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이라는 강의이다. 이 수업은 사범대학 학생이라면 교직이수를 위해 꼭 들어야 하는 교직 이론 강의 중 하나이자, 임용 시험에도 매해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과목이기도 하다. 이 강의는 2학점으로, 2시간 수업이다. 장덕호 교수님의 수업은 2시간 중 1시간은 교수님의 설명, 나머지 1시간은 학우들의 발표로 진행된다. 중간·기말고사는 요즘 임용 시험이 출제되는 경향과 비슷하게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글을 작성하는 서·논술형 시험이다.

강의를 수강한 이유

강의를 추천하는 이유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내가 왜 이 강의를 수강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2024년 1학기 기준, 나는 사범대학 4학년 1학기 재학생이다. 대학 생활을 통틀어 고민도, 어려움도 가장 많을 시기가 바로 4학년이라고 생각한다. 사범대학 4학년은 임용 시험 준비, 혹은 취업 준비와 더불어 교육 실습을 앞두고 있다. 나도 모교로 교육 실습을 나가기 때문에 1학기 수강 신청에 고민을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중간고사 이후 남은 7주 중 4주 동안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것이라 결코 짧은 시간도 아니다. 교육 실습 기간에는 아침 일찍부터 오후까지 대학교가 아닌 중·고등학교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대학 수업에 참여하기 어렵다. 나는 실습할 때에는 실습에만 전념하라는 선

배들의 조언을 듣고, 이번 학기에 실습과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강의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몇 가지 선택지가 있었으나, 방학 동안 임용 시험 준비를 하면서 가장 방대하다고 느꼈던 부분이 바로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이라는 과목이었다. 가장 양도 많고 어렵다고 느낀 과목을 학부 수업에서 수강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수강 신청하게 되었다. 그렇게 한 학기 동안 강의를 수강한 결과, 내가 4년 동안 수강한 교직 강의 중 가장 유익한 강의가 바로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이었고, 2024년 1학기 나에게 찾아온 행운의 네잎클로버와도 같은 강의였다고도 생각한다.

이제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이라는 강의가 왜 내게 네잎클로버와도 같은 강의였는지, 이 강의를 추천하는 이유를 소개하고자 한다.

♣ 강의를 추천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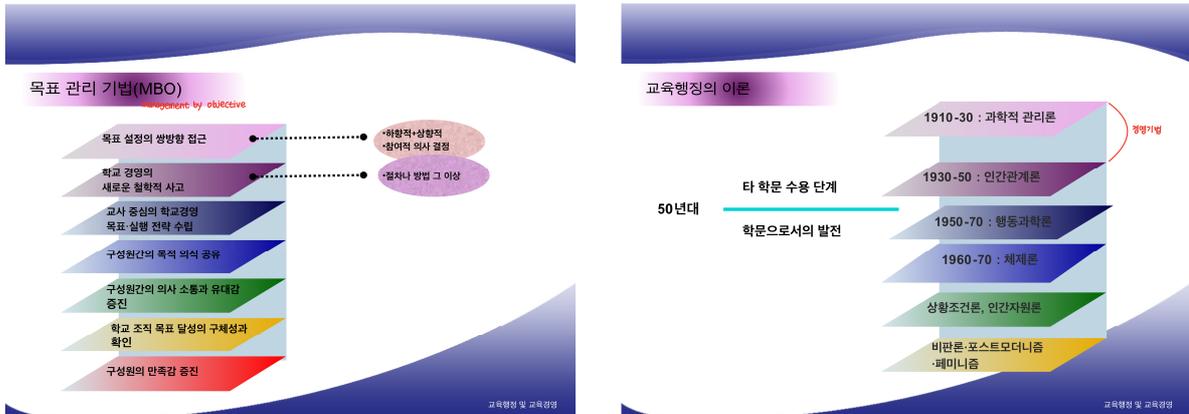
첫째, 임용 시험의 족집게 같은 강의

중등 임용 시험의 공통 과목인 ‘교육학’은, 학부 수업에서 배우는 교직 과목을 바탕으로 출제된다. 교육학은 출제 빈도가 높은 과목이 정해져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교육행정’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한 번도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적이 없던 과목이기도 하다. 많은 학생들이 교육심리, 생활지도 및 상담, 교육사회 수업은 대학에서 수강하는 편이다. 그에 비해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과목임에도 수강하지 않는 학생들이 종종 있다.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이 임용 시험과 매우 밀접함은 물론, 중간·기말고사도 서·논술형으로 출제되기에 교육학 논술을 미리 준비해 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강의이다. 나 또한 저학년 때에는 어떻게 시험 시간 내에 서론·본론·결론을 다 생각해서 작성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이 수업을 통해 임용 시험에서도 쓸 수 있는 나만의 서론, 결론 만능틀을 만들어 견고하게 다지고 논술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또한, 실제 임용 시험처럼 시간을 두고 작성한 답안을 교수님께 ‘채점’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즉, 이 수업을 통해 이론과 실재를 겸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를 꿈꾸고,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사범대학 학생이라면 임용 시험에 최적화된, 꼭 필요한 수업인 장덕호 교수님의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을 수강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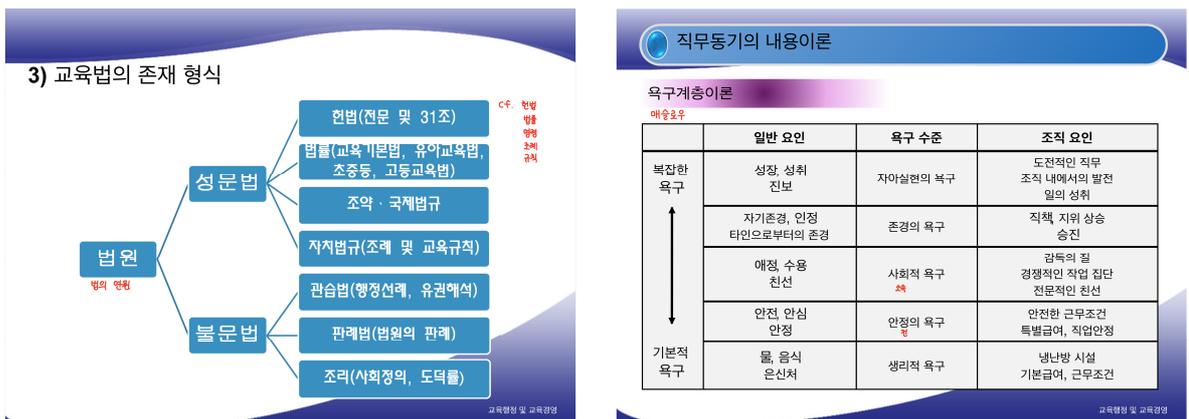
둘째, 다양한 학문의 아우르는 과목

첫 수업 시간, 교수님께서 다양한 교육학 학회 중 ‘교육행정’학회가 가장 크다고 말씀해 주셨다. 임용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교육학 9가지 과목 중, 가장 방대한 양을 자랑하는 과목이 바로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이다. 이 과목은 심리학, 행정학, 경영학 등 다양한 학문을 아우른다. 이렇게 방대하고 다양한 학문을 아우르는 과목인 만큼, 얻는 것도 많고 뻗어나갈 분야도 다양하다. 교육행정 이론이 정립되는 초반에는 경영학 이론이 다수 유입되었고,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이기 때문에 MBO와 같은 경영 기법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이

때 생소하지만 교수님께서 영어의 어원이나 등장 배경까지 세세히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었다.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수업 시간에 사용한 PPT 1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수업 시간에 사용한 PPT 2

또한, 교사의 직무 동기 단원에는 교육심리 시간이나 심리학 교양 시간에 배우는 이론이 등장하기도 하고, 교육제도 단원에는 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 이처럼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은 다양한 학문을 집대성한 과목이다. 이렇게 교육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을 학부 때 수강해 두면 다가올 임용 시험은 물론이고, 자신이 가진 세계를 넓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을 위한 수업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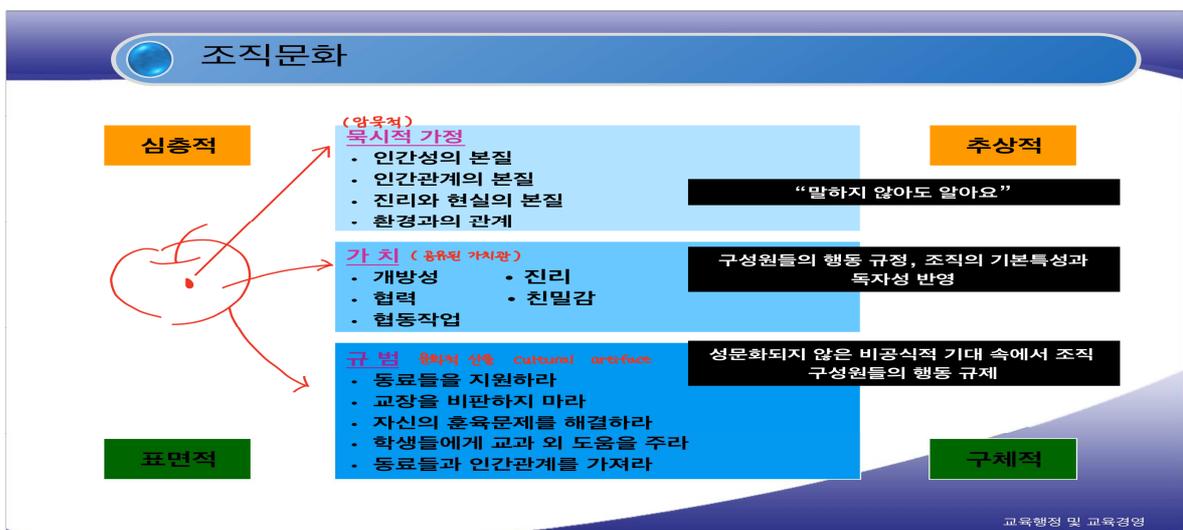
이 강의는 장덕호 교수님의 1시간 설명과 학우들의 1시간 발표로 이루어진다. 교수님의 설명이 짧다고 느낄 수 있으나, 핵심만 콕콕 짚어 설명해 주시고 다양한 사례도 보여 주시기 때문에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다. 한 학기를 마무리한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에 대한 몇 가지 일화를 이야기해 보고 싶다.

- 밀접한 사례를 통한 수업

먼저 ‘교육기획’을 수업하실 때, 정주영 공법을 예로 들어 설명해 주셨다. “1980~1990년대 식량 증산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 충남 서산 천수만에 간척 농지를 만드는 사업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커, 긴 방조제 사이를 잇는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때 정주영 회장은 방조제 사이에 22만 6,000톤 급의 대형 폐 유조선을 가라앉혀 물의 흐름을 잠시 멈추게 하고, 그곳에 모래와 흙을 부어 막을 수 있었다.” 이러한 예시를 바탕으로, ‘교육기획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유레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육기획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정의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시기보다, 교육기획과 밀접한 사례를 함께 설명해 주시니 훨씬 잘 이해되고 와닿았다. 동시에 나도 서산에서 나고 자랐음에도 잘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였기에 신기하고 반갑기도 했다. 나도 교수님처럼 학생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적절한 비유를 사용한 수업

또한, 교수님께서서는 수업 시간에 종종 그림이나 판서를 통해 설명해 주신다. 기억에 남는 그림은 바로 ‘사과’ 그림이다. 이 그림은 학교조직의 성격, 유형에 대해 알아본 뒤 조직의 문화에 대해 학습할 때 그린 그림이다. 교수님께서 칠판에 그림을 그리신 뒤 이게 무엇을 나타내는 것 같은지 물으셨고, 우리는 사과라고 대답했다. 조직문화를 가정, 가치, 규범의 세 수준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가장 심층적인 수준의 조직문화인 ‘묵시적 가정’은 사과의 ‘씨앗’에 비유할 수 있다. 중간 수준인 ‘공유된 가치관’은 사과의 ‘과육’에 비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표면에 해당하는 ‘문화적 산물’은 사과의 ‘껍질’에 비유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시는데 교수님의 풍부한 설명에 그림과 판서까지 조화를 이루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금방 체화할 수 있었다. 이 수업을 통해 나도 예비 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판서를 적절히 활용하면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게 가르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수업시간에 사용한 PPT 3

- 학생 중심의 수업

다음으로, 이 수업에서는 교육행정 이론을 바탕으로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이슈들을 발표 주제로 발굴해야 한다. 이때 드라마 '블랙독'이나 관련 영화, 뉴스 등 동영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이후 토론 주제를 제시하여 수강생들의 활발한 토론을 유도해야 한다. 교육 실습으로 인해 학기 초에 발표하게 되어 어떠한 방향으로 발표를 준비해야 하나 고민스러웠는데, 교수님께서 사전 피드백을 해 주셔서 부담을 덜 수 있었다.

학교조직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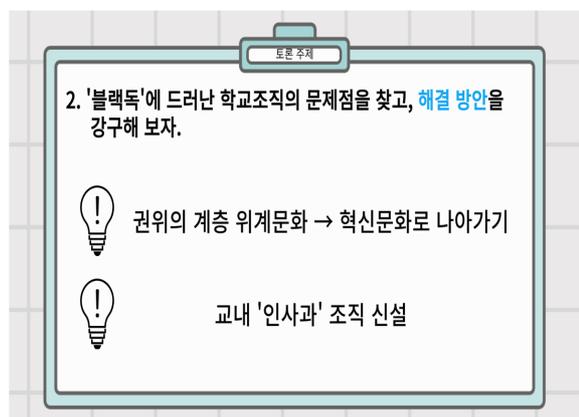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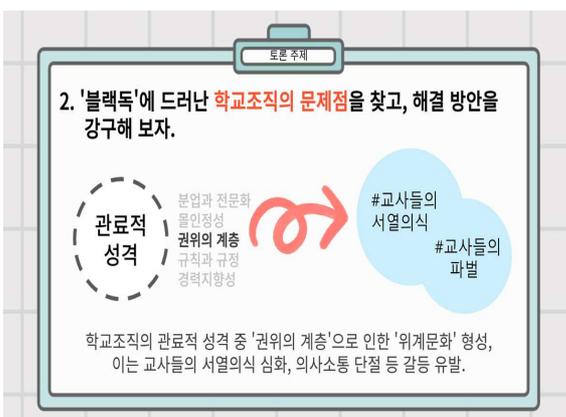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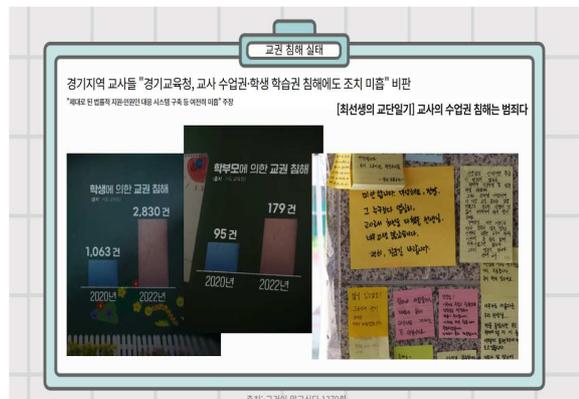
1. 조직의 정의 [공인조직, 비공인조직, 준공인조직] [개인조직, 집합적 조직] [Blau & Scott, Katz & Kahn, Etzioni, Carlsson] [본질적 조직, 형식적 조직, '문지조직', '구법적 조직', '본질적 조직']
 2. 학교조직의 성격
 - 관료제 - 본질과 형태화, 물인정성, 권위의 계층, 규칙의 규정, 경직지향성
 - 분류/정형화... 교장-교감-부장-직원
 - 모호성 (인용서형 중시)
- 문제 제기**
- <토론 주제>
1. 이러한 전통적 관료제의 성격을 따는 학교조직이 붕괴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 (조건: 학교문화/풍토와 관련하여 1가지 이상)
 - 예) 수당 인상 (현 교육부 대법)도 좋지만, 교사의 요구를 분석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내적 동기를 높이자. 부장교사의 경우 수당사상
 - 나 이 명칭으로 '학교' = 전통적 관료적 성격
 - × But, 요즘 학교는 무너지고 있다!
 - 예) 초임교사에게 '학폭 업무' 떠넘기기 (영상)
 - 서이준 사선 (00번성 신규교사 업무 '학폭', 만원 50)
 - 50대 부장교사 → 20대 부장교사 떠넘기기 뉴스 0
 2. '블랙독'에서 드러난 학교조직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안을 강구해 보자.
 - 관료주의
 - 가산점을 부여
 3. 학교의 조직문화
 4.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
- 예) 교회는 - 김어빈 교과파르너 활동. '전통적 학급중심' (학습2차) 형성 & 혁신 학교문화-풍토 개선...

발표 내용 사전 스케치

적절하게 잘 정리하였어요.

- 1) 다만 토론에서 학교조직이 붕괴되었다는 판단의 증거를 좀 찾아서 제시할 필요가 있고,
 - 2) 블랙독에 드러난 학교조직의 문제점을 "학교조직이론"적 관점에서 찾아보고 해결방안 역시 이론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방향으로 재구성하면 어떨까요?
- 교육행정은 이론과 실천의 마주보기이니깐요. 보완 및 흥미 가득 & 자신감 넘치는 발표 기대합니다.

교수님의 사전 피드백



피드백 내용 반영한 최종 발표 PPT

발표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우들의 발표를 들으면서도 나의 세계를 더욱 확장할 수 있었다. 수석교사 제도, 현행 학제의 문제점, 교권 침해 실태,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 등 학우들의 발표를 통해 다양한 실제 사례를 접하고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었다.

- 현장과 맞닿아 있는 수업

흔히들 실제 학교 현장은 대학에서 배운 것과는 괴리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5월에 교육 실습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낀 바로는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이 가장 학교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수업을 통해서도 충분히 체감할 수 있다. 학기 후반에 배우는 내용이 학교경영이나 학급경영인데, 이는 교육의 최전선에 있는 현장 교사들이 가장 잘 알고 실천하는 부분이다. 이에 교수님께서서는 우리 대학 선배이신 오유정 선생님의 현장 교사 특강을 시청하고, 효과적인 학급 경영을 위한 시사점까지 작성해 보는 과제를 부여해 주셨다. 대학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학교 현장에 대입해 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

오유정 선생님 특강 시청 소감

학급경영을 위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갖고 계신 오유정 선생님의 특강을 시청하고, 효과적인 학급 경영(또는 학교 경영에 참여)을 위한 시사점을 800자 내외로 작성하세요.

주제글쓰기

국어교육과 이해림

주제글 중심으로 보기



국어교육과 이해림

2024-06-07 12:31 이해림 에 의해 작성

오유정 선생님은 크게 학교에서 교사의 역할을 교과 교사, 담임 교사, 업무 담당 교사로 나누어 설명해 주셨다.

교육 실습 동안 가장 체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교과 교사의 수업 시수였다. 국어과의 경우 시수가 많은 편이라 지도 선생님께서 주당 20시간 수업하시는 것을 보았고, 나도 그중 15시간의 수업을 했기에 오유정 선생님의 특강이 더욱 와닿았다. 교과 교사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해결 방안도 알려 주셔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담임 교사로서는 학급 경영과 생활지도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도 교육 실습에 다녀온 직후여서인지 더욱 공감할 수 있었다. 코로나 이후 친구들과 어울리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고, 실제로 내가 맡은 학년에도 학생들 간 갈등이 조금씩 있었다. 오유정 선생님의 특강에서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더 찾아보니, 요즘은 '생활지도'보다는 '회복적 생활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한다. 이는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피해, 관계, 공동체의 회복'에 목적을 두고, 처벌과 보상으로 학생들을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서 그 목적을 위해 기꺼이 변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평소 공동체 내부에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피해를 회복하게 하는 힘을 기르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오유정 선생님처럼 급훈 공모 등으로 민주적 학급 분위기를 형성하고, 학부모와의 관계도 협력적으로 형성한다면 '회복적 생활교육'을 충분히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효과적인 학급 경영을 위해 '회복적 생활교육'을 실천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교육 실습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학급 경영 사례는 국어과 신규 선생님의 '시 처방 프로그램'이었다. 학생들이 익명으로 각자의 고민을 적으면, 다른 학생이 고민에 맞는 시를 찾아 직접 처방해 주는 활동이다. 이를 비폭력 대화를 기반으로 실천한다면 학생들은 지성, 인성, 감성을 모두 갖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답변 등록

현장 교사 특강 시청 소감

♣ 수업 이후 얻은 깨달음

8주 차에 중간고사를 치르고 9주 차 수업까지 들은 후,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모교에서 교

육 실습에 임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교사의 직무 동기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왜 교사가 되고 싶은지 물으신 적이 있다. 그때 한 학우가 “아이들이 좋아서요.”라고 대답했다. 나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나 자신이 좋아서겠지요.”라고 말씀하셨다. 그 당시에는 교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으나, 5월이 되고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교수님의 말씀이 이해됐다. 아이들을 사랑해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아이들과 함께할 때 나 스스로가 ‘행복’을 느끼는 것도 중요함을 깨달았다. 그렇게 교직에 대한 꿈을 가지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오니 한 주치의 수업만을 앞두고 있었다. 그동안 배우지 못한 부분을 채우고, 교육 실습생에서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오느라 애를 썼다. 부족함 많은 상태로 기말고사를 마쳤고, 시원함과 동시에 이렇게 4학년 1학기가 끝났다는 섭섭함도 밀려왔다.

이번 학기 초반에 수강 신청한 과목을 살펴보면, 꼭 잘 해내고 싶은 강의가 두 가지 있었다. 그중 한 과목이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이다. 평소 수업 시간에 발표를 즐겨 하지 않는 내가 교수님의 질문에 즐겁게 대답하고, 중간고사를 치른 후 4주 동안 수업을 듣지 못했어도 기말고사는 잘 보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다. 이번 학기 성적을 확인해 보니, 나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듯하여 행복했다. 내게 행운의 네잎클로버가 찾아온 것 같았다.

HATT0090	교육행정및교육경영	1교직	2	9.00	A+
----------	-----------	-----	---	------	----

오리엔테이션 시간 나는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수업의 지향점’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이론에 대한 철저한 이해
- 둘째, 배움에 대한 진지한 토론
- 셋째, 스스로의 깨우침에 근거한 창조적 학습 성과

한 학기를 마무리한 지금, 이 세 가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수업을 통해 교육전문가로서의 성장은 물론 나 스스로의 식견이 넓어졌다고도 느꼈다. 4년 동안 수강한 교직 강의 중 가장 기억에 남고 얻어간 것이 많은 수업이 바로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이 아닐까 싶다.

2024년 1학기, 4학년 학부 수업과 임용 시험 준비, 교육 실습 세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던 나는 중간에 길을 잃기도 하고,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결과, 내게 네잎클로버 한 송이가 찾아왔다. 나에게도, 이 글을 읽는 상명대학교 학우들에게도 행운의 네잎클로버가 찾아오길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이만 글을 맺으려 한다.

감동을 주는 교육전문가로서의 성장

영어교육과 20학번 김지민

강의명: 교육과 법, 담당교수: 장덕호

‘헌법 제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창 시절 교육 불평등을 주제로 사회문화 시간에 발표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당시 준비했던 발표에서도 통계적으로 부모의 경제적 소득과 학생들의 사교육 수준에 유의미한 상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속상했다. ‘능력에 따라’라는 말과 ‘균등하게’라는 말이 과연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다.

나는 영어를 처음 배울 때부터 좋아했다. 사람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던 어린 소녀는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며 인연을 맺는 일에 가치를 느꼈다. 나의 이야기를 한글이 아닌 다른 언어로 전달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과 만날 수 있어 기뻐했다. 그렇게 영어를 처음 접한 때부터 지금까지 일방적인 짝사랑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내가 영어영문이 아닌 영어교육을 전공으로 택한 이유가 있다.

사람을 좋아하는 나는 학창 시절에도 선생님들이 좋아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수업을 열심히 듣고, 무엇이든지 성실하게 해내는 학생이었다. 그렇게 행복하게 초등학교 생활을 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여 현실에 부딪혔던 적이 있다. 반에서 1등을 놓쳐본 적 없던 내가, 중학교 첫 시험을 보고 반절 가까이 틀렸던 것이다. 속상한 마음에 시험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었다. 즐거움으로만 학교에 다니기엔 현실이 따라주지 않았다. 가장 좋아하는 영어 수업도, 학교 시험을 보기 위한 영어 수업에 늘 반기를 들었던 것 같다.

무작정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을 찾아가 상담을 받으면서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영어는 이런 영어가 아니에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선생님께서도 이런 현실이 안타깝고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있다. 선생님께서도 일상에 도움이 되고 교실을 나가서도 함께할 수 있는 영어 수업을 하고 싶으셨다고 한다. 하지만 수행평가와 지필고사를 해야 하기도 하고, 게다가 해당 연도에 자유학기제 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체제가 완전하지 않은 상태여서 학교 현장은 혼돈의 도가니였다.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도 현실이 따라주지 않았던 것이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끓어오름을 느꼈다.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교육 현장을 변화할 수 있는 영어 교사가 되자.’라는 다짐을 하였다. 영어에 대한 짝사랑과 교육에 대한 갈망도 시작되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영어교육과에 진학하였다.

학부에 진학한 후에도, 영어교육과 전공 수업과 교직 수업을 계속해서 들었지만 교육에 대한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다. 아무래도 전공의 초점이 ‘영어’에 맞춰져 있다 보니, 교육학에 대한 수업은 비중이 작았기 때문이다. 교육학에 대한 오랜 갈망을 해소하기 위해, 더 배우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교육학과 다전공을 시작했다. 그렇게 벌써 3년째가 되었고, 이제 내년 졸업을 앞둔 4학년이 되었다. 그중 이번 학기에 수강한 ‘교육과법’ 강의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교육과법’ 수업은 교육법을 중심으로 교육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교육에 대한 분석 및 비판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강의이다. 교육과 법의 관계를 이해하고, 교육 주체들의 권리 파악을 위한 내용들을 학습한다.

강의 개요

1. 교육을 둘러싼 법률적 문제와 이슈들을 이해함으로써 장래 제도권 내 교육자로서의 성장에 조력을 받는다.
2. 교육과 법의 관계를 기본원리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특히,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집중 파악한다.
3. 교육관련 법규의 체계(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와 주요 내용을 습득한다.
4. 교육법의 기본원리와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행정 및 정책의 주요쟁점들에 대한 분석 및 비판능력을 기른다.

<교과목 목표>

1. 정의의 관점을 바탕으로 교육의 기본원리와 제도를 평가할 수 있다.
2. 공교육 제도의 의미를 바탕으로 교육제도를 평가할 수 있다.
3.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사례 중심으로 파악한다.
4. 교육법의 체계를 파악하고, 상호연관성을 이해한다.
5. 교육의 주체가 권리를 침해받았을 경우 권리구제의 방식과 내용을 습득한다.
6. 교사의 법적 지위를 파악한다.
7. 교육정책의 법제적 기반을 이해하고, 관련 쟁점과 문제점들을 평가한다.



과목공지



질의응답



강의용 ppt 묶음



장애인의 이동...

14.8MB



TOP

출처: 이캠퍼스

작년 2학기, 나는 본교의 교환학생으로 미국 미주리주 조플린에 있는 Missouri Southern State University로 가게 되었다. 바쁘게 교환학생 준비를 하던 중,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 교육 학도로서 안타깝고 속상한 현실에 눈물이 났다. 그 후 교환학생으로 한국을 떠났고 평소 뉴스를 매일 챙겨보는 편이기에, 한국을 떠나 있어도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하였다. 그러던 가을, 2023년 9월 4일. 일명 ‘공교육 멈춤의 날’에 전국의 교사들이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식에 맞춰 교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거리로 나왔다는 뉴스를 접하였다. 당시 그 현장을 뉴스로 보고 멍한 마음이었다. ‘이게 2024년에 일어나는 일이 맞나?’ 이러한 현실이 무척 안타까웠다.

그러다가 갑자기 머릿속에서 전구가 번쩍이듯, 진정으로 내가 공부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집회 이후,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교육법을 더 공부해야겠다고 다짐했다. 더욱이, 직전 학기에 ‘교육행정’ 과목도 수강하였기에 시너지가 클 것으로 생각했다. 또한, ‘교육을 전공하는 교육학도이자, 미래의 교육전문가로서 나의 권리를 지키려면 법을 알아야겠구나.’ 싶었다.

다전공 중인 교육학과는 교육과정이 2년 주기로 구성된다. 일부 전공선택 과목은 2년마다 열린다는 뜻이다. 이미 ‘교육과 법’ 수업이 2년마다 열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해당 학기에 학교 현장 실습을 나가게 되어 수업 일부를 못 듣는다는 것을 생각해도, 이 수업은 꼭 듣고 싶었다. 시간표에 맞춰 듣는 게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서 듣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배우고 싶어서 신청한 수업은 오랜만이였다. 월요일 9시 아침 수업이었지만, 매주 기분 좋은 두근거림과 함께 했던 수업이었다.

교육과 법 수업은 b-learning 강좌로, 수업 시간 전까지 학생들은 해당 주차 강의 영상을 미리 시청하고 와야 한다. 대면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께서 복습처럼 수업 내용을 다루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된 상태여야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 영상 이외에도 교수님께서 참고자료도 함께 이캠퍼스에 올려주셔서, 자료와 함께 학습하면 이해도가 높아진다.

3주차 [3월18일 - 3월2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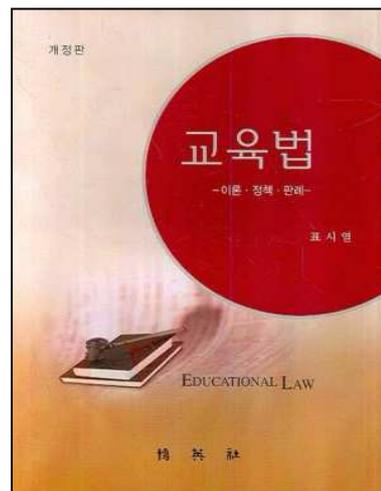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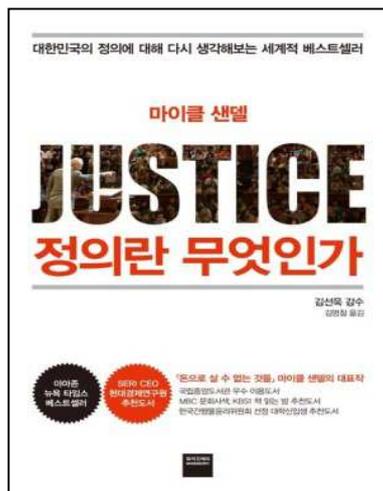
학습목표 : 교육법의 기본 원리를 비교한다.
 주요학습내용 및 방법 : 교육법의 기초 <2> 도덕주의 VS. 평등주의 발표 및 토론

-  교육과법_3차시_교육법의 가치적 기초(3) 도덕주의 2024-03-13 00:00:00 ~ 2024-03-24 23:59:59, 32:10
-  교육과법_4차시_교육법의 가치적 기초(4) 평등주의 2024-03-13 00:00:00 ~ 2024-03-24 23:59:59, 26:41
-  주요 교육관련 판결(영상) 2024-03-13 00:00:00 ~ 2024-03-24 23:59:59, 10:00
-  주요 교육관련 판결 ppt 33.9MB
-  교육정책에 관한 사법부의 판결논문 1.5MB
-  토론: 칸의 도덕주의와 롤스의 평등주의 비교하기
-  샌델의 강의(EBS): 칸트
-  롤스의 평등주의: 설민석

출처: 이캠퍼스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여러 교육 문제와 관련된 질문들을 학생들에게 하시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이 준비한 발표를 들은 후 토론하면 수업이 끝난다.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 내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사실 처음에는 질문의 답을 맞춰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을 느낄 때도 있었다. 전형적인 한국식 교육에 익숙해진 나는, 맞고 틀리는지에 대한 강박감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던지시는 질문들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또한 학생들이 대답하면, 그 대답에 관한 질문을 또 하시며 이어 나가신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교육의 표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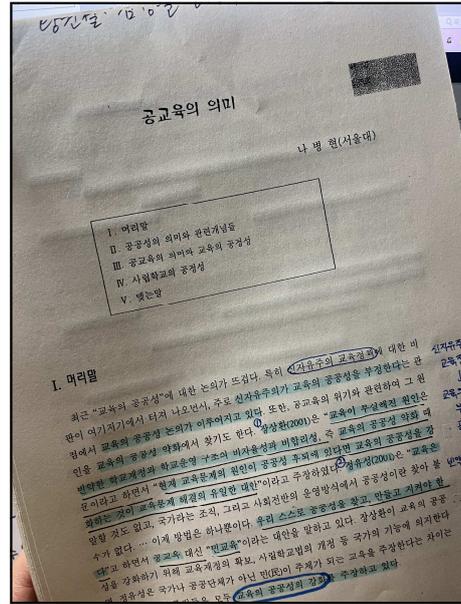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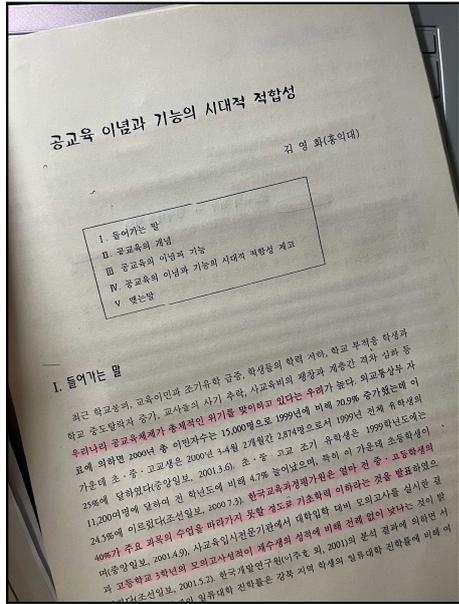
중간고사 이전에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교육 문제를 다룬다. 교육법의 기본원리를 공리주의, 자유주의, 도덕주의, 평등주의 이론과 함께 이해한다. 정의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교육에 접목하여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이해도 잘되었다. 교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주제와 관련된 논문을 바탕으로 수업을 듣기도 한다. 법과 관련된 강의이기 때문에 판례도 함께 다룬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표시열 저자의 교육법 교재를 주로 사용하여 학습한다.



법이라는 생소한 분야를 함께 배우기에 학습량이 많고, 내용 또한 어렵다. 판례도 함께 학습하기에 학습량이 많아 당황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미래의 교육전문가로서 꼭 갖춰야 할 능력이라 생각했고, 그러므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라고 생각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강생들은 정해진 주제와 관련된 발표도 준비해야 한다. 학기 내에 한 번으로, 발표에는 주제와 관련된 교육 쟁점을 가지고 판례와 토론까지 포함하여야 한다.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우리 조의 주제는 ‘공교육 제도’였고, 저자 나병현 교수의 논문인 ‘공교육의 의미’와 김영화 교수의 ‘공교육 이념과 기능의 시대적 적합성’이라는 두 개의 논문이 발표 기본 자료로 지정되었다.



발표 준비를 위해 해당 논문 두 편을 읽고 주제를 생각해야 했다. 2주 전 미리 인쇄본을 받아 읽었다. 생각보다 양이 많아 힘들었던 기억이 난다. 그리고 나서 한 편씩 맡아 논문 요약과 주제를 고민했다. 아무래도 우리 조만 논문이라 발표 주제 선택의 폭은 넓었지만, 폭이 너무 넓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래서 주제 정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논문 이해도를 기반으로 발표를 해야 했기에 한 편씩 맡아 요약하며 공부했다. 새로운 용어와 개념들 때문에 조원도 함께 힘들어했다. 논문을 요약한 자료는 이후 학우들이 발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한 페이지 분량으로 첨부하였다.

해당 논문은 공교육의 본질적 의미는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교육 방향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시사하고 있었다. 추상적인 교육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처한 현실은 어떻다는 것을 확실히 언급하여 인상 깊게 읽었다. 이러한 논문을 읽으면서 이러한 교육 현실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에 착잡했고, 속상한 마음이었다.

논문을 읽고, 정리하고, 요약하고, 발표 자료 만들고, 토론 주제까지 생각하는 일련의 과정이 대학 생활의 총집합 같았다. 또 감사하게도, 진정 좋은 조원 학우를 만나서 힘든 과정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기도 했다. 내가 학년이 더 높아서, 주도적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 데, 좋은 학우를 만나 대학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발표가 되었다. 항상 약속한 것 그 이상으로 준비해 왔었다. 이거 해야 한다, 언제까지 이거 해올 수 있을까, 명령하는 것 같아 조심스럽기도 했고, 항상 미안한 마음이었었는데, 괜찮다고 자기는 좋다고 얘기해주고 맞춰주었다. 이상적인 팀 프로젝트가 무엇이나고 물어본다면 이번 발표였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학우와 함께 계속해서 같이 토론하며 교육학도의 열정을 불태우며 발표를 준비하였다.

2024학년도 학기	교육과 법
공교육의 의미 (4명만) 1. 의미론 -공교육 부실 원인은 교육의 공공성 약화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필요성 -교육의 공공성은 무엇인가? 2. 공교육의 의미와 관련 개념 2-1) 공공성의 의미 (1) official 국가에 관계된 공적인 것 (2) common 모든 사람이 관계된 공통의 것 (3) open 누구든 대개서도 개방된 것 2-2) 관련 개념들 (1) 공공재: 비경합성, 비배타성의 특징 O (2) 공공 부문: 정부,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 (3) 공공 영역 : 교육은 개인을 공공 영역에 접어들 수 있도록 알려내고, 이 본질적 특성이 교육의 공공성 규정 3. 공교육의 의미와 교육의 공공성 규정 3-1) 공교육의 세 차원 (1) 공립 학교에서 실시되는 교육 (2) 국가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확립, 법률의 통계를 받는 교육 (3) 교육 그 자체가 공교육 => 사교육을 포함한 모든 교육이 공공성 지님 O 3-2) 공교육의 의미와 교육의 공공성 -공교육은 그것이 공·교육인 한 공공성 O (1) 교육의 제공자: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 -교육관계(생각)를 통하여 교육을 통해, 관리, 지원하고 있다면 넓은 의미에서 공교육에 해당 (2) 교육의 비용: 국가(국립)와 지방(지방) 부담 -공교육은 총 중립의 보통교육을 지칭 의미. -그들공교육 대학에 공비 투입=> 공교육? (3) 교육의 대상: 일반 대중으로서의 '공동' -이념을 통틀어 공교육=> 지역주의의 실현 (4) 공교육의 비전: 이념, 공적, 공동성의 추구 4. 사립학교의 공공성 -교육기본법 제9조 2항 (사립학교의 공공성 규정) -사립학교의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에 규범적 측면 (3-1)에 따라 공공성 확보 O 5. 맺음말 -교육의 공공성 사회적 보장: 개인이 교육의 차등 억압 X 공적 차등 필요로 인정하여 교육의 기층을 가질 수 있는 사교육에 대하여 공비를 제공해야 하는 것 => 공교육의 가장 본질적 의미	공교육 이념과 기능의 시대적 적합성 (김영희) 1. 들어가며 말 -우리나라 공교육체계의 총체적인 위기 -공교육제도는 21세기 새로운 문명사회의 필요에 적합 X -공교육에 대한 내면적인 교육이 광범위하게 개입 -공교육의 이념과 기능은 새로운 문명사회의 필요에 따라 사회에서 그 효용성과 시대적 적합성을 상실한 것인가? 2. 공교육의 개념 -국가 권의 일 지은, 국민 전체 대상 보편성과 평등성 -교육의 사회적 유용성, 교육내용의 충실성과 보편성 3. 공교육의 이념과 기능 -약 2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공교육제도 3-1) 공교육의 성립 (1) 교육 기회의 평등권 -'능력 이외의 요인에 의해 교육 기회의 격차 발생해서는 X, 능력에 기초한 평등권 (2) 교육 역사의 평등권 -교육의 역진(과잉)에 있어서 학교 간 차이 없어야 함 (3) 교육 결과의 평등권 -'능력에 낮은 학생에게 더 많은 지원 투입=> 같은 수준 -역사적인 평등권, 보편적 평등권 3-2) 사회통합 (1) 국민통합의 개념 (2) 갈등/분쟁과 대타협의 개념 (3)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개념 3-3) 인적의 발달, 공교 -자식(가장)만 생각하지 X -공교육은 여인이 산업사회의 격렬한 경쟁을 견뎌야 할 인적 양산 4. 공교육 이념과 기능의 시대적 적합성 재고 -공교육의 평등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공교육이 추구하는 이념, 기능을 제대로 실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공교육이 이념, 기능의 구체적 내용이 현대 사회에서 적합성을 상실하고 있음 5. 맺음말 -교육의 사회적 도입! 역사정당성 재검 공적=> 사회적 약자, 학교, 교사, 학부모는 사회적 경쟁자로서 경쟁, 공교육의 이해관계 추구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이 집중 향상시키기 위해 집단적 노력 기울일 가능성 축소 -공적 이념, 기능의 세부 내용 및 실현, 수행 방식의 재 조율=> 사회적 책임의 분담하는 노력 -국가 관리의 실익 방위 필요 -교육의 공공성은 국가 주도의 관료주의적 통제에 의존하던 체제에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역할을 통한 확보

직접 작성한 논문 요약 자료

우리 조가 준비했던 발표 주제는 ‘특목고 폐지 백지화’였다. 뻔한 주제는 하고 싶지 않았다.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육의 공공성, 교육 평등권과 관련하여 다룰 법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수능 시험에 집중하겠다는 최근 고교 자퇴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서 뉴스 영상을 찾아보았다.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 코로나19 이후 학교 수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알게 되었다. 학교가 상위 학교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만 전략하였을 뿐, 공교육 본래의 의미와 기능이 망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특목고 폐지는 전 정부에서 실행하고자 했으나, 새로운 정부가 세워지면서 이러한 정책을 백지화 시킨 것이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교육 정책이 공교육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느꼈고, 정치에 종속되어 본래의 목적인 공익과 공동선의 추구를 잃고 있음을 발표에서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관련 판례로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이하 자사고) 행정처분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다뤘다. 아무래도 특목고 폐지 백지화가 최근 교육 문제로 대두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판례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해당 판례는 교육부 장관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에게 자사고 지정취소 직권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함을 지적했고, 이러한 판례가 한순간에 정책을 뒤엎어버리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느꼈다.

글 초반에 언급했듯, 나는 헌법 제 31조 1항에서 ‘능력’과, ‘균등’이라는 단어가 양립하는 것에 늘 의문을 가져왔다. 특목고 폐지 백지화가 이를 보여주는 사례였다. 특목고 폐지는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의 평등성을 강조하고 있고, 특목고 준치는 자유주의, 능력주의에 기반한 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자 토론 주제로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의 조화를 이루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나라의 현 공교육은 이 두 가치를 대립적인 개념으로 보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겉으로 보이는 제도를 바꾸기만 하

는 현 교육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평등성 교육과 수월성 교육의 조화 필요성을 제시하며 학교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조화를 이루기 위한 국가 역할의 재규정이 필요하며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 주도의 교육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스스로 생각해도 흐름과 구성이 완벽했다고 생각한다. 힘들었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것을 배웠던 발표였다. 교육학도로서 알아야 할, 한 번쯤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탐구해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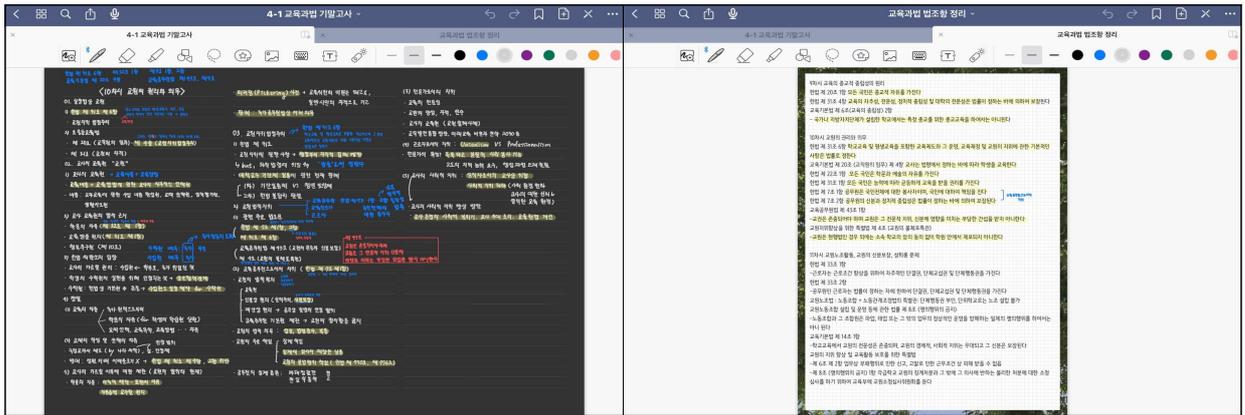
교육과법 강의는 중간, 기말고사 모두 논술형으로 이루어진다.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기말시험을 준비하면서 관련 법 조항들과 함께 주차마다 해당하는 교육 관련 문제들을 생각해 보았다. 발표 조원이었던 학우와 함께 우리끼리 토론을 하기도 했었다. 만나면 안부 인사가 아니라 토론부터 하던 사이였다. 온라인으로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기말고사를 준비하였고, 실제로 시험 전날까지 토론하던 '서울시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문제가 실제로 출제되어 놀라웠다.

수업 시간에 언급된 주요 법령을 모두 정리하여 외우고, 판례도 말로 설명하면서 공부하였다. 분량이 제일 많고 힘들었지만, 가장 좋아하는 분야여서 신나서 공부했었다. 물론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니 좋은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 가장 행복했던 수업이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법령은 두 가지인데,

- 1) 교육공무원법 제 43조 1항: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2) 교육기본법 제 14조 1항: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실제 현실에서도 이러한 교원의 권리가 존중되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기말고사 학습노트

마지막으로, 교육과 법 강의를 추천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우리는 생각보다 사고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은 정말 바쁘다. 힘들게 중, 고등학교 생활 혹은 재수까지 하면서 대학교에 왔지만, 놀 수가 없다.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취업이라는 다음 관문을 준비해야 해서, 학업과 취업 준비를 병행하여야 한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젊은 청년들에게 본인에 대해 사고할 생각을 주지 않는다. 그러기엔 현실이 임무의 연속으로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이 강의는 학생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다. 그저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교육 문제와 관련된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 준다. 교육 문제 외에도,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수업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당연해지는 세상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세상 어디에도 당연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미래의 교육전문가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법을 공부할 것이고, 계속해서 법과 함께 하고자 한다.

교육과정 수업은 단순히 학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통찰력을 배울 수 있는 강의였고 많은 것을 배운 강의였다. 많은 학우가 내가 배우고 느낀 것을 함께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

경영학부가 빅데이터 분석하는 브이로그

경영학부 22학번 김유진

기획 의도

갈 수 있는 길이 너무 많고 대부분이 선택하는 길을 벗어나기에는 두려운 경영학부생이 진로를 정하지 못한 채 3학년을 다니다, 어느 한 수업을 들음으로써 방향을 정하게 된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대부분이 회계, 재무, 세무 등으로 가는 와중에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준비하지 못한 길에 발을 들이게 된 계기가 되어준 이애리 교수님의 경영빅데이터분석 수업은, 그저 데이터 쪽에 관심만 가지고 있던 체계 실습을 통해 실제로 분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진로 설정에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모두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본인의 역량과 관심사를 생각하며 나만의 길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 본 지면에 실린 부분은 동영상 제출작의 주요 편집본이며, 원본 전체는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p>경영학부가 빅데이터 분석하는</p> 	 <p>안녕하세요 상명대 경영학부생입니다.</p>
 <p>진로를 못 정한채 헤매고 있던 제가</p>	 <p>어느 한 수업을 듣고 드디어 진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p>
	<p>◉경영학부 CDR 현황</p> 
 <p>그럼 경영빅데이터분석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p>	 <p>경영빅데이터분석은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해 배우는 과목인데요</p>



머신러닝은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규칙을 학습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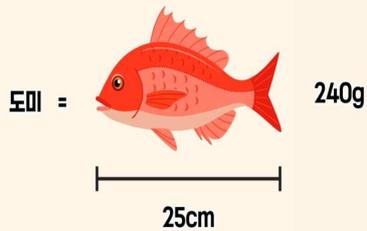


머신러닝은 크게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으로 나뉘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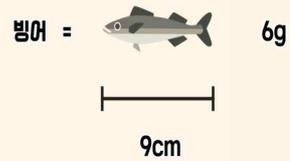


지도 학습은 컴퓨터에게 타겟과 답 세트들을 주면 학습하는 것입니다.

머신러닝 - 지도학습



머신러닝 - 지도학습



머신러닝 - 지도학습



무슨 생선이야 라고 물어보면 도미라고 답해주는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머신러닝 - 비지도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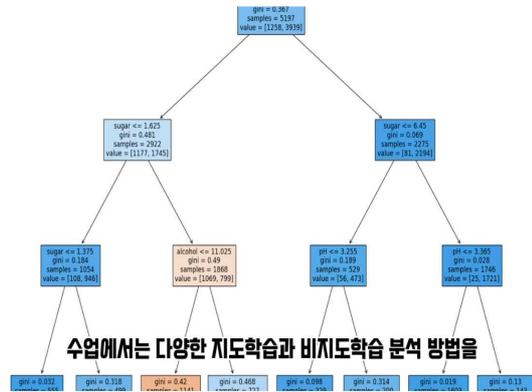


비지도 학습은 컴퓨터가 답을 모르는 상태로

머신러닝 - 비지도학습



데이터 속에 존재하는 일정한 패턴이나 특징 또는 법칙을 스스로 추출하도록 학습하는 것입니다.



수업에서는 다양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분석 방법을



실습을 통해 배워됩니다.

연관성 분석 설명 - 연관성 규칙 평가지표

연관성 분석은 아래의 2 단계로 이뤄짐
 1) 데이터 간 연관 (의문식) 문제(연관 규칙) 생성 - 후보 연관 규칙 생성하기
 이때 가장 유용한 것은 무엇일지? Support, Confidence, Lift
 2) 발견한 후보 연관 규칙의 검증 - 강한 규칙 선별하기
 < 연관성 규칙(품목) 평가지표(Association)>
 Rule A → B if (A) → then (B)에 대해 확률론 보는 것
 - Support (지지도)
 - Confidence (신뢰도)
 - Lift (상관관계)

교재에는 없지만 필요한 내용들은 직접 내용을 만드셔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Tentative Course Schedule (1/3)

주차	강의내용	학습목표
1	교과목 오리엔테이션 및 경영데이터분석	• 학기 동안의 교과목 전반의 운영 방침 및 수업 구성 내용을 숙지하고, 본 교과목에서 다룰 비즈니스 경영을 위한 데이터 분석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한다. 또한, 학적 기 동안 이용할 실습 용량(구급 코랩)을 간단하게 살펴봄으로써 이용하기 쉬운 기초 사용법을 알 수 있도록 한다.
2	데이터 분석 맛보기: KNN (K-최근접 이웃) 분류 알고리즘 다루기	•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 적합한 데이터 분석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마이닝/머신러닝 기법인 KNN 분류 기법부터 최근의 학습함으로써 데이터 분석이 어떤 식으로 수행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3	데이터 다루기 I - 훈련/테스트 데이터 세트 구축 및 적용	• 데이터마이닝/머신러닝에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데이터마이닝을 위한 데이터를 준비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다. 또한, 훈련 data set과 테스트 data set의 분리 필요성과 분리 방법을 학습하고, 훈련 데이터 세트로 분석 모델을 훈련시킨 후 테스트 세트로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을 실습을 통해 익히도록 한다.
4	데이터 다루기 II - 데이터 전처리	• 본격적인 데이터 분석에 앞서 수행할 데이터 전처리(Data Preprocessing)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데이터 전처리(스케일 조정, 표준화 등) 전/후 데이터 분석 결과의 차이점 등을 실습을 통해 알 수 있도록 한다.
5	(지도학습) 예측 - 회귀(Regression) 알고리즘 I	강의계획서에도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방법을 소개하고, 지도학습의 한 종류인 회귀(Regression) 알고리즘 I (선형 회귀 등) 기법을 학습함으로써 회귀 모델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필요한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한다.

Tentative Course Schedule (3/3)

주차	강의내용	학습목표
11	(비지도학습) 군집 분석 (Cluster Analysis)	• 군집 분석이 필요한 비즈니스 상황을 이해하고, 데이터마이닝/머신러닝 비지도학습 및 군집 알고리즘 개념과 그 사용 기법에 대해서 학습한다.
12	(지도학습) 딥러닝 - 인공신경망 (Artificial Neural Network)	• 요즘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해하고, 대표적인 인공신경망 라이브러리인 텐서플로(케라스)를 사용하여 간단한 인공신경망 모델을 만들어 보면서 인공신경망 기법이 어떻게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에 활용되는지 학습한다.
13	(비지도학습) 연관성 (Association) 분석 및 상관관계 (Correlation) 분석	• 비즈니스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마이닝/머신러닝 기법인 '연관성 분석'에 대해서 배우고, 그 활용법을 익히도록 한다. 또한, 기초 분석으로 많이 활용되는 요인 간 '상관관계 분석' 및 히트맵 작성법을 학습하도록 한다.
14	데이터 분석 총정리	• 데이터 분석 전체 프로세스(CRISP-DM)를 살펴 보면서, 전학기 동안 학습한 '비즈니스 문제 상황별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마이닝/머신러닝 기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다. (또한 추가적으로 최신 트렌드 중 하나인 코딩 없이 간단하게 데이터마이닝/머신러닝 기법을 수행할 수 있는 툴이 어떤 식으로 이용되는지 가늠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15	교수님이 커리큘럼을 고심해서 짜주셨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대안고사; 이론 및 실습 혼합 시험)	- 주교과목 외 학습 목표



비전공자가 많이 듣는 수업임을 생각해 주시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노력해 주시는 모습이 감사했습니다.



누구나 재밌게 들을 수 있는 수업 경영빅데이터분석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머릿속의 물음표, 종잡을 수 없는 수업

영어교육과 22학번 **최민경**

1. 종잡을 수 없는 수업

유현주 교수님의 수업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종잡을 수 없다.'이다. 그 이유는 수업 전, 수업 중, 심지어 수업 후에도 끊임없이 '내 머릿속의 물음표'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혼란을 주는 설명인 걸 알지만, 이보다 더 적절한 표현은 생각나지 않는다. 나는 이 종잡을 수 없는 수업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문학강독1'이라는 과목에 큰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 과목을 들어보기를 추천한다.

내가 왜 '종잡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큰 매력을 느끼는지에 대해 과목에 관한 설명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다.

2. '영문학강독1'

본 교과목은 전공선택으로 영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이를 분석하는 큰 틀을 바탕으로 진행된다. 나는 문학을 매우 좋아하는 학생이기에 시간이 나면 언제나 이를 즐기고자 하고, 영문학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영어권 문화의 정서를 알아가는 것에도 매력을 느꼈다. 또한, 작품 속 숨겨진 의미와 다양한 해석에도 관심이 많기에 본 과목이 나와 잘 맞을 것이라고 느꼈고, 실제로 이 수업

을 들은 것이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나와 비슷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과목을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과목의 목표는 학생들이 다양한 영문학 작품을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영문학 작품에서 제기되는 여러 인문학적 문제를 복합적이고 심층적이며 다각도로 사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작품에 대한 비판적 분석력을 향상하며 이를 통해 세계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세와 태도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3. 예습과제

이 과목은 먼저 수업 전까지 예습과제를 해야 한다. 한 주에 한 개 정도로 전체 수업 중 총 10개의 예습과제를 주고 이 중 5개를 택해서 제출하면 된다. 예습과제는 정해진 범위의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교수님이 제시하신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고(준비된 질문은 3~4개이며 이 중 하나만 선정해 답해도 된다.) 직접 만든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도 작성할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그들의 정체성에 왜 혼란을 느끼나요? 이것과 관련해서-(생략, 문학작품과 관련된 내용)와 같은 질문이 있었다. 나는 이에 관한 생각을 에세이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했다.

최민경

2. Why do you think El Deafo is portrayed as rabbit? Or why are the characters in the book all anthropomorphic bunnies?

El Deafo의 등장인물들이 토끼인 이유는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독자들이 장애라는 주제를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El Deafo의 등장인물들이 토끼로 등장하기 때문에 광택한 토끼 소년의 밝은 성격이 이야기처럼 느껴지는데, 이 때문에 독자들이 주제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게 한다. 이는 저번 수업시간에 할리우드의 disability에 대해 학습하면서 나는 이야기처럼, disability 관련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disability의 표현 방식을 변화시켜 사람들의 심리적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장치가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는 귀가 큰 토끼라는 동물을 의인화함으로써 (작가는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만큼) 작가가 창작하려는 것이 본인 삶의 큰 부분을 차지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Cecile는 큰 귀를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자신이 창작장애를 가진다는 사실 또한 크게 느껴질 것이다. 게다가 전체 등장인물이 토끼이기 때문에 모두 큰 귀를 가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평범한 귀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부끄러워서, 자신이 가지 못한 평범한 귀에 대한 사실도 크게 다가올 것이다. 이처럼 작가가 어린시절에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느꼈을 감정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장치였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창작장애에 대해 타인의 시선과 관심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토끼는 귀가 크기도 하지만 귀가 가장 높이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부위 중 가장 눈에 잘 띄며, 착용한 보청기도 매우 잘 보일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귀를 쳐다보고 신경 쓸 것이라고 느꼈을 것 같고 그런 작가의 생각을 토끼라는 동물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토끼가 책의 주인공으로, 모든 등장인물로 그려진 이유는, 이와 같이 독자의 disability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 작가의 어린시절에 작가가 느꼈을, 삶에서의 장애에 대한 의미, 그리고 타인이 보였던 장애(보청기)에 대한 시선과 관심을 효과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최민경

What do the fantastical features and unrecognizable signs (and language) mean in Arrival?

The Arrival에서는 다양한 fantastical features와 unrecognizable signs가 나타나는데, fantastical features에는 '도시의 모습', 일반적인 동물과는 다른 모습의 생물체, '하늘을 날아다니는 배', '마법 효과같은 구름' 등등이 있다. 자신이 이민자였던 작가(중국어 말레이시아인이지만 오스트레일리아로 이주해 살아가고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 자랐는) 이 책을 이민자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것과 연관된 내용으로서 fantastical features와 unrecognizable signs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주인공이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고 정착하게 되는 도시의 모습은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도시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 이는 이민자로서 처음 이민국에 도착해 바라보는 도시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살던 곳과는 다른 모습과 환경이 익숙하지 않고 낯설고 독특해보일텐데, 이러한 시선을 약간의 판타지적 상상력에 의해 미래의 모습 같이 표현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동물과 다른 모습의 생물체는 이 책에서 다양하게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이민자가 자신의 본국과는 다른 환경인 이민국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적 문화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다양한 동식물, 다른 환경에서 발달하게 된 옷차림이나 식생활 등의 다른 환경으로 인해 생겨나게 된 (이민자들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문화를 암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배는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일러스트 요소이다. 개인적으로 이런 배의 모습이 이민국의 높은 기술력이나 성공을 뜻한다고 생각했다. 이민자들의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처럼, 하늘은 나는 배는 이민자들이 추구하여 이민국으로 오게 되는 이유인 높은 기술력과 성공을 뜻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모습은 이민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마법 효과처럼 생긴 다양한 모습의 구름이 가로로 10칸, 세로로 6칸으로 나뉘어 그려져 있는데(p.18), 이는 똑같이 가로로 10칸, 세로로 6칸으로 나뉘어 구성된 p.2의 다양한 인종, 성별, 나이의 이민자 모습들과 오버랩 된다. 이것은 이민국에서의 삶에 희망을 품고, 서로 도우며 의지해 어울리는 이민자들의 모습이, 하늘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서로 뭉쳐 함께 지내는 구름으로 표현한 것 같아 몽롱하게 느껴졌다.

마지막으로 Unrecognizable sign들은 이민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이민국의 언어라고 생각했다. 책에서 주인공은 읽고 쓰고 말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이민국에서 살아가는데 가장 큰 벽 중에 하나인 언어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러한 unrecognizable sign이 쓰였다고 생각했다. 작가는 독자를 모두가 처음보는 새로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민자의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을 직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게 했다고 생각했다.

예습과제 (만점 받은 과제들이다)

이 연습과제는 단순히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생각을 근거와 함께 설명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교재의 일정 부분을 요약하고 정리하거나 정확한 답을 적어내는 형식의 연습과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여기서 첫 번째로 앞서 말한 물음표가 떠오르는데, 바로 내 생각이 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부터 시작된다. 과제를 할 때 계속해서 ‘내 생각이 논리적인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타당한가?’, ‘이 근거는 작품의 어디에 나와 있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게 된다. 내가 이 작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 작품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물음, 이것이 수업과는 어떤 연관을 갖고 풀어나가질지에 대한 의문으로 만들어진 물음표는 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하고, 수업의 목표인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는 역할을 한다.

교수님께서서는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논리 있는 의견이라면 좋은 점수를 주셨기 때문에 더욱 자유롭게 나의 생각을 펼칠 수 있었고, 이는 학습 동기 부여로도 이루어졌다.

4. 학생 발표

수업에 들어가서는 학생들의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가진다. 발표는 모든 학생이 한 번씩 해야 하고 배우는 작품이나 관련 논문, 영상 등의 자료를 요약해 발표하면서 인상적인 부분,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을 소개하는 방식이다.

나의 경우에는 작품의 내용과 작가를 소개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맡아 발표하게 되었는데, 청각 장애가 있는 토끼 캐릭터 'El Deafo'라는 책 중 일부를 요약하고 인상적인 부분, 질문을 함께 나누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는 작품에 대한 이해를 나만의 방식으로 해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나의 의견을 명확히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발표를 듣는 입장에서는 딱딱할 수 있는 수업을 재미있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이해해 보면서 연습과제에서 미처 알지 못했거나 놓쳤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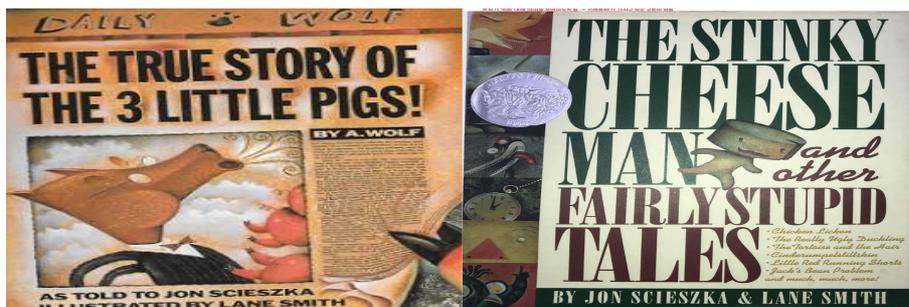
8. Let's think about...

1. Do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author's statement, "What's different from others is our superpower"? And why do you think so?
2. What do you think are the advantages of "work that 'disabled writers' made about disability" compared to "work that 'non-disabled writers' made about disability" that we learned earlier?

발표 제작 자료

5. 작품 분석

발표를 마친 후에는 교수님과 작품을 함께 읽어 보며 중요한 부분을 하나씩 짚어가는데, 여기서 교수님께서 이론 내용을 가르쳐 주셔서 작품과 이론을 연관하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예를 들어 우리가 영어 그림책 작품을 공부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을 함께 배웠는데, 작품에서 드러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을 직접 찾아보는 활동을 해보았다. 작품 속 숨겨진 다양한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어 재밌었던 수업이었다.



Pastiche

- The taking of familiar ideas...
- Pastiche is a form of rewri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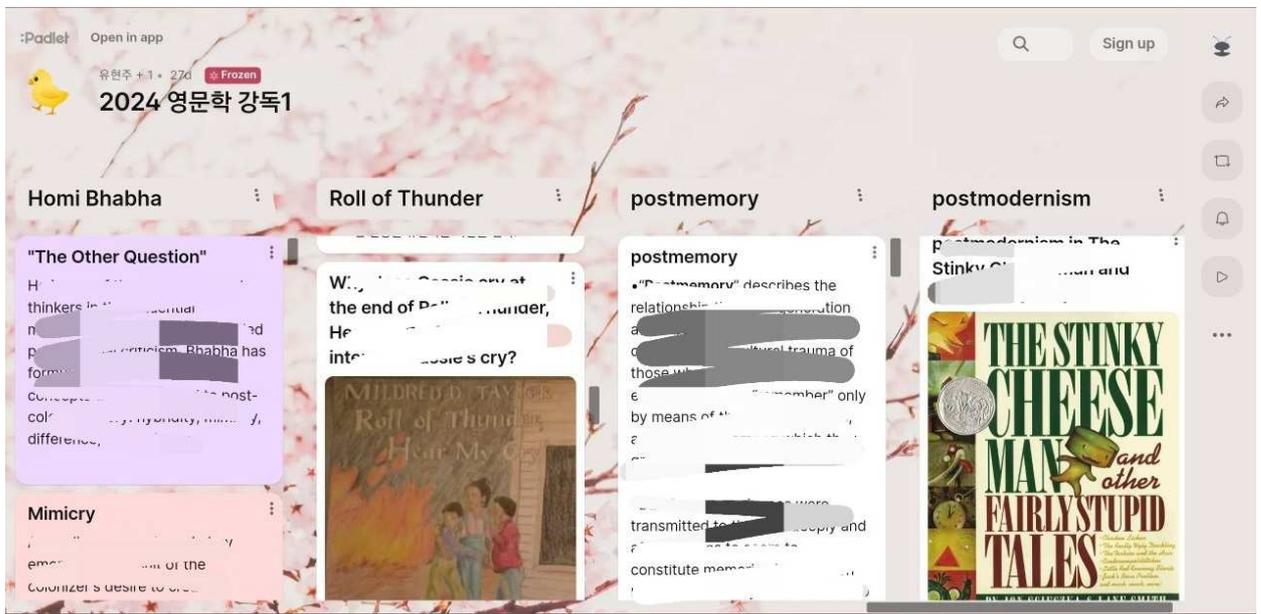


공부했던 작품과 이론 PPT

특이한 것은 교수님께서 ‘이론이 드러나는 작품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설명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또 다른 물음표가 떠오르는데 그것은 정해진 ‘모범답안’이 없다는 것이다. 내가 생각한 답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습과제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업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스스로가 작품에 대한 해석을 내리고, 그 해석이 타당한지를 오랜 시간 동안 깊이 생각해 보는 과정을 가질 수 있었다. 나만의 답을 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오히려 수업 시간에 배운 이론을 바탕으로 상상의 나라를 펼칠 수 있다는 데서 큰 즐거움이 있었다.

6. 협동 학습

게다가 이렇게 나만의 작품 해석 후, 패들렛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는 활동을 하기도 한다. 다른 사람의 해석을 통해 작품을 더 풍부하게 이해해 볼 수 있고, 가끔 완전히 반대되어 보이는 해석을 마주하는 때도 있어 깜짝 놀라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타인의 다양한 관점을 확인하고 이해하게 되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시야를 넓힐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



수업에 활용된 패들릿 자료

7. 시험

시험은 연습과제 질문과 비슷한 형식을 가진 문제에 답을 적는 것으로, 수업을 통해서 얻게 된 지식을 그동안 해 온 것처럼 논리적으로 근거를 갖고 제시해야 한다. 새로운 작품이나 질문에 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배운 것을 바탕으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이론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작품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몇몇 문제는 미리 제시되고, 오픈북과 유사하게 A4용지 반 크기 종이에 손 글씨로 작성한 참고 자료를 보면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이는 단순 암기를 테스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학작품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영어와 한글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어 영어 작문 실력을 향상할 기회를 가져보거나 영어 작문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이 배운 것을 모두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시험 준비 팁을 주자면, 작품에 대한 자신의 해석, 다른 사람의 해석, 교수님의 이론을 모두 기록한 후, 다양한 의견을 취합해 이것이 이론적 배경과 작품 주제에 타당한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자신의 해석을 강화할 수 있고, 교수님께서도 답안의 타당성과 이론과의 부합 정도를 확인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시험을 준비할 때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 모두 기록하고, 시험 기간에는 아는 모든 것을 적어내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다.



Stinky를 걱정하는 Jin의 모습
'냄새나는 것을 걱정했던 Monkey king'과의 이야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자신의 asianess를 보이는 것을 두려워함

- > 크루커
: 백인에게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트라우마가 될 수 없지만, 흑인에게는 트라우마가 될 수 있음. 이는 흑인의 입장에서 트라우마를 바라보게 되면서 트라우마의 경의를 다시 생각해보게 함. 이러한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이를 개인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함
- > 백인 책, 왜 이들을 적는 곳에 중이를 붙였을까?
: 없어야 하는 것이지만, 잊혀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의 타협을 보이지만, 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줌, 새로운 중이. 기존의 백인 중심 역사를 거부하고 흑인의 입장에서 새롭게 자신의 관점에서 역사를 쓸 수 있음
*참고
- > 벨러시네에 직접적 보복을 하지 않음
: 자신의 가족들을 위험에 처할 수 있게 함. 그렇지만 처함을 멈추지 않고 생존을 위해 지속함
- > 백인들은 아이들이 버스를 피하기 위해 미끄러지는 것을 좋아함
그 이유는 뭘까
: 상황을 통해 자신들의 무질감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하지만 오히려 그들의 모습이 유치하고 불쌍함
- > 아이들이 버스가 미끄러지게 구덩이를 판 것
: 차별적 상황에서도 변화의 시도가 계속 나타남. 가장 힘이 없는 존재의 힘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 고정관념을 뺌. 인종차별 문제 해결의 시작점일 수 있음
- > 벨러시네에 가게 된 아이들
: 아이들은 역사를 통해 이러한 것들을 배우지 않음. nonofficial history를 nonofficial하게 배움. 벨러시네의 트라우마를 아이들이 공유하게 되는 postmemory. 살아있는 경험으로 그 트라우마를 같이 경험함.

수업 필기 자료 (교수님 말씀을 거의 모두 적음)

8. 수업의 매력

교수님은 정답이 없는 수업을 지향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 예습과제를 하면서, 또 수업 중에 작품에 대한 해석을 스스로 해봄으로, 지속적인 궁금증과 질문을 마주하게 된다. 내가 한 작품에 대해 결과적으로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는 수업 전에도, 수업 중에도, 어쩌면 수업이 끝나고도 오랫동안 알 수 없다. 일관성이 없고 변화무쌍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이 수업은 ‘종잡을 수 없는’ 수업이지만 이는 나를 가장 기대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여운이 남게 한다.

이 수업을 통해 나는 작품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 정답이 없다는 것을 제시해 주셨기에 제한 없는 즐거움의 경험을 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론을 작품과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의미 학습을 할 수 있는 법과 작품을 비판적인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 법도 배웠다. 이 강의는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주도적으로 사고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돕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개인적으로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했던 경우가 많았지만 그만큼 큰 성취감과 성장의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수업이었다.

나는 함께 배웠던 영문학 작품들이 모두 재미있었고, 이 재미를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다. 결국에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A+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2024	1학기	영문학강독1	HABB3271	1	1전선	3	A+
------	-----	--------	----------	---	-----	---	----

‘영문학강독1’의 성적표(A+)

나의 문학 이해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준 ‘영문학강독1’이라는 과목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오직 주관을 바탕으로 작성한 글이지만, 다른 학생들 또한 이 과목을 통해 많은 긍정적 경험과 기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차도 모르던 내가 ‘A+’? : 회계 진심남 되기

경제금융학부 22학번 **김경환**

1. 강의 소개

제가 수강한 우수강의로 2024학년도 1학기에 수강한 김준현 교수님의 [회계원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회계원리]는 경영학의 구성 요소인 회계, 재무관리, 인사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경영 정보 시스템 중 회계에 대한 기초를 배울 수 있는 강의입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를 시작으로, 재무제표 작성, 현금흐름표 작성 등을 배워 앞으로의 회계 심화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을 다지는 강의입니다.

2. 수강하게 된 이유

경제금융학부에 입학하고 경제금융학부의 전공들을 수강해 오면서, 기업들은 실제 경영에 있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 경제학적이 아닌 경영학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싶다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런 궁금증을 시작으로 저는 경영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23학년도 1학기에 경영학부로 다전공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전공 합격 후, 2024학년도가 되었고 [회계원리] 수강을 고민하고 있던 차에 상명대학교 에브리타임 내에 강의평가를 보고 김준현 교수님의 [회계원리]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 회계원리 강의실 >

4.59 ★★★★★ 전체 추천순

★★★★★
20년 2학기 수강자 2
개인적으로 경영학과에서 강의력 최고라고 생각하는 교수님

★★★★★
23년 1학기 수강자 1
최고의 교수님.
경영학부에서 만난 교수님 중 단연컨대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음. 더 많은 수업을 김준현 교수님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정도

★★★★★
20년 1학기 수강자 1
시험 어렵다고들 하는데 수업 듣고 어쩌다 한번씩 복습만 하면 크게 어렵진 않음. 회계는 기초가 튼튼해야하니만큼 회계쪽에 관심있으면 이 교수님 강의를 선택하는게 현명함

3. 수업 방식

2024학년도 [회계원리] 수업은 B-러닝 형태로 진행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수업이 시작되기 전, e-Campus에 업로드된 온라인 수업 영상을 선 수강 후 오프라인 수업을 수강하는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간고사까지 회계의 분개를 작성하는 방법과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하였습니다.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현금의 현재가치부터 시작해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작성 총괄 및 현금흐름표 작성법에 대해 중간고사 이전보다 더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본 과목은 중간 45%, 기말 45%, 출석 10%로 구성되어 있으며, 과제나 발표가 있는 다른 수업에 비해 시험 2번과 출석으로 간단한 평가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자율과제란 이름으로 회계 문제들을 올려주시고, 해설자료와 함께 온라인 영상으로 해설 강의도 제공해 주셔서 최적의 학습 환경을 구성해 주셨습니다.

4. 강의 구성

강의 구성을 주차 별로 세분화하여 소개하자면 우선 1주차에는 회계를 배워야 하는 이유와 회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소개하고 회계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 중요한 이유, 회계의 종류와 우리나라의 세 가지 회계기준 등 회계의 기초적인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2주차 강의에서는 회계에 이론적인 내용, 개념체계를 학습했습니다. 회계의 질적 특성인 목적

적합성부터 시작해서 충실한 표현, 적시성,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그리고 이해가능성을 학습했습니다. 또 재무제표의 기본적인 가정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3주차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회계의 분개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복식 부기의 원리를 시작으로 회계거래를 분개하는 방법과 예시들을 통해 직접 회계분개를 작성하는 법을 배웠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관계를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4주차에서는 결산수정분개, 정산표, 장부 마감 등 3주차에서 학습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기간에 따른 회계 분개를 어떻게 하는지, 회계를 발생주의를 적용해서 분개하는 이유와 그 방법들에 대해 3주차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5주차 강의부터 7주차 강의는 자산 항목의 계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학습하기 시작했습니다. 5주차에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구성 요소를 배우고, 매출채권의 회계처리와 매출채권의 대손을 대비하기 위한 대손충당금, 그리고 대손 확정시의 회계처리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다음으로 6주차에는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와 원가흐름에 대한 가정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특히 이 주차에서는 재고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인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7주차에서는 유형자산의 정의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및 처분시의 회계처리 방법 그리고 무형자산의 정의와 무형자산을 인식하는 방법, 그리고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후 8주차에는 중간고사를 치렀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현재가치에 대한 개념과 현재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 금융상품 평가 모형인 AC 모형, FVOCI 모형, FVPL 모형을 배웠고, 그다음 금융자산별 적용되는 금융상품 평가 모형과 이를 활용하여 금융자산을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는지에 대해 9주차와 10주차에 걸쳐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11주차에는 부채계정에 대한 회계처리, 그 중에서도 사채 발행시의 회계 처리와 충당부채 회계처리, 그리고 퇴직급여충당부채 회계처리를 중점적으로 학습하는 수업이 진행되었고, 12주차에는 자본계정에 대한 회계처리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식이 발행될 때의 회계처리나, 배당 혹은 주식배당의 회계처리, 유상감자와 무상감자 등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13주차와 14주차에는 앞선 주차들에서 배운 내용들을 모두 종합하여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총괄 작성에 대해 연습하고, 현금흐름표의 구조에 대해 학습한 뒤, 재무제표 분석에 활용되는 공식들을 배웠습니다. 이후 15주차에 기말고사가 치러지면서 한 학기의 수업이 끝이 났습니다.

5. 강의 추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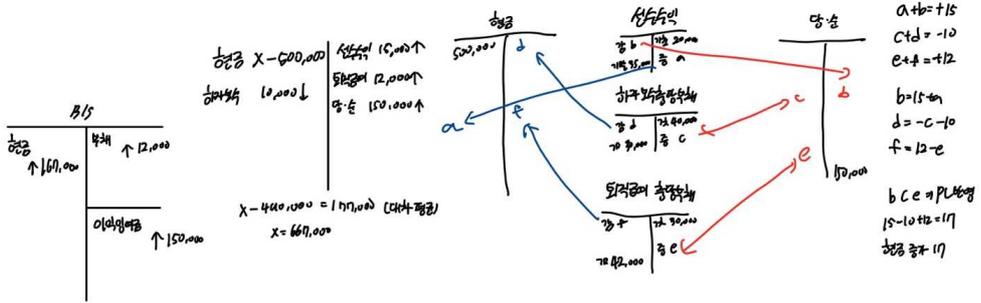
이 강의를 가장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회계에 대한 기초를 정말 잘 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원리 과목은 앞으로의 회계 과목 수강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회계에 대해서 ‘ㅎ’조차 몰랐던 저 역시 교수님의 강의를 수강하면서 A+이란 좋은 결과와 함께 학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자율과제 덕분에 많은 회계 문제를 연습해 볼 수 있

었습니다.

-  회계원리 자유평제_6차(현재가치회계 기본) 32.7KB
-  회계원리 자유평제_6차(현재가치회계 기본)_답안 198.4KB
-  회계원리 자유평제_7차(금융자산) 264.6KB
-  회계원리 자유평제_7차(금융자산)_답안 264.3KB
-  회계원리 자유평제 7차(금융자산)_풀이 2024-05-06 00:00:00 ~ 2024-05-12 23:59:59, 24:57
2024-06-15 23:59까지 사용가능
-  회계원리 자유평제 6차(현재가치 등)_풀이 2024-05-06 00:00:00 ~ 2024-05-12 23:59:59, 26:29
2024-06-15 23:59까지 사용가능



구분	현금	선수수익	하자보수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기초 잔액				
기말 잔액				



문제 내용은 저작권으로 인해 블러드 처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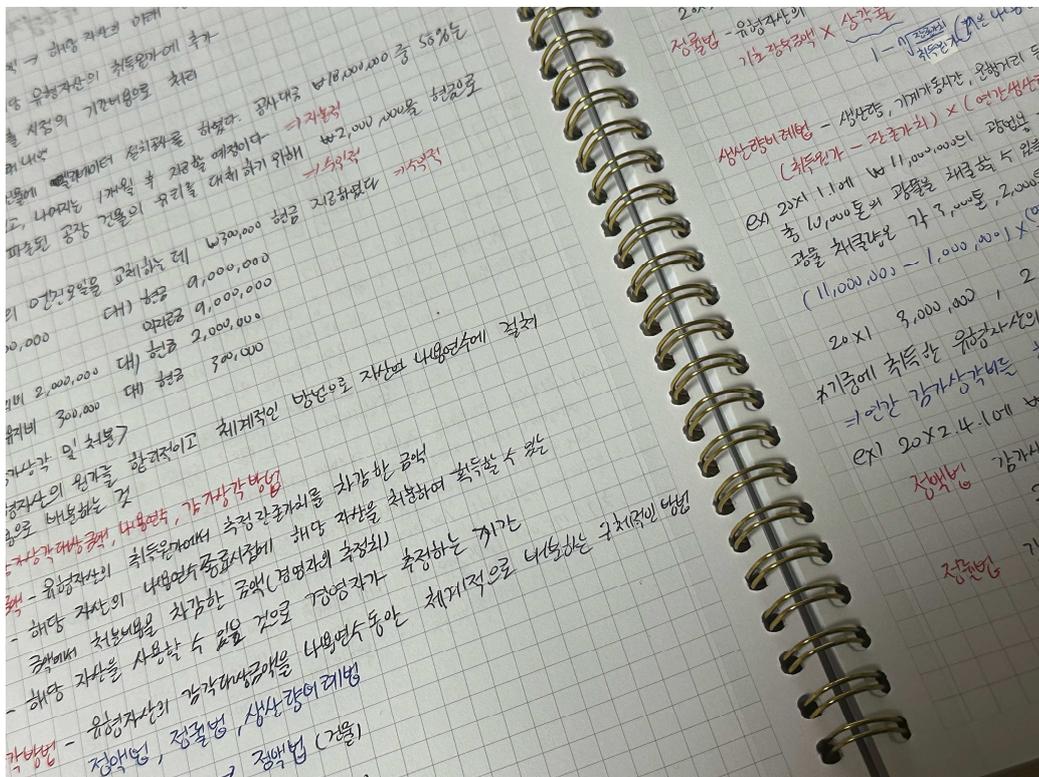
수업을 수강한 후 한 주에서 두 주 정도 뒤 그 주차 내용에 해당하는 자유평제와 문제 해설, 그리고 해설 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각 주차의 자유평제별 문제 수도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 적당 했습니다. 회계원리 수업을 통해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회계 공부 상태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한번 복습하기 좋았습니다. 또 시험 문제도 자유평제에서 보았던 문제들과 유사하게 출제되었기 때문에, 자유평제를 공부하면서 중간/기말고사 시험까지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의 구성이 혼자 공부하는 데 있어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도 제대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도 수업에 매우 열정적이셨습니다. 수업의 진행도 밀도 있게 이루어져 집중이 잘 되었고, 수업 후에도 관련 내용을 질문하면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에 사진에 있던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고 해설 강의도 반복해서 들었지만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수업이 끝난 후 교수님께 계속 질문하여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제가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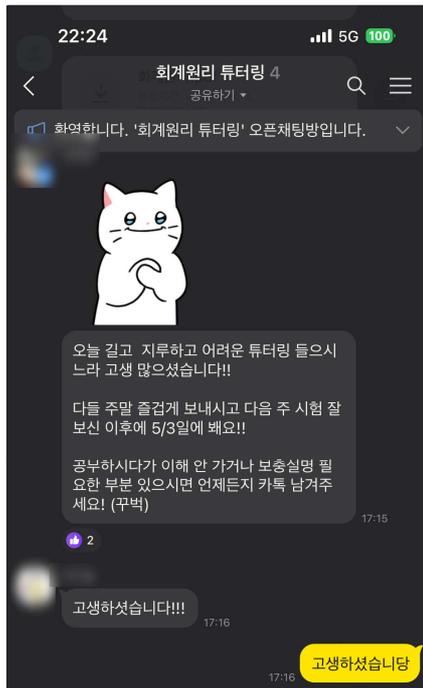
서 설명해 주신 덕분에,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6. 강의 수강 소감

2023학년도 1학기에 다전공을 합격하였고, 2023학년도 2학기에는 경영 전공을 과목을 한 과목 수강하였습니다. 2024년 1학기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영학과 전공 강의를 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영학과 강의를 처음으로 수강하던 시기였기에 저에게 매우 중요한 학기 중 하나였고, 그 시작을 [회계원리] 김준현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특히 수업을 수강하면서 회계에 큰 관심이 없었던 저는 오히려 [회계원리] 과목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강의 교안을 노트에 정리하고, 수업의 주교재인 에센스 회계원리를 구매해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또한, 교안에 있는 예시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시 풀어보며 회계를 진심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저는 단순히 수업을 듣고 혼자 공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주관하는 2024학년도 1학기 상명튜터링 ‘회계원리A+반조’ 팀의 튜터로 참여하여 교수님 수업을 먼저 수강한 튜터님께 튜터링을 들으면서 회계 공부를 이어 나갔습니다. 또 김준현 교수님의 [회계원리]를 수강하시던 학우분들도 열정이 넘치셔서 긍정적인 자극을 받기도 했습니다.

4 Score Certificate

이름(성별)	김경환 (남)
생년월일	
인증번호	
응시일	2024년 05월 25일
취득일자	2024년 05월 31일

간 : 성적발표일로부터 2년
 (2024년 05월 31일부터 2026년 05월 30일까지)

◆ 종합 평가

등급(총점)	상위누적
최우수 (800)	5.91
경제	경영
390	410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환경을 선도할 유능한 지식형 인재입니다. 탁월한 비즈니스 리더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에 양호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경제경영 응용력이 뛰어나고 사고력과 문제 해결능력이 탁월합니다. 시사지식이 풍부하고 현실 경제/경영 이슈에 대한 감각이 뛰어납니다.

[회계원리]는 이번 학기들은 전공과목 중 가장 열심히 공부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결과 중간고사 42점, 기말고사 45점, 출석 10점, 총 97점을 받으며 A+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영과 경제 전반의 지식을 묻는 시험인 매경TEST에 응시하여 최우수 등급을 따기도 했습니다. 이 시험에서도 [회계원리] 수업에서 배운 내용 덕분에 좀 더 수월하게 준

비할 수 있었습니다.

경영학에 대한 관심과 마케팅에 대한 흥미로 경영학부를 다전공하게 되었지만, 김준현 교수님의 [회계원리]를 수강하면서 회계에도 많은 관심이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회계관리 1급과 재정관리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계의 기초를 쌓고 싶거나 회계에 진심이 되고 싶으신 분들께 김준현 교수님의 [회계원리] 강의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데이터의 바다에서, 정보를 찾다.

휴먼지능정보공학전공 22학번 **문채린**

1. 강의 소개

사물 인터넷, SNS 등 여러 곳에서 방대한 데이터가 빠른 속도로 생성되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나타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기술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술 중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 즉 마이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런 마이닝을 이해하고 직접 활용해보는 배주화 교수님의 <데이터 모델링과 마이닝> 수업을 우수강의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데이터 모델링과 마이닝> 수업은 실제 사회의 업무를 사전에 분석하여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방법과 모인 데이터로부터 사후에 새로운 지식을 발굴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소양을 기르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강의의 1장에선 빅데이터와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이론 내용을 다뤘습니다. 2장에선 파이썬 기초와 데이터 분석에 대한 이론 내용, 3장은 넘파이와 판다스에 대한 이론과 실습, 4장은 시각화, 5장은 데이터마이닝 프로세스의 개요와 선형 회귀 모델의 이론과 실습, 6장은 차원 축소, 7장은 예측 성능 평가, 8장은 다중 선형 회귀의 이론과 실습, 9장은 분류 모델과 의사 결정 트리 실습, 10장은 인공 신경망 이론 및 실습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시험과 기말시험은 직접 프로그래밍하여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기말시험 전에는 팀 프로젝트로 직접 데이터부터 선정하고 해당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 해내는 과제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16주 동안 데이터에 대한 이론, 분석 및 마이닝에 대한 이론과 실습을 배우면서 데이터 마이닝을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소양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2. 추천 이유, 교수님의 특별한 수업 방법

데이터 분할

- 모델의 성능이 좋은 경우
 - 선택한 모델의 우수성
 - 선택한 모델이 현재 사용한 데이터에 (우연히) 잘 맞춤 → 심각한 문제 초래
-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로 나누어 모델 검증
 - 학습(훈련, Training) 데이터: 모델 구축 시 사용. 여러 모델을 비교할 경우 동일한 학습 데이터를 사용
 - 검증(Validation) 데이터: 학습 데이터로부터 구축된 여러 모델의 성능을 비교할 때 사용. 몇몇 알고리즘 (의사결정 트리, k-최근접 이웃)에서는 검증 데이터를 이용해 모델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결정하기도 함.
 - 테스트(평가, 시험, Testing) 데이터: 구축된 모델이 향후 수집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 얼마만큼 예측/분류 성능을 보일지 평가할 때 쓰임.

데이터 분할

- 판다스를 활용한 데이터 분할 (train-validation:test=50:30:20)

```

1 # randomly sample 50% of the row IDs for training
2 trainData = housing_df.sample(frac=0.5, random_state=1)
3 # sample 30% of the row IDs into the validation set, drawing only from records
4 # not already in the training set: 50% of 50% is 25%
5 validData = housing_df.drop(trainData.index).sample(frac=0.6, random_state=1)
6 # the remaining 20% rows serve as test
7 testData = housing_df.drop(trainData.index).drop(validData.index)
    
```

- 사이킷런을 활용한 데이터 분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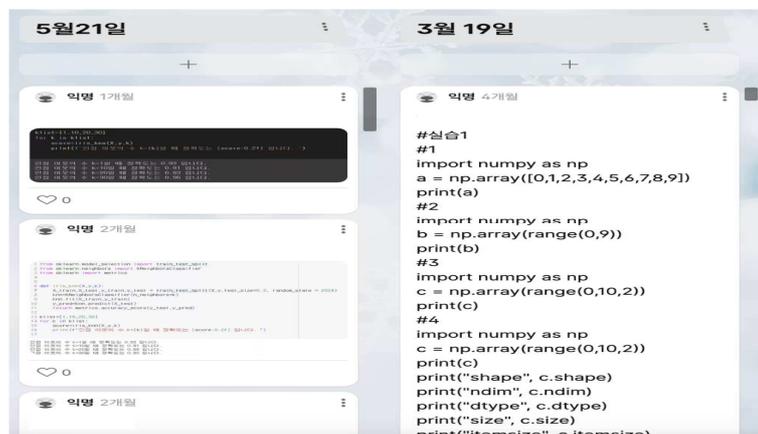
14 # alternative way using sklearn
15 trainData, temp = train_test_split(housing_df, test_size=0.6, random_state=1)
16 validData, testData = train_test_split(temp, test_size=0.4, random_state=1)
17 print('Training : ', trainData.shape)
18 print('Validation : ', validData.shape)
19 print('Test : ', testData.shape)

Training : (250, 15)
Validation : (178, 15)
Test : (1180, 15)
    
```

강의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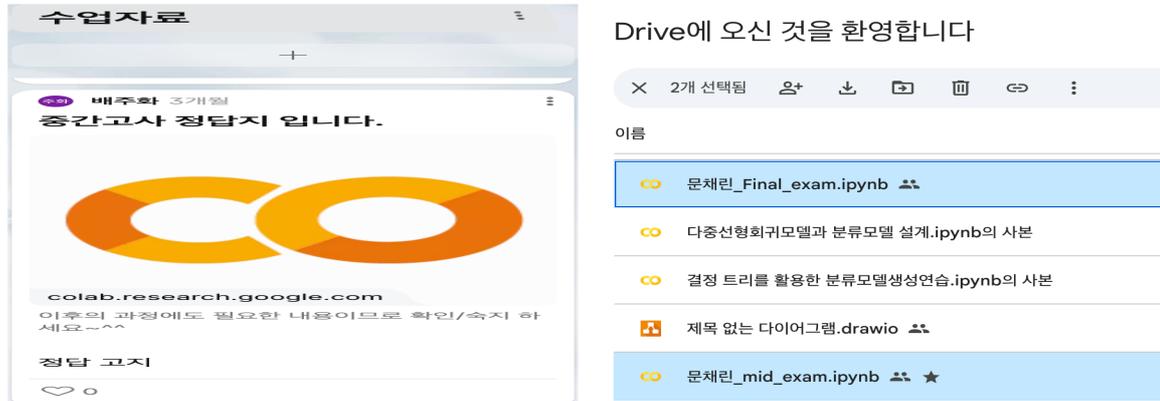
위 사진은 해당 강의의 수업 자료 중 일부입니다. 왼쪽 사진처럼 먼저 실습에 관련된 이론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 후 오른쪽 사진처럼 제시된 코드를 직접 작성해 보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여기까진 평범한 수업 진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배주화 교수님의 <데이터모델링과 마이닝> 수업의 특별한 점은 중간 점검으로 아래 사진처럼 수강생들이 직접 작성한 코드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자신이 작성한 코드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Padlet 내 코드 공유

이렇게 해당 수업은 코드 공유가 쉬운 Google의 Colab과 온라인으로 협업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게시판 플랫폼 Padlet 사이트를 통해 수강생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함께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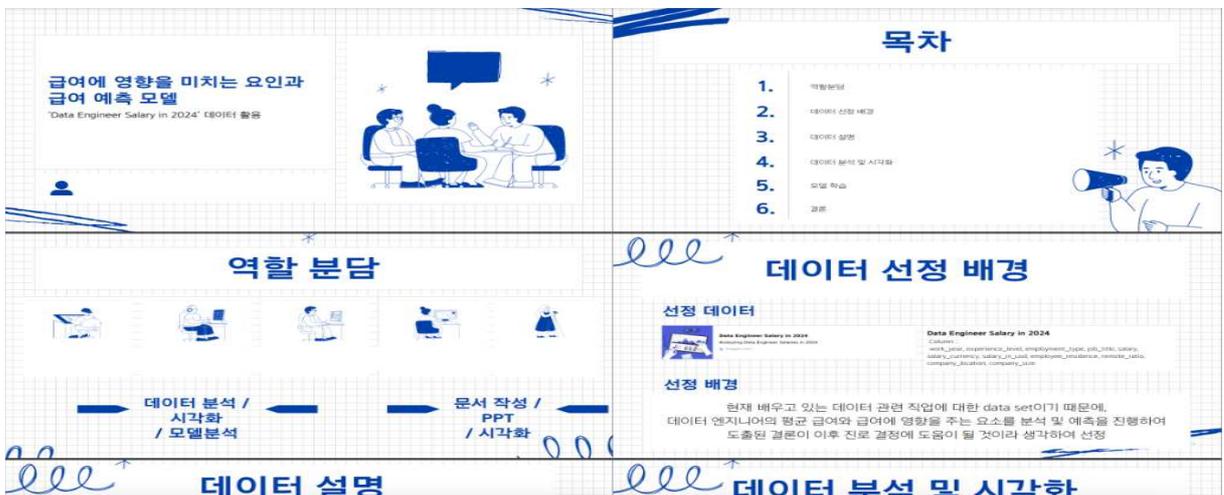


중간고사 정답 확인

시험 정답 또한 왼쪽 사진처럼 Padlet에 파일을 올려주셨고, 자신의 답안은 컴퓨터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어 정답과 비교하기가 쉬웠습니다. 이를 통해 점수를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업 내용 특성상 모든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기말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중간 고사 범위까지 완벽하게 이해해야 했습니다. 덕분에 한 학기 동안 배운 내용을 기말고사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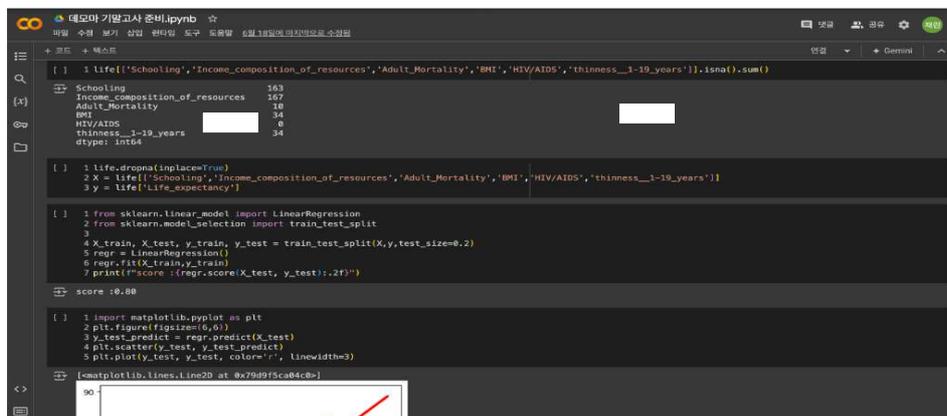
3. 강의를 수강한 소감



팀 프로젝트 PPT

해당 강의를 수강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팀 프로젝트 과제입니다. 수업에서는 교수님께서 데이터를 제공해 주시고 그 데이터 안에서 분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분석 방법에 대한 지식을 얻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각 팀은 주제를 선정하고, Kaggle이나 Dacon에서 직접 데이터를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선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제에 맞는 정보를 추출하고 시각화하여 해당 정보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과정을 PPT로 정리하면서 많은 성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배주화 교수님은 이번 학기에 상명대학교에 처음 오셨기에 시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준비하는 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험 방식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실습 내용을 완벽히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말고사 준비 파일

위 사진처럼 먼저 주차별 키워드로 목차를 만들어 시각적으로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각 주차에서 다루었던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습을 다시 한 번 코딩해 보면서 준비했습니다.

시험에서는 이론적인 내용도 1문제 이상 출제되기 때문에 아래 사진처럼 이론적인 내용을 손으로 직접 정리하면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왕복 5시간 통학러의 ChatGPT 활용 지하철 학습법

컴퓨터과학전공 21학번 이다원

0. 목차

1. 무엇을 소개 하나요?
2. 소리로 공부해요! 나만의 오디오 강의 만들기
3. AI를 활용하여 나만의 기출 문제 만들어서 풀기
4. AI를 활용하여 마인드맵 만들기
5. 마무리

1. 무엇을 소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집에서 학교까지 약 5시간이 걸리는 통학러입니다. 하루의 20%를 지하철과 버스에서 보내다 보니,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동 시간 동안 강의 내용을 부담 없이 학습하며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 ChatGPT와 ChatGPT 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 방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 소리로 공부해요! 나만의 오디오 강의 만들기

- 지하철은 소란스럽고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 책을 보거나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하지만 학습자료가 오디오 강의로 제공된다면 이동 중에도 이어폰을 통해 청각적으로 자연스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 ChatGPT를 활용하여 PDF 학습 자료를 오디오 강의로 전환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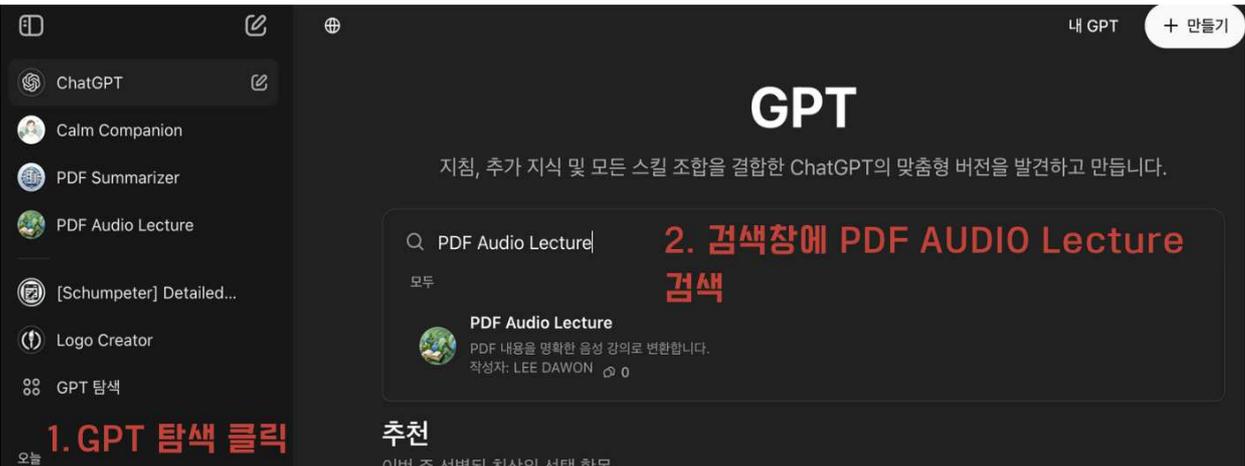


STEP 1 : 학습자료 준비

- 먼저 학습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PDF, 워드, 텍스트 등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에서는 PDF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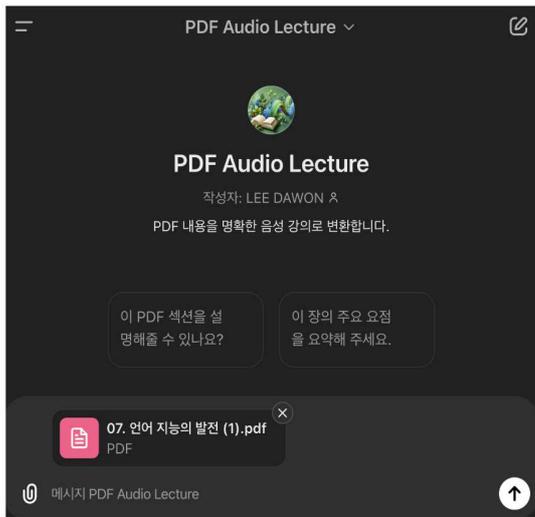
STEP 2 : GPT 스토어에서 'PDF Audio Lecture' 검색

- ChatGPT에 접속 후, GPT 스토어에서 'PDF Audio Lecture' 검색합니다.
- GPT 스토어란 ChatGPT가 만든 앱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 'PDF Audio Lecture'는 제(저자)가 제작한 앱이며 PDF를 입력하면 PDF 내용을 분석하여 오디오 강의에 맞는 형태로 텍스트가 출력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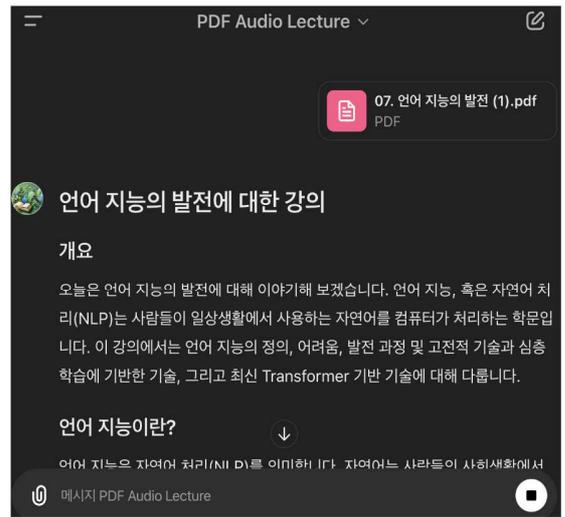


STEP 3 : PDF 파일을 오디오 강의용 텍스트로 변환

- GPT-4는 프롬프트 창에 PDF 파일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PDF 파일을 간단히 첨부하고, 별도의 프롬프트 없이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오디오 강의에 맞는 텍스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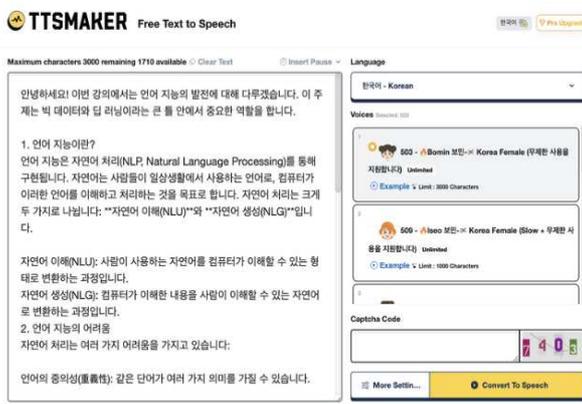
1. PDF를 프롬프트 창에 입력 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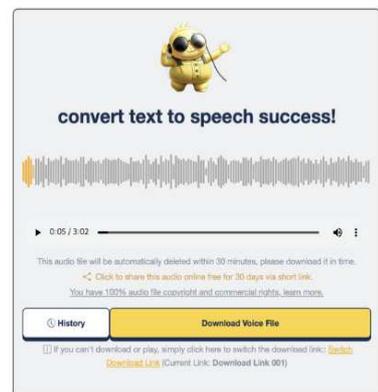
2. 오디오강의를 위한 텍스트 생성

STEP 4 : 텍스트를 오디오 파일로 변환

- 'ttsmaker.com'에 접속합니다.
- ttsmaker는 텍스트를 오디오 형태로 전환해 주는 무료 사이트입니다.
- 챗지피티가 입력된 텍스트를 자연스러운 음성으로 변환하여 오디오 파일로 생성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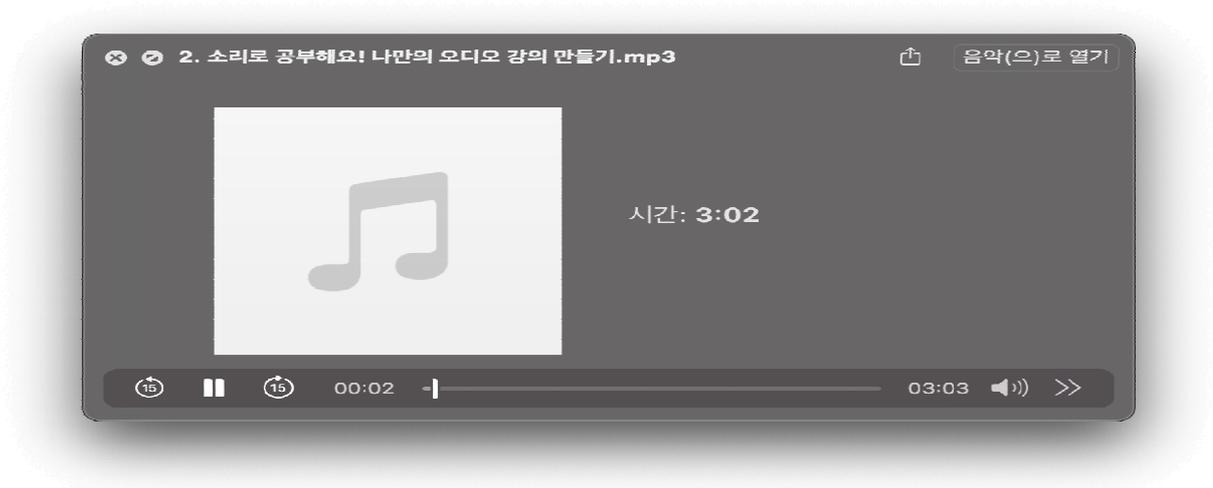
1. 변환된 텍스트를 왼쪽 창에 입력 후 Convert 버튼 클릭



2. 오디오 생성 완료

STEP 5 : 오디오 강의 파일을 통해 청각으로 공부하기

- 60페이지 분량의 PDF 파일을 3분 길이의 오디오 강의 파일로 변환하였습니다.
- 생성된 오디오 파일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이동 중이나 여유 시간에 청취 합니다.
- 오디오 파일을 반복해서 들으며 학습 내용을 강화 합니다.



3. AI를 활용하여 나만의 기출 문제 만들어 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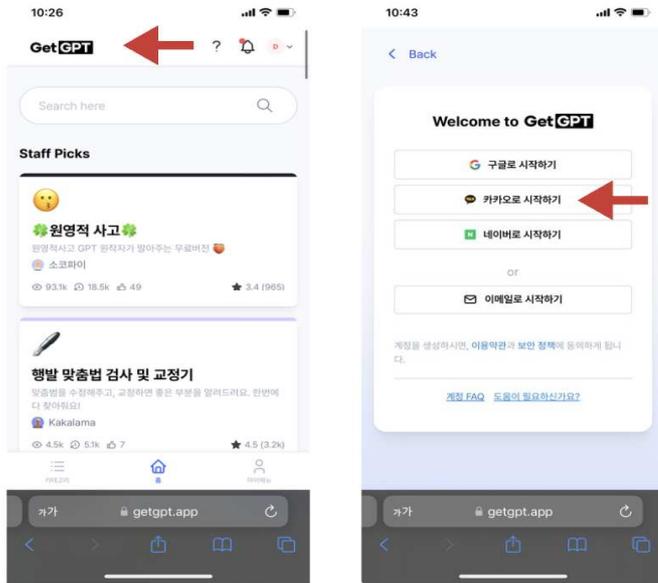
- 대학교에서는 중고등학교와 달리 별도의 문제집이 없어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아웃풋 수단이 필요합니다.
- GetGPT라는 ChatGPT를 기반 서비스를 활용하면, 수업 자료를 쉽게 문제로 변환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직접 문제를 풀어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STEP 1 : 학습자료 준비

- 먼저 학습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PDF, 워드, 텍스트 등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에서는 PDF를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STEP 2 : GetGPT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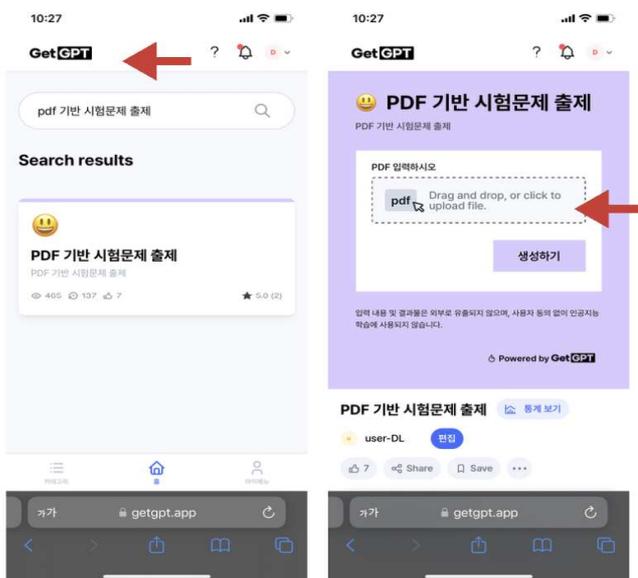
- GetGPT는 코딩 지식이 없어도 쉽게 AI 언어 모델을 연결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 모바일에서 GetGPT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정을 생성하거나 로그인합니다.
- 모바일과 컴퓨터 둘 다 가능하지만, 지하철 학습용을 기준으로 하여 모바일로 접속합니다.



1. 모바일로 GetGPT 접속
2.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

STEP 3 : 'PDF 기반 시험문제 출제'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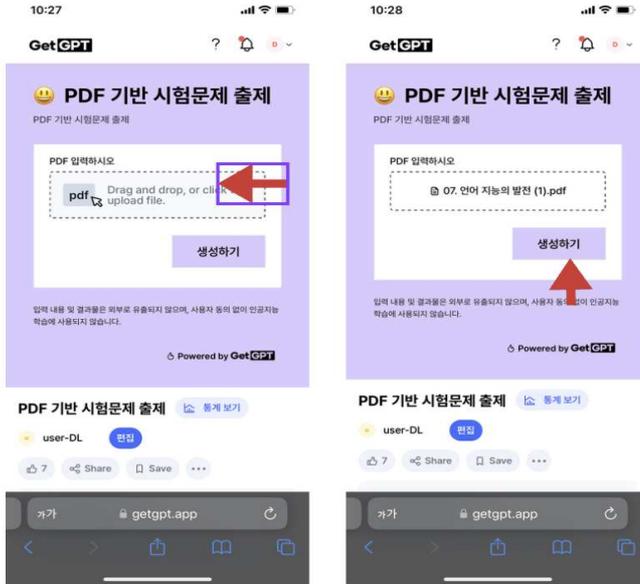
- 검색 창에 'PDF 기반 시험문제 출제'를 검색합니다.
- 'PDF 기반 시험문제 출제'는 PDF 파일을 분석하여 관련 문제를 출제하고 해설을 제공 합니다.
- 'PDF 기반 시험문제 출제' 또한 GetGPT를 이용하여 제(저자)가 제작한 앱으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습니다.
- 'PDF 기반 시험문제 출제' 앱은 1학기 기말고사 기간에 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137회 이용되었고 별점이 5점으로 사용자에게 반응이 좋은 앱입니다.



1. 'PDF 기반 시험문제 출제' 검색
2. 클릭 후 접속!

STEP 4 : PDF를 입력하여 문제 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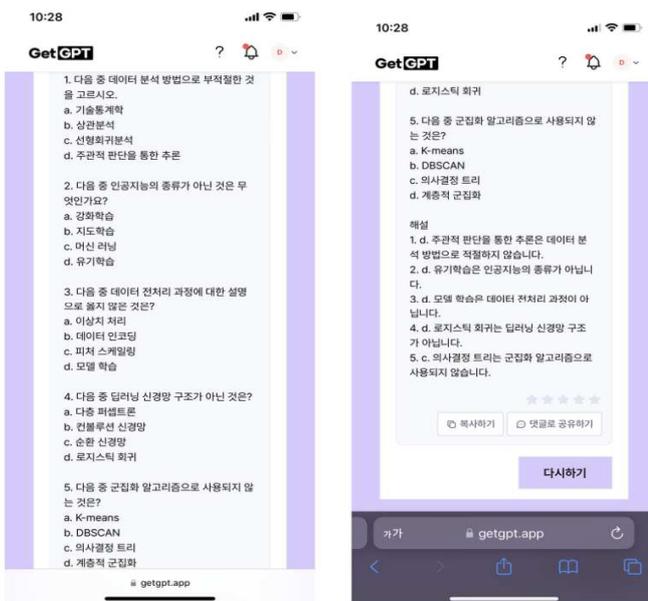
- 학습 자료 PDF 파일을 GetGPT에 업로드하고 문제 생성을 실행합니다.
- GetGPT가 문제와 해설을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1. 클릭하여 PDF 파일을 첨부 합니다.
2. 생성하기 버튼을 눌러서 문제를 생성 합니다.

STEP 5 : 문제 출력 결과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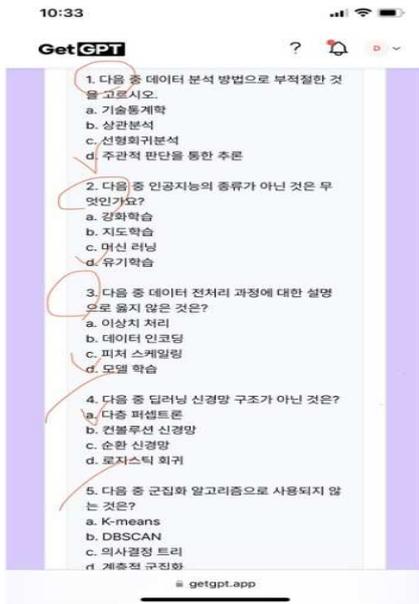
- '생성' 버튼을 누르면 문제와 해설이 포함된 결과물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문제와 해설이 생성된 결과물

STEP 6 : 활용하기

- 핸드폰으로 캡처 후, 드로잉 기능을 활용하여 간단히 문제를 풀고 채점할 수 있습니다.



- 핸드폰으로 캡처 후 드로잉 기능으로 문제를 풀고 채점 하기

4. AI를 활용한 수업 자료 다이어그램 시각화

- 대학의 수업 자료는 방대하고 양이 많습니다.
- 이렇게 복잡하고 방대한 개념을 시각적으로 정리하면 이해가 빠르고 기억하기 쉬워집니다.
- Excalidraw의 AI 기능을 활용하면 텍스트를 다이어그램으로 빠르게 변환하고, 개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기억력을 향상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STEP 1 : 학습 자료 준비

- 먼저 학습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PDF, 워드, 텍스트 등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에서는 PDF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STEP 2 : 텍스트로 변환 (PDF to Text)

- 'PDF to Text' 사이트 접속 후, PDF 파일을 텍스트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 'PDF to Text'는 PDF를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무료 사이트입니다.

PDF to Tex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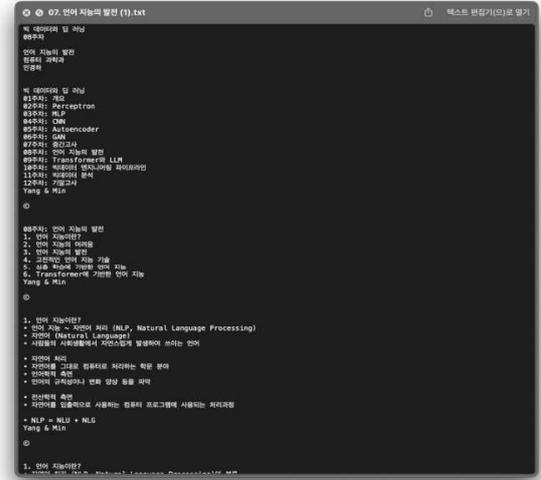
한국어

온라인 PDF TO TEXT 변환 프로그램으로 PDF 파일의 텍스트 데이터를 다른 소프트웨어 설치 없이 무료로 쉽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 1 "파일 업로드"버튼을 클릭한 후 변환하고자하는 최대 20개 PDF파일을 선택하세요. 변환 프로세스가 끝날때까지 잠시 기다리세요.
- 2 각 파일마다 산출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또는 "모두 다운로드"를 클릭해 모든 파일을 한 번에 ZIP파일로 압축해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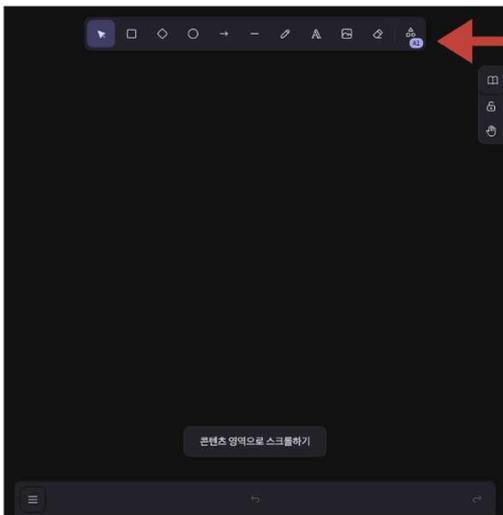
1. 해당 사이트로 PDF를 Text로 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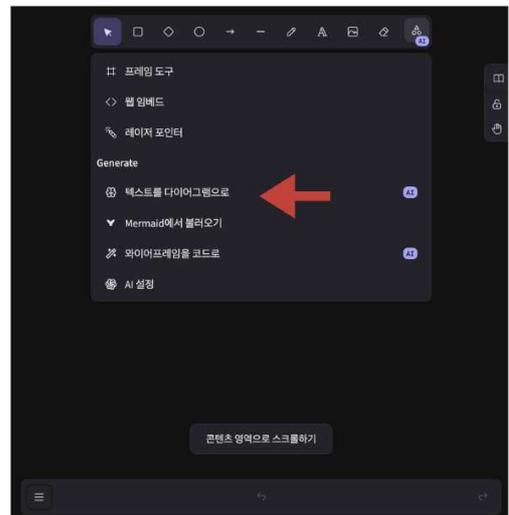
2. 무료로 텍스트로 변환

STEP 3 : Excalidraw 접속하여 AI 기능 사용

- Excalidraw는 다이어그램과 워크 플로우 등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툴 사이트입니다.
- Excalidraw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텍스트 자료를 입력합니다.
- Excalidraw의 AI 기능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마인드맵으로 변환합니다.



1. AI 버튼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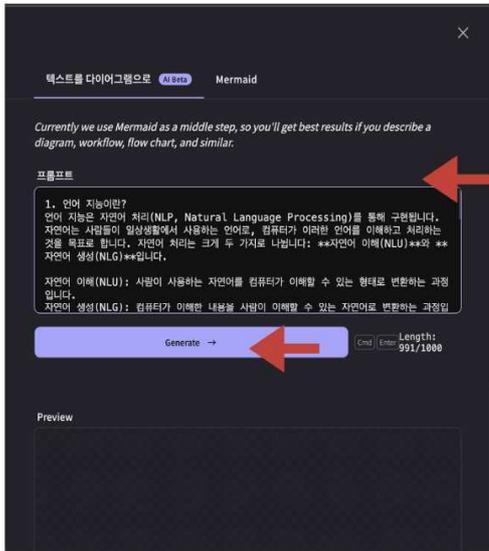


2. 텍스트를 다이어그램으로 변환 기능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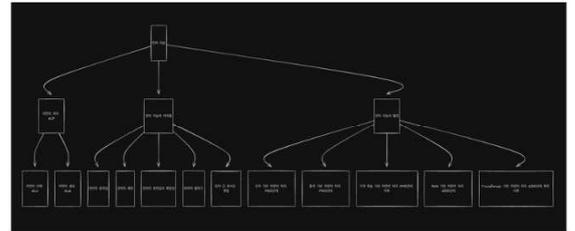
STEP 4 : AI 기능을 사용한 다이어그램 생성

- AI 기능을 사용하여 변환된 텍스트를 프롬프트 내용에 입력하면, 손쉽게 다이어그램으로 변환합니다.

- 텍스트 내용이 많을 경우, ChatGPT를 활용하여 요약한 후 입력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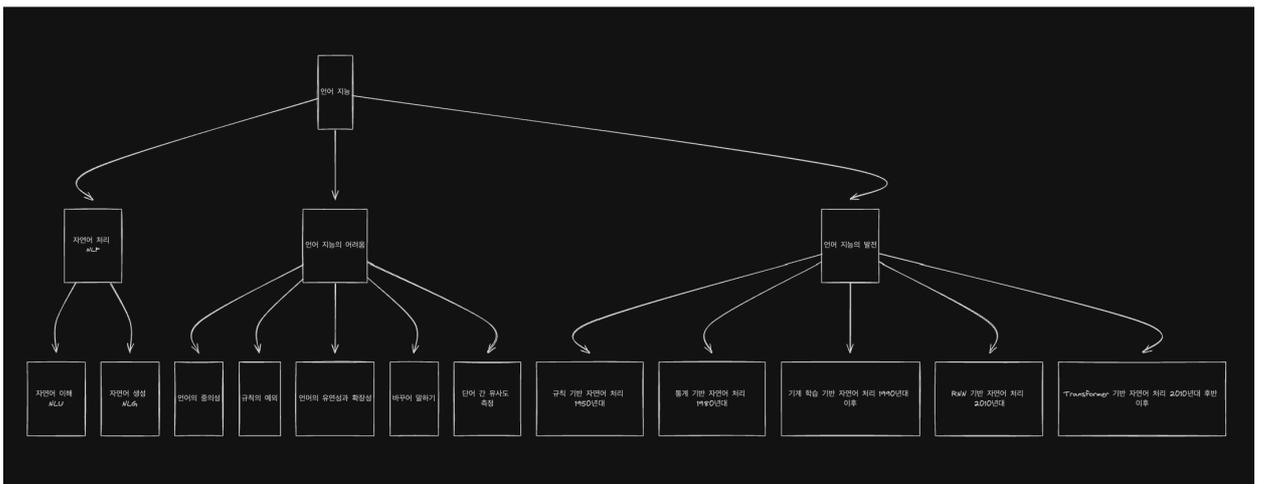
1. 프롬프트 입력 후 생성 버튼 클릭



2. 자동으로 다이어그램 생성

STEP 5 : 결과물로 구조를 이해하고 학습하기

- 생성된 마인드맵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합니다.
- 시각적으로 정리된 마인드맵을 통해 학습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5. 마무리

ChatGPT 또는 ChatGPT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통해 지하철과 같은 제한된 환경에서도 유익한 시간을 보내거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오디오 강의를 통해 이동 중에도 학습을 지속할 수 있고, 생성된 문제를 통해 실전 대비를 강화할 수 있으며, 마인드맵을 통해 복잡한 개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습 효율을 극대화하고, 통학 시간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학우 여러분께도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학습 전략도 나에게 맞는 옷을 입자

공간환경학부 21학번 **이유민**

1. 서론

4학년 1학기를 앞둔 현재, 6개의 학기를 거치며 전체 평점 평균 4점대를 유지할 수 있었던 학습 전략을 공유하고자 한다. 2023년 2개의 학기 동안 글에서 소개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학습했었는데 이로 인해 4점대인 직전 학점들에 비해 낮아진 3점대의 학점을 받았다. 이를 통해 문제를 느끼고 이번 학기에 원래의 루틴과 방법으로 학습하여 다시 4점대의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해당 글에서 소개하는 방법이 학습 능률이 반드시 높인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본인만의 학습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방향성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 본론

본격적인 나만의 학습전략 서술에 앞서 평점 평균에 대한 증빙을 첨부한다.

No	학년도	학기	신청학점	취득학점	평점계	평점평균
1	2024	1학기	12	12	51.00	4.25
2	2023	2학기	18	18	67.50	3.75
3	2023	1학기	17	17	64.00	3.76
4	2022	1학기	17	19	75.00	4.41
5	2021	2학기	17	20	71.00	4.17
6	2021	1학기	17	18	71.50	4.20

장학수혜목록

No	학년도	학기	장학구분	대가구분	장학금교도	장학금명
2	2022	2학기	교내	학비감면	10180	면학 A
3	2021	2학기	교내	학비감면	10180	면학 A

1. 수업에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학습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연 수업에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는 것이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학습에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기에 학습 전략으로 소개하기에는 시원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기본 원칙만큼 중요한 게 없으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건강과 공간환경 1주

건강, 질병, 장소, 사회적 측면의 상관성

· 건강, 질병, 장소의 학문적 측면의 상관성

· **생활의 환경? 사회적, 경제적, 공공의료적, 발달적 측면에서 고려 가능**

· **생활은 쾌락적 측면과 행복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음**

· **쾌락적 측면은 기쁨과 행복의 척도와 관련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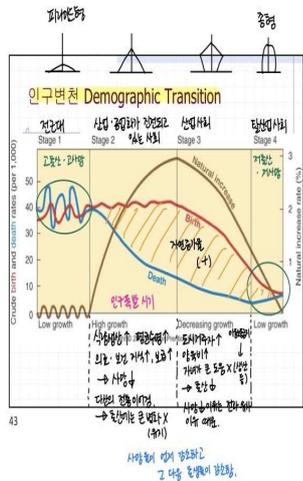
· **이에 반해 행복적 측면은 인간의 다양한 기능이 잘 발휘되는 것을 뜻함 / 삶의 만족**

· 또한 웰빙은 **직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음**

· **직관적인 것: 사회경제적 / 인구 데이터 등으로 측정 가능 / 개인으로 하는 정보도 가능 (예: 비만도)**

· **주관적인 것: 정서적 혹은 감정적인 것 (예: 결혼생활의 만족도)**

· **유전적인 것 혹은 행동적 요소, 그리고 사회 및 환경적 요인도 관련이 있음**



III. 문화의 역할과 특성

1. 문화의 역할

1) 사회질서의 수립과 유지(질서로서의 문화)

·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기 위해 질서가 필요

· 사회질서는 문학적 공중에서 성립되고 유지됨 / 제도, 조약

→ 따라서 문화는 사회질서 성립과 유지의 역할을 수행

2) 사회구성원의 정체성 형성, 삶에 의미를 부여(가치와 의미로서의 문화)

· 각 사회는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행동규범을 제정

· 사회적 가치와 의미, 행동규범은 구성원의 정체성 형성과 유지에 영향

→ 따라서 문화는 구성원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

3) 이상적 지향으로서의 문화

·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상적 지향을 내포

특히 적극적인 자세 중 하나로 필기를 열심히 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수님께서 주신 수업 자료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도 있을 수 있으며, 학습 내용을 더 유연하게 이

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필기 내용이 연결고리와 보완의 역할을 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필기 이외에도 교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강의 내용에서 이해가 잘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쉬는 시간이나 수업 후 교수님께 질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영부영 넘어가면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얻거나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 색깔에 변주를 주어 모든 문장에 형광펜 칠하기

나의 경우, 강의 교안에 있는 모든 문장과 단어에 형광펜을 칠한다. 모든 문장에 형광펜을 칠하면 중요한 내용들을 구별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 문장에만 형광펜을 칠하는 경우 그 문장 혹은 내용만 선택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자연스럽게 놓치게 될 수 있다.

그렇기에 나는 모든 문장에 형광펜을 칠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같은 색의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이나 주제, 주요 문장, 세부 문장 등으로 나누어 내가 임의로 정한 각기 다른 색으로 형광펜을 칠하는 것이 포인트가 된다.

2. 저출산의 파급효과

[사회적 측면]

1. 가족 및 개인에 영향을 미친다. 예, 중국의 4-2-1 사회
2. 학령인구의 감소를 통해 교육분야에도 변화를 가져온다.
3.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따른 인종/민족적 다양성 증가
4. 세대 간 갈등 (노년층 인구 비율로 정치적 보수화가 진행되는 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국방 등의 부담은 생산가능인구인 청장년층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
5. 다민족사회의 경우 민족간 정치 변동 (이스라엘 vs. 팔레스타인)

[지리적 함의]

저출산은 기존의 지역불균등 발전 패턴에 의해 그 악영향이 증폭되어 지역간 격차를 더욱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 → 젊은층 유입 ↓

1장. 물질의 성질은 원자의 배열에 의해 결정된다

1. 화학적 진화

오퍼린(Oparin, 1894-1980), 러시아 생화학자

오퍼린의 가설

원시대기에서 화학반응 결과로 생성된 유기물로부터 생명이 시작.

→ 원시 지구의 대기는 수소, 메탄, 암모니아, 수증기와 같은 환원성 대기 상태. 대기에는 오존층이 없어 태양의 자외선이 그대로 지표로 도달. 속지와 바다의 여기저기 화산폭발 일어난다. 에너지가 공급되어 아미노산과 그 밖의 유기물들이 생성. 축적되었던 유기물 분자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큰 복합체가 될 (유기물복합체 → 원시세포).

건강과 공간환경 5주

공공의료와 건강의 불평등

- 공공의료의 역사적 발전과 건강지리학

특히, 그리스인과 로마의 대표적 인물은 고대 의학의 아버지인 히포크라테스의 아이디아임. 공기를 장소에 관하여(De aere, aquis, locis)에서 찾아볼 수 있음

1. 기후와 풍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사람의 체질이나 체형, 사상이 도덕적 문명과 성격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
2.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운 지역에 사는 인종보다 더 유감하다는 것. 항상 같은 기후에 사는 게으름이 생겨나고, 온화 많은 기후에서는 몸과 마음이 시련을 견뎌낸다.
3. 히포크라테스는 인체를 구성하는 체액(humor)에 기후와 풍토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
4. 네 가지 체액의 혼합(Krasis: temperamentum)이 조화를 이루면 건강하고, 소화가 제대로 행이 생김. 그리고 특정한 신체적 특징과 정신적 특성은 각 체액의 혼합으로 형성되며, 12가지 질병
5. 지리적 조건과 기후적 조건이 인종의 결모습과 기질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
6. 히포크라테스에게도 적합함 이런 공 주장

위의 사진을 참고하면 이해가 조금 더 수월할 것이다. 주요 문장은 노란색, 세부 문장은 주황색, 더 세부적인 문장은 하늘색으로 칠한다. 경험상 이렇게 부분을 나누어서 모든 문장에 형광펜을 칠했을 때 그냥 넘어가려 했던 부분도 형광펜으로 표시되어 있기에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면서 하나의 문장이나 단어라도 흘려보내지 않게 되어 꼼꼼하고 세세한 학습이 가능해진다.

3. 수업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학습하기

수업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학습하는 방법은 정말 많은 도움을 준 학습 습관이다. 대학생 때는 자격증 공부 등이 겹쳐 상대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데, 중고등학교 때 다회 독 학습을 해왔던 나에게는 짧게 잡은 시험 기간에 학습을 완벽하게 끝내는 것이 촉박하게 느껴졌고 결국 끝까지 마치지 못하고 시험을 보는 일도 생겼다.

이에 다른 공부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는데 과거 말하면서 하는 공부의 효율성이 매우 높다는 이야기를 봤던 것이 문득 생각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기간부터는 학습할 때 다른 사람에게 수업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학습했고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이 방법의 장점은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1회 독만 해도 많은 내용이 기억에 남고 2회 독을 하면 거의 모든 내용을 숙지할 수 있다. 그만큼 공부를 한 번 할 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매우 큰 장점이 있다.

4. 하루의 학습 목표치를 챗터 단위로 정하기

하루의 학습 목표치를 'PPT 자료 1개 끝내기'와 같은 구체적인 챗터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학습 동기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유는 학습 양에 대한 목표가 없이 무작정 공부를 하게 되면 끝나지 않는 공부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 단위로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면 공부의 내용이 중간에 끊기면 전에 공부했던 내용들이 기억이 나지 않아 다시 봐야 하거나 흐름이 끊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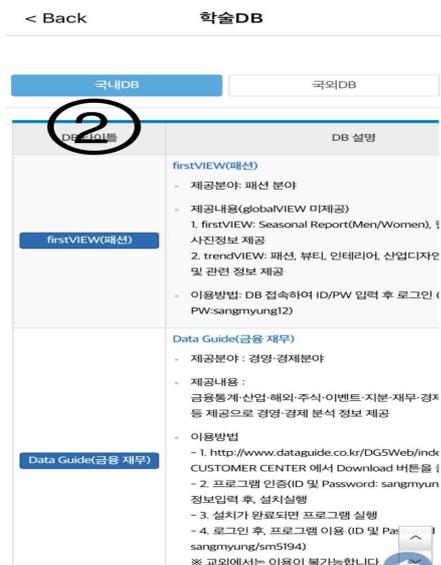
이와 달리 위의 참고 사진처럼 하루 목표치를 슬라이드나 챗터 단위 정해놓으면 끝이 있는 목표가 있기에 동기 부여도 되고 중간에 흐름이 끊기는 경우도 생기지 않는다. 또한, 날짜 별로 목표치를 정해서 하면 학습을 끝내지 못하거나 밀리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다.

5. 참고 문헌이나 도서 참고하기

학습 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문헌이나 도서를 이용해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험담으로, 본 전공 중 하나인 <도시재생과 지역개발>을 수강하였을 때 일본 도시재생 사례에 관한 내용을 배우던 중 추가 사례가 궁금하여 학술정보관에 있는 도서 '도시재생과 경관 만들기' 책을 빌려 읽었다. 덕분에 강의 자료 내용을 보강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고 도시재생 사례를 서술하는 과제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교내 학술정보관에 도움이 될 만한 서적들이 많으니 학술정보관을 이용하여 참고 문헌과 도서를 활용한다면 학습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도서뿐만 아니라 DBpia, Kiss 등의 학술지도 참고하면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고 흐름 있는 내용을 얻을 수 있다. 이 또한 학술정보관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6. 스트레스 관리하기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트레스 관리이다.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슬럼프로 연결되는 경우도 잦다. 나도 시험 기간 마다 받는 상당한 스트레스로 슬럼프를 겪은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좋은 성취를 얻는 데에 걸림돌이 되고 몸과 마음이 병들게 되어 악영향을 준다.

때문에, 학습에 쫓기는 순간에도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취미 활동을 하는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

3. 결론

학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거니와 나만의 학습 전략 찾기도 매우 중요하다. 학습의 질과 효율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결과도 더 향상되어 공부에 자연스레 열의를 갖는 등 여러 방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도 나에게 맞는 학습 방법으로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얻으니 학업에 자신감이 생기고 자격증 같은 학습 활동이 필요한 것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선순환을 경험하게 되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꾸준히 노력하고 성취를 위해 나아가면 결국 원하는 목표에 닿을 수 있을 것이니 실패나 좌절을 겪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길을 찾아간다면 그 끝엔 스스로가 바라던 것이 되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작은 무대로 무섭게 성장하는 방법

식품영양학전공 21학번 이지연

[서론]

많은 것을 경험하고 나에게 맞는 일을 하고 싶어 사회에서 대학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보다 저는 어쩌면 간절함이 더 클 수도 있고 특성화고를 나왔기 때문에 열등감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절함'과 '열등감' 같은 감정은 나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모두가 가질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세상의 이치상 우리는 어떤 이보단 잘할 것이고, 어떤 이보단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타인보다 월등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나여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종 빨리 무언가를 해 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은 자신을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몰아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저는 뇌종양이라는 큰 수술로 일찍 삶의 유한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성공하기보다 성공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내리고 반드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실을 살다 보면 타인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어느덧 정신을 차려보면 나의 색은 흐려지고, 원치 않는 길에 들어섰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항상 이 도돌이표 같은 상황에 한심함도 느꼈지만 지금은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이며 다른 길로 들어 섰다고 판단되면 조금 멈춰서서 생각하고 이조차 인생의 자양분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 4년간의 대학 생활이 바로 그 헤맴의 과정으로, 도전의 공간이자 약점 보완의 기회로서 작용하였고 다양한 활동으로 더 단단해지고 저다움을 찾을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론]

1) 과거의 나 되돌아보기

과거에 저는 주어진 상황에 불만을 품고 한탄하던 어린아이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갑자기 뇌종양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며, 저는 행복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았고, 무엇보다 진취적인 성향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꿈'을 찾기란 쉽지 않고, 이루기는 더 어려웠습니다. 고등학교 때,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한 파티세의 열정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파서 인문계 고등학교 학업을 이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 시작한 요리는 최선의 선택이라기보단 대체제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빵을 진정 사랑해서 시작한 것이 아니기에, 그 열정은 체력의 한계에 금세 한풀 꺾였습니다. 여전히 베이킹을 좋아하지만,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빵을 만들던 저는 직업으로서 파티세를 하기엔 맞지 않는 사람이라 느꼈습니다. 또한,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제빵사가 되어 제가 가진 잠재력을 발휘해 보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시간이 더 지나면 고등학교 졸업이라는 학력으론 자신감 있게 도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되어 더 넓은 세상에 저를 던져보기로 결심하고 상명대학교에 오게 되었습니다.

2)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무기 갖추기

: 진정한 학습은 Input이 아니라 Outp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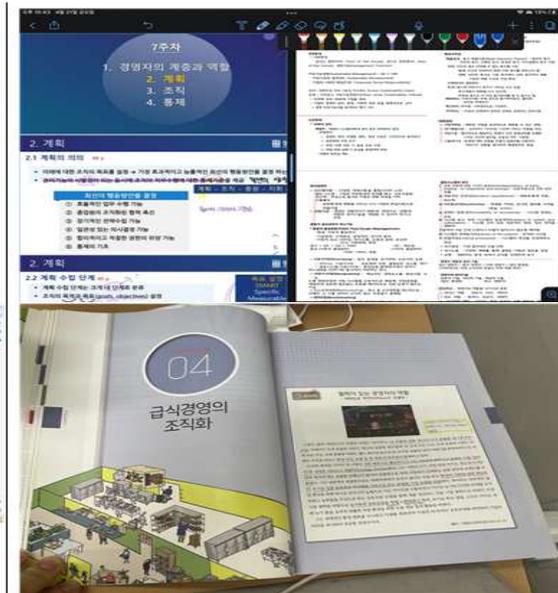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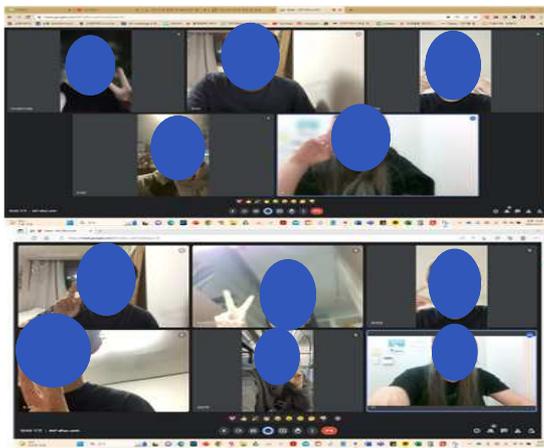
대부분의 재학생들은 학기 중에 정신을 차려보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조급함을 느끼며 공부하고, 이해보단 암기를 선택할 때도 종종 있다는 점에 공감할 것입니다. 저 또한 생활비를 벌며 학업을 병행하고 있어, 좋은 학점을 받고 싶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 무작정 암기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방법으로 좋은 학점을 받으면 귀찮고 어려운 '진정한 이해'를 위한 공부의 비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수동적이며, 쉽고 편한 방법에 안주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게으름에 안주하는 습관을 없애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부를 제대로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한 방법은 호기심 갖기, 평가받기, 가르치기, 도전하기 이 4가지였습니다. 이는 비교과 마일리지 내역을 통해 실천한 사례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4학년 1학기 현재, 제 비교과 마일리지 총 점수는 789점입니다.

마음이 생겨, '피티스타'라는 퍼스널 브랜딩 발표 연합동아리와 상명프레젠테이션대회를 참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꾸준히 평가받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자신의 실력을 자각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 가르치기

세 번째로는,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상명튜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저학년 때 이수했던 '외식산업운영 및 실습'이라는 과목을 23학번 후배들에게 다시 가르치며, 제가 이해가 부족했던 개념을 다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후배들에게는 첫 학교생활에 대해 부담 없이 질문하고, 대학 수업의 구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급식산업(Foodservice Industry)

- 외식산업 - 식당업종 특성
- 4개의 입구 - 인력, 고객, 공급, 서비스
- 단점: 인력 부족, 고객 불만, 서비스 품질 저하
- 장점: 고객 만족, 서비스 품질 향상

주요 이슈

- 외식산업 - 식당업종 특성
- 4개의 입구 - 인력, 고객, 공급, 서비스
- 단점: 인력 부족, 고객 불만, 서비스 품질 저하
- 장점: 고객 만족, 서비스 품질 향상

마이크로 레스토랑 (MRL,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 상업적외식산업
- 비영리외식산업
- 고객 만족(우리아나에는 있음)

경영

- 계획(Plan), 실행(Do), 통제(Control)
- 목표 : 계획(Plan), 실행(Do), 통제(Control)
- 목표 : 계획(Plan), 실행(Do), 통제(Control)

경영활동

- 내부환경
- 외부환경
- 고객 만족(우리아나에는 있음)

지속가능경영(Sustainable Management) - SD + CSR

- '지속가능경영(Sustainable Management) - SD + CSR'
- '지속가능경영(Sustainable Management) - SD + CSR'

국내 :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지수(KS, Korean Sustainability Index)

- 경제 : 2000년 100점, 2020년 100점
- 환경 : 2000년 100점, 2020년 100점
- 사회 : 2000년 100점, 2020년 100점
- 문화 : 2000년 100점, 2020년 100점

간트 - 노동자 입단에 초점을 둔 차별적 성과급 제도. 간트 도표

- 목표 : 고객 만족, 서비스 품질 향상
- 목표 : 고객 만족, 서비스 품질 향상

관리적 관행

- 관리적 관행 : 고객 만족, 서비스 품질 향상
- 관리적 관행 : 고객 만족, 서비스 품질 향상

관료적 관행

- 관료적 관행 : 고객 만족, 서비스 품질 향상
- 관료적 관행 : 고객 만족, 서비스 품질 향상

행동학적 관행

- 행동학적 관행 : 고객 만족, 서비스 품질 향상
- 행동학적 관행 : 고객 만족, 서비스 품질 향상

행동학적 관행

- 행동학적 관행 : 고객 만족, 서비스 품질 향상
- 행동학적 관행 : 고객 만족, 서비스 품질 향상

행동학적 관행

- 행동학적 관행 : 고객 만족, 서비스 품질 향상
- 행동학적 관행 : 고객 만족, 서비스 품질 향상

스터디상생플러스 튜터링 활동사진 및 직접 제작한 교육자료

4. 도전하기

마지막으로 ‘잘 모르니까 직접 경험해보자는 마음’으로 다양하게 도전하였습니다. 일례로, 2학년 1학기 경영학과 과목인 경영학원론과 마케팅 수업을 2개도 이수해보고 2학기에는 일반생물학 2를 수강하고 일반생물학 실험 2를 청강해보기도 했다. 건강기능식품과 식품 R&D에 관심이 생겨 관련 교수님을 찾아가 면담을 하여 ‘바이오기능성식품 연구실’에서 항산화 기능성 실험, 식품 성분 분석 등에 대해 6개월간 배웠습니다. 또한, 제가 식품영양학과에서 진로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또 함께 꿈꿀 동료가 있다면 좋을 거 같다고 생각하여 과 학생회 부원과 부학생회장으로 2년간 활동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습니다. 식품, 외식, 영양 별로 소모임을 개설하여 아워홈 김치 공장 견학, 이마트 식품 트렌드 조사, 대체육 관련 강의 등을 진행하기도 하고 논문 읽기 소모임을 통해 자신의 관심사의 논문을 리뷰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선배,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좋은 기회가 생겨 이전 제빵 경력을 살려 [2023 연천군 가공식품 기술화] 사업에서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제과·제빵 및 앙금 메뉴 개발, 시식 행사 3회, 중간발표 및 사업 결과보고서 작성 등을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3) 혼자 고민하지 말고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이용하기 : 약은 약사에게, 취업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4학년 1학기인 저는 다양한 직무 경험은 있지만, 명확한 진로 설정을 하지 못해 망설였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올해 6월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 후 느낀 점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방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취업 또는 창업 직무가 정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면 좋을 사항들과 학년별 커리어 패스 절차를 알 수 있어, 더 체계적인 준비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학교 현장실습 - 인턴 - 취업> 순으로 취업 절차가 이뤄지는 추세이므로, 저학년 때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해 직업 적성검사, 성격검사 등을 통해 진로를 충분히 탐색하고, 호기심이 드는 분야에서 비교적 경쟁률이 낮은 공기업 혹은 낮은 기수의 대외활동을 공략해 다음 단계의 대외활동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의 경우, 1학년 때 마케팅에 호기심이 생겨,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서포터즈에 지원하여 직접 취재하고 콘텐츠를 가공해 카드 뉴스를 만들어 SNS에 홍보하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2학년 때는 과 학생회 홍보부에서 다양한 홍보자료를 제작하며 경험을 쌓았고, 이를 통해 키운 카드 뉴스 제작 능력으로 3학년 때 [2024 연천군 가공식품 기술화] 사업에서 시식 행사 소책자, 라벨지, 현수막, 배너 디자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했다고 자부하지만, 빨리 진로를 설정하지 못해 준비 사항에 다소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다시 전략을 세우고 이번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고 있지만 1~2학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가장 먼저 ‘대학 일자리센터’를 찾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여기며 이 글을 보는 학우분들은 하루 빨리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더욱더 체계적

이고 여유롭게 준비하셨으면 하기는 바람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 학부생 혼자서는 우선순위가 잘 보이지 않는데 다년간 일하신 커리어 전문가분들은 사실 컨설팅 못지않은 최고의 자료와 친절하게 상담 해주시니 꼭 가보시길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결론]

바빠 살아가는 우리는 '나'라는 존재를 잘 모르고, 누군가가 바라는 혹은 이상적인 삶, 보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 또한 명확한 목표 의식이 없어 자주 넘어지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 생각에 대학은 '마음껏 실패해도 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시험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기억에 남는 것은 점수가 아니라 내가 진심을 준비했던 노력들입니다. 이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시험을 잘 보기 위한 노력이 아닌 실제 자신의 지식, 강점이 되기 위해선 실제 경험 해보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해 보는 것이 자신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도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자신이 몰랐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작은 무대에서 많이 연습해 보고 성장하는 것이 사회라는 큰 무대로 나가는 진정한 보호대가 될 것이기에, 작은 성공을 쌓아 큰 성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걱정 많은 대학생

경영학부 21학번 **강희용**

휴학을 위한 마음가짐

주변을 둘러보면 2학년이 끝나고 휴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인다. 다들 어떤 이유로 휴학을 결심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나는 '1년간 완벽한 스펙을 쌓으리라'는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1년간의 휴학을 결정했다. 그리고 올해 걱정을 한가득 안고 복학했다.

2023년 12월, 2학년 마지막 수업을 남겨두고 담당 교수님과 진로에 대한 첫 상담을 했다. 많은 학생이 교수님과 일대일로 대면하는 것, 교수님에게 자신의 얘기를 꺼내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것이다. 나 또한 '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뤄둔 것도 없고, 학점도 그저 그런 사람인데 교수님이 안 좋게 생각하시진 않을까?' 하는 생각에 상담 신청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만약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 주변 사람이 있다면, 걱정하지 말고 상담 신청하라고 말하고 있다. 교수님과 상담은 2학년 이후 나의 진로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휴학할 생각이라고 말씀드렸고, 교수님께서 2년 동안 들었던 수업 중 가장 흥미로웠던 수업을 물어보셨고 나는 몇 과목 뽑아 답했다. 교수님께서 도움이 되는 자격증들과 학교 일자리 플러스 센터를 소개해 주셨다. 1시간의 시간이 흐르고 난 앞으로의 1년을 기대하며 교수님 방에서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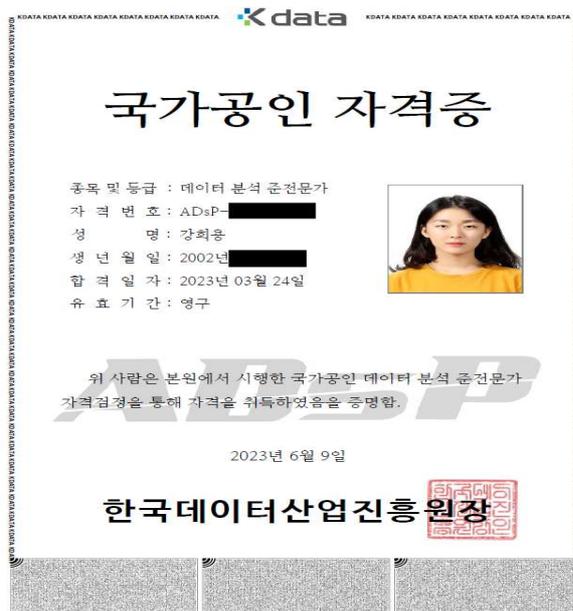
휴학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걱정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본인 소개를 하자면 전공은 '경영' 나이는 23살이다. 누군가는 문과라도 경영학부는 취업이 잘 되는 편이라고 하지만 요즘 대세는 문·이과 통합 인재 아니던가. 교수님과의 상담을 통해 추천받은 다전공은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융합 전공'이었다. 이하 줄여 '빅애' 라고, 칭하

겠다. 다들 빅데이터가 좋다며 말하지만 나는 그게 정확히 뭔지 잘 알지 못했고, 상담 후 집에 오며 유튜브에 '빅데이터'를 검색해 많은 영상을 봤다.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흥미 있는 내용을 발견해 휴학의 목표는 더욱 거창해졌다. 이를테면, 많은 분석을 통해 스펙을 쌓고,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대회 및 공모전에 나가 수상하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필요한 건 빅데이터 관련 공부였고, 이 과정에서 '자격증'을 이용했다.

휴학 후 나의 학습 전략과 활동

휴학 후 첫 활동은 '자격증' 취득이었다.

자격증 공부를 왜 하는가? 이력서에 적기 위해? 졸업 요건을 채우기 위해? 물론 다 맞는 얘기지만 난 '해당 분야를 알아보기 위해' 자격증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제은행식의 자격증이 많고, 자격증 커뮤니티를 보면 기출만 풀면 된다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난 자격증 시험을 보고 그 내용을 잊어버린다면 자격증을 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빅데이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들어봤을 법한 ADsP(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자격증을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공부했다. 2~3주면 비전공자도 쉽게 따는 데이터 분야 자격증이라고 알려졌지만, 기출만 푸는 꼼수 식 공부는 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6주 이상의 시간을 잡고 자격증 책의 개념을 처음부터 정독하고, 정리하고, 영상 플랫폼에서 모르는 부분은 무료 강의를 찾아 보았다. 자격증 공부의 TIP을 물어본다면 '오픈채팅'에 들어가라고 말해주고 싶다. 익명으로 내가 모르는 개념을 물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친절하게 답해주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자격증 예시를 ADsP로 들었지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자격증을 준비한다면 '해당 분야를 알아간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라고 말하고 싶다.



휴학 시절 두 번째로 한 활동은 ‘여행’이다.

4월 중반부터 6월 말까지 캐나다로 혼자 여행을 떠났다. 영어를 싫어해서 해외로 갔다. 모순적인 말이지만, 싫어한다고 언제까지나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부딪혀 보자!는 마음으로 떠났다. 처음 묵을 예비 숙소는 2주간 4~6인실 도미토리를 잡아 외국인과의 생활을 익숙하게 만들고, 서로 SNS를 팔로우하며 친목도 쌓았다. 일본, 중국, 멕시코, 프랑스, 호주, 세르비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을 만났고 나보다 오래 캐나다에 있던 친구들에게 관광 안내도 받으며 적응했다. 영어를 못했던 내가 가장 많이 말했던 문장은 ‘I am not good at English’였다. 영어를 잘 못한다고 말하니 다들 천천히 쉬운 단어를 사용해 주었고, 내가 버벅거릴 때면 천천히 말해도 된다고 나를 기다려 주었다. 예비 숙소에서 묵으며 내가 할 일은 ‘집 구하기’였다. 한국에서도 방 한 번 본 적 없는 나는 사기를 당할까 두려웠지만, 한인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직*같은 캐나다의 방을 구하기 사이트(Craigslist/Kijiji)를 이용해 집을 구하려 다녔다.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갔기에 내 룸메는 무조건 한국인이 아니어야 했다. 10개가 넘는 숙소 탐방 끝에 2달간 묵을 방도 구했고, 도미토리에서 사귀 친구들과 2달간의 캐나다 생활 동안 많은 시간을 보냈다. 식사 약속을 잡고, 카페도 가고 여행도 가다보니 영어에 대한 거부감이 줄었고, 한국 와서도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다. 여행이 나만의 학습 전략과 무슨 상관이나 할 수도 있지만 ‘어렵다, 모르겠다’란 이유로 피하지 않고 일단 해보자는 용기를 생기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는 이후의 내 삶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 경험’이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공모전, 서포터즈 등 스스로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홈페이지, 외부 커뮤니티(스펙업 네이버 카페, 에브리타임 공모전 홍보, 인스타그램 ‘청년인턴’ 등)를 조금만 찾아봐도 본인에게 맞는 프로젝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3년 6월 말 ~ 8월까지 한국 데이터 산업 진흥원에서 상명대학교 외 11개 대학교와 진행한 ‘데이터 청년 캠퍼스’에 참여했다. 처음 해보는 프로젝트에다 데이터라니... ADsP자격증이 있다 한들, 전공자나 실제 프로젝트를 해본 사람들 사이에서 과연 나는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지만 ‘혼자 해외 여행도 했는데 뭘 못하겠어!’ 하며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예상대로 내 팀원 대부분은 코딩도 할 줄 알고, 데이터도 직접 다뤄본 경험이 있었다. 팀에 패를 끼치지 않기 위해 구글, 강의, 챗GPT와 친구가 되어 역할을 수행했고, 처음으로 코딩도 해 보았다. 많은 도움을 받은 사이트는 프로젝트 때 추천받은 ‘Data on Air’이다. 인공지능, 데이터, Python 등 분야의 기초 강의부터 심화 강의까지 있어, 빅데이터 분야를 진로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데이터 청년 캠퍼스를 통해 ‘가계대출 연체율 예측을 통한 시도별 정책 방향성 연구’라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본선 진출은 못 했지만 10팀 중 3위를 기록했다. 프로젝트 결과를 가지고 팀원들과 논문을 작성해 학술집에 출간하기도 했다. 이 활동을 하며 ADsP에서 공부한 것이 도움이 되었고, 데이터 분석에 대한 전 과정을 직접 해봄으로써 성취감도 얻었다.

가계대출 연체율 예측을 통한 시도별 정책 방향성 연구

A Study of Policy Direction by City and Province through the Prediction of Household Loan Delinquency Rate

■■■■■, ■■■■■, 강희용 (Hee-yong Kang), ■■■■■, ■■■■■, ■■■■■

한국정보처리학회 · 2023.11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30권 2호 · 380-381(2pages)

UCI I410-ECN-151-24-02-089051047

₩1,000

더보기

이 자료는 4페이지 이하의 자료입니다.



초록

최근 경제침체로 인해 지속되는 연체율 상승의 원인을 지역별 및 시차별로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를 가계대출변수, 무동산지수변수, 경제지표변수로 나누었고 통계적 모델링을 통해 총 19 가지 변수로 연체율을 예측하였다. 각 지역마다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연체율 감소 정책을 제안한다.

네 번째는 ‘일 경험’이다.

재학 중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외에 직장인과 같은 일을 하기는 무리가 있어 휴학하고 해보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된다. 본인은 2달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병역업체 선정 ‘전문 연구 기업 선발’ 담당자로 일을 했다. 주변의 직장인에게 회사 생활에 대해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해 보는 것이 더욱 와 닿았다. 물론 처음 들어보는 용어를 이해하고,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음 보는 사람과의 소통을 결과로 도출하는 작업은 생각보다 에너지를 많이 썼다. 그러나 에너지를 쓰는 만큼 이후 좋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항상 한다면 긍정적으로 회사 생활을 해낼 수 있다. 모두가 나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모두 틀린 것도 아니기에, 타인과 소통하는 생활을 통해 프로젝트, 공모전, 동아리 등 단체의 일원으로 적응 할 때 성숙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복학을 위한 마음가짐

이러한 활동을 마치니 복학을 해야 될 때가 왔다. 복학은 휴학보다 더욱 어려웠다. 거창했던 휴학 목표와는 달리, 많은 활동을 한 것 같지만 자신 있게 내세울 만한 스펙은 없고, 인턴 등의 경험이 생긴 것도 아니었다. 또한 앞으로 들어야 할 과목은 주전공이 아닌 복수전공(빅데이터 애널리틱스) 과목인 것, 새로 사귀어야 할 친구, 적응해야 되는 환경 등 많은 걱정이 앞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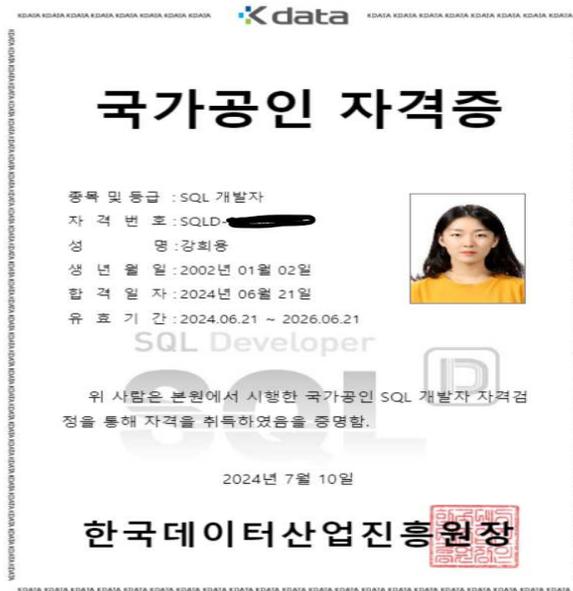
걱정 많은 대학생

우선 3학년 1학기에 복학하며 수강 신청을 했는데, 수강 과목 기준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과목인가?’, ‘처음부터 고난도가 아닌 것’ 이 두 개였다. 해당 수업을 듣고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교수님이 학점을 짜게 주신다던가 공장 날이 사라진다는 것은 아쉽지 않았다. ‘A 교수님은 수업 항상 일찍 끝내주시고 학점 잘 주셔서 내용도 별 거 없어~’와 같은 수업을 듣고 싶지는 않았다. 강의계획서를 살펴보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면 학점이야 내가 열심히 해서 잘 받으면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수강 신청을 했다.

3학년 1학기는 전공 교과가 폐강 되어 4전공 2교양을 들었다.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융합 전공의 과목으로 ‘데이터모델링과 마이닝’, ‘경영빅데이터 분석’, ‘디지털마케팅론’, ‘파이썬프로그램밍’을 들었고, 교양 과목으로 ‘오페라의 이해와 감상’, ‘빅데이터를 통한 삶의 이해’를 들었는데 이 중에선 ‘데이터모델링과 마이닝’, ‘경영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를 통한 삶의 이해’ 3과목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해당 과목들의 성적은 파이썬프로그램밍을 제외, 모두 A+을 받았다.)

모든 과목은 항상 앞자리에 앉아 들었고, 교수님의 질문에 대답하고 수업 도중에도 질문하며 수업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했다. ‘데이터모델링과 마이닝’을 들으며 자격증 ‘SQLD’도 함께 준비했는데, 이처럼 수업 내용과 관련된 자격증 공부는 공부의 효율을 올려준다. 수업 시간엔 개념을 듣고, 교수님에게 질문을 할 수 있고, 자격증 공부로 수업 시간엔 볼 수 없는 기출을 풀었다. 그 결과 자격증을 취득했고, 해당 과목은 중간/기말 만점에 가까운 점수로 A+이라는 좋은 성적도 받을 수 있었다. 다음은 ‘경영빅데이터 분석’ 수업이다. 해당 수업은 실습 형태로 진행되어 단순 이론만 공부하면 까먹거나 훨씬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내용을 더욱 쉽게 익힐 수 있었다. Python, 데이터 분석이 처음이라면 당연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모두가 어려우니 걱정 할 필요는 없다. 본인은 위에서 언급한 ‘Data on air’ 사이트의 수업을 미리 들었고,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 있어 거부감 없이 다가왔다. 수업이 어려울 때 무료 강의를 듣거나 ‘오픈채팅’을 활용해 익명의 사람에게 모르는 내용을 질문하기 추천한다. 또한 오픈 채팅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얘기 할 수 있어 관심 있는 분야의 채팅방에 들어가면 현업 자의 얘기도 들을 수 있다. 마지막 추천 수업은 ‘빅데이터를 통한 삶의 이해’ 교양 과목이다. 교양 입에도 과제가 많고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스스로 주제를 잡아 데이터를 얻고 분석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배우고, 교수님의 피드백을 받으며 실제로 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었다. 본인은 혼자 들었지만, 친구가 있다면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수업 추천에서 잠시 언급한 ‘SQLD’자격증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다. 정식 명칭은 ‘SQL 개발자’ SQL에 대한 자격증으로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1년 6개월 뒤부터 추가 교육을 들으면 기간 갱신이 가능해 반 영구적인 자격증이다. ADsP와 SQLD는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융합 전공 졸업 요건 중 하나이자 취업 시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라 빅데이터 관련된 진로를 희망한다면 학기나 방학을 이용해 공부하길 추천한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생각

휴학부터 복학까지 계속 ‘내가 하고 있는게 맞나?’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여전히 확신은 없는 걱정 많은 대학생이다. 그럼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를 갖는 것은 중요 하다. 꼭 일직선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때론 뒤를 보며 갈 수도 있지만 스스로가 무언갈 해야 하는 이유를 자기 자신이나 외부에서 찾는 것은 나중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나보다 많은 것을 할 수 알고, 많은 것을 이룬 사람들이 내 주변에도 있지만 나 또한 앞으로 나아간다면 부러워만 할 필요는 없다. 종종 사람들이 본인을 보고 ‘너처럼 사는건 대단해’, ‘너처럼 하고 싶다’라고 말하곤 하는데, 나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기에 모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

챗지피티와 함께 A+ 만들기

휴먼지능정보공학전공 19학번 김형선

서론

4차산업혁명 시대는 흔히 인공지능 시대라고 부른다. AI 기술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구들이 세상의 모습을 바꾸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챗지피티는 기술 혁신의 대표주자라고 불릴 만큼 많은 분야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챗지피티는 대화를 바탕으로 한 인공지능 챗봇으로써 교육, 비즈니스, 연구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약하고 있다. 챗지피티의 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전함에 따라 챗지피티의 최신버전인 ChatGPT-4o에서는 질문 및 답변 시스템 뿐만이 아닌 음성 인식, 파일 분석 등 더욱 다양한 기능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급속도로 발전하는 챗지피티의 속도와는 달리 여전히 제대로 된 질문조차 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챗지피티를 활용해 공부하는 몇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론

챗지피티를 대하는 마음가짐

챗지피티를 활용하기 전에 한 가지 확실하게 인식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챗지피티는 어떠한 질문에도 원하는 답을 알려주는 척척박사가 아닌 빅데이터에 기반한 수많은 문장 중 가장 확률이 높은 문장을 생성하는 기술일 뿐이라는 점이다. 챗지피티의 디테일하고 전문가적

인 답변을 보면 마치 모든 정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때도 있다. 그런데도 이 프로그램은 언제나 정답을 찾아내는 것은 아니며 ‘환각’이라는 분명한 한계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환각’이란 생성형 AI가 그럴듯한 거짓말을 만들어 내는 현상으로 학습에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장 최신 버전인 ChatGPT-4o도 이 환각 문제에 대해 많은 개선을 했지만, 여전히 완벽하게 극복해 내진 못했으며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거짓된 정보를 심어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김형선

모차르트 첼로 협주곡 작품 추천해줘



ChatGPT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시는군요! 모차르트의 첼로 협주곡 중에서 유명한 작품은 제2번 첼로 협주곡인 K. 417 작품과 제1번 첼로 협주곡인 K. 196 작품이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모차르트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끽할 수 있는 작품들이니 한 번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챗지피티 환각 사례-모차르트는 첼로 협주곡이 없다

그렇기에 우리가 챗지피티를 활용할 때, 챗지피티의 답변이 오답일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함을 염두에 두고 사용해야 하며 이 도구는 전문가로서가 아닌 한 명의 커뮤니케이터로서 조언을 얻고 지식을 보완하는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 저자가 소개드리는 챗지피티 활용전략은 ChatGPT-4o버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1. 질문을 명확하고 자세하게 하기

챗지피티에게 좋은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우선 좋은 질문을 입력해야 한다. 자기가 어떤 정보를 구하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모호하게 질문하는 경우 챗지피티는 수많은 질문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문장 데이터들 사이에서 모호한 답변만 결과로 출력하게 될 것이며 이는 질문자 입장에서든 해답을 얻기는 커녕 더욱 헛갈리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질문하는 방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번째, 정보의 목적 확인하기.

내가 이 정보를 왜 필요로 하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고려하여 목적과 관련 없는 문장들은 질문에서 배제한다. 목적의 예시로는, 에세이를 작성할 때, ‘주제에 관련된 역사적인 사실을 찾고 싶다’거나 ‘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고 싶다’ 등이 있다.

두번째, 질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우리가 원하는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챗지피티는 질문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최대한으로 주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 속에서 원하는 정보만을

추리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문을 통해서 출력되는 답변의 범위를 좁혀주어야 그만큼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아내기가 수월하다.

세번째 질문의 맥락 제공 하기.

두번째 과정과 동일한 맥락으로 챗지피티는 결국 입력정보가 자세할수록 그만큼 질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답변의 범위를 좁히기 수월해지기 때문에 질문의 전후 상황과 흐름을 작성해 주는 것이 좋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질문을 작성하면 답변에 불필요한 정보가 섞일 가능성을 사전에 최대한 배제할 수 있고 챗지피티에게 더욱 정확하고 유용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다.

발표 잘하는 법 알려줘



발표를 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는 발표를 잘하기 위한 몇 가지 팁입니다:

1. 준비와 연습

- 철저한 준비: 발표할 주제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고, 자료를 잘 정리하세요.
- 발표 연습: 발표 내용을 여러 번 연습하여 익숙해지세요. 친구나 가족 앞에서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타이밍 조절: 발표 시간을 잘 조절하여 주요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세요.

2. 슬라이드 제작

- 명료한 슬라이드: 슬라이드는 간결하고 핵심만 담아야 합니다. 텍스트를 최소화하고, 시각 자료를 활용하세요.
- 일관된 디자인: 슬라이드 디자인은 일관성을 유지하고, 가독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3. 발표 기술

- 눈맞춤: 청중과의 눈맞춤을 유지하며 발표하세요.
- 명확한 발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여 청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세요.
- 적절한 제스처: 자연스러운 제스처를 사용하여 발표에 생동감을 더하세요.

4. 자신감

- 자신감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발표에 임하세요. 이는 청중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줍니다.
- 긴장 관리: 심호흡을 하거나, 발표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여 긴장을 풀어보세요.

안 좋은 질문 예시_답변이 모호하고 표면적임



내일 자유와 정의를 주제로 에세이를 발표할 예정이야. 발표를 잘하는 방법을 언어적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로 구분지어서 각각 한가지씩 예를 들어 설명해줘.



자유와 정의를 주제로 한 에세이 발표에서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 각각 한 가지씩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언어적 요소: 명확한 발음과 어휘 사용

예시: 중요한 문장 강조하기

- "자유는 개인의 권리와 선택의 여지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대우를 제공하기 위해 이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 문장을 발표할 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면서** "자유"와 "정의"라는 단어를 강조하여 청중이 두 개념의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합니다.

비언어적 요소: 눈맞춤

예시: 중요한 포인트를 말할 때 청중과의 눈맞춤 유지

- 발표 중 다음과 같은 중요한 포인트를 전달할 때:
 - "자유와 정의는 때때로 상충하는 개념이지만, 둘 사이의 균형은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 이 문장을 말할 때, **청중과 눈을 맞추며 말하면**, 청중이 당신의 메시지를 더 잘 받아들이고 신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각 포인트를 말할 때 **↕**마다 서로 다른 청중과 눈을 맞추며 시선을 고르게 분배합니다.

좋은 질문 예시_원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

2. 답변이 사실인지 검증하기

거짓 정보를 주는 환각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며 어디서 얼마만큼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기에 챗지피티에게서 얻은 정보를 활용할 때, 챗지피티의 답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챗지피티의 답변이 실제 사실인지 항상 검증하는 과정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다. 검증 과정은 챗지피티에서 얻은 지식을 토대로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서 신뢰성이 높은 자료를 찾거나 논문 사이트에서 논문을 참고하는 방법 등이 있고 이공계 분야라면 해당 문제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실제로 얻은 지식을 적용했을 때 오류나 오답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확인해주는 것이 좋다. 만약 여건상 검증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면 얻은 정보가 사실이 아닐 경우, 상대적으로 덜 치명적일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3. 음성 인식 기능을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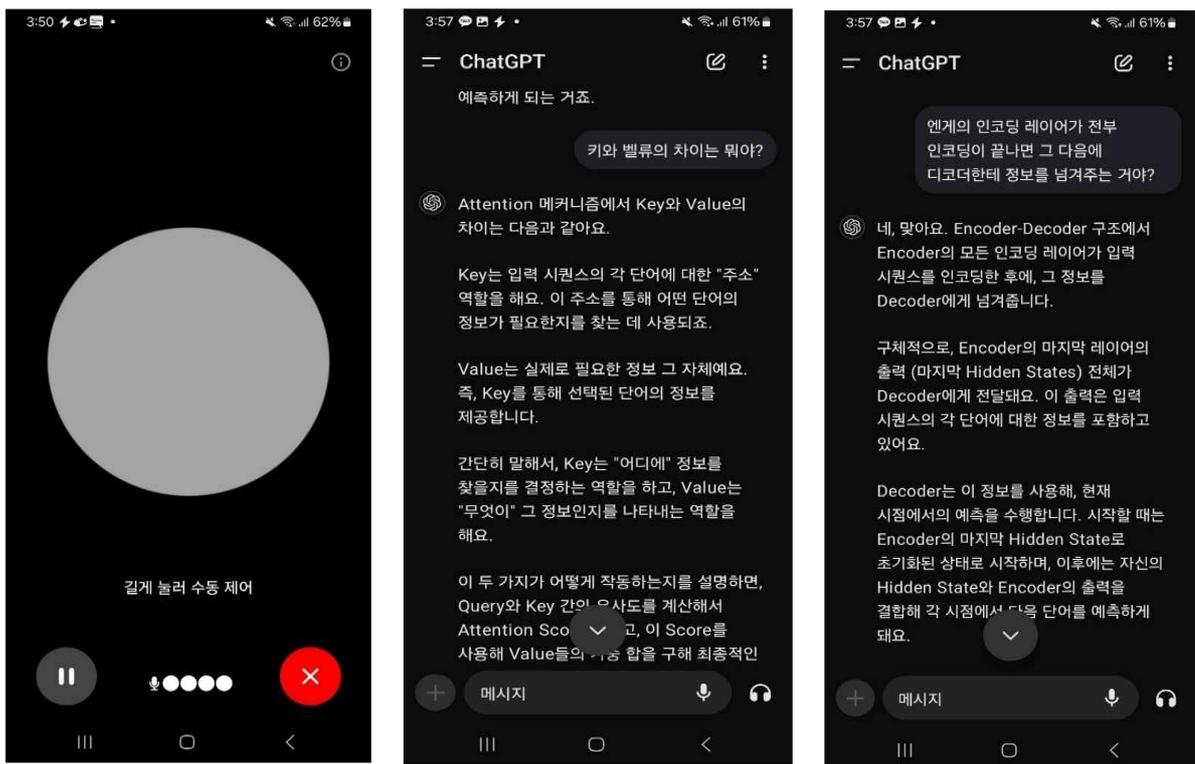
ChatGPT-4o 버전부터는 챗지피티에서 음성인식 기능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는 기존의 텍스트 상호작용 방식의 단점이었던 편리함과 속도를 크게 개선하였고 공부에 활용할 때에도 기계와 소통하는 것이 아닌 실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듯한 느낌을 제공해준다. 음성인식 기능은 다양한 부분에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활용이 가능하다. 그 중 필자가 실제로 학습에 활용했던 몇 가지를 소개하겠다.

먼저 언어를 공부할 때는 혼자 회화를 공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 음성인식 기능을 활용하면 회화 공부를 도와줄 다른 사람이 없어도 주제에 맞춰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며 피드백을 추가로 요청하면 즉시 언어 선생님과 이야기 하듯 다양한 오류나 어색한 부분들도

실시간으로 잡아주는 것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발표할 일이 있어 연습이 필요할 때, 발표를 실시간으로 듣는 청취자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 청취자의 피드백은 발표 실력 향상에 있어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청취자의 역할로써 챗지피티는 발표의 내용과 같은 언어적 요소는 물론 목소리 크기나 자신감, 발음의 명확성 등의 비언어적 요소들도 평가가 가능하다. 이러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연습한다면 실제 발표에서도 아무 도움 없이 연습할 때보다 훨씬 더 나은 발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생님께 물어보듯 답변에 대한 추가 질문을 반복할 수 있다. 챗지피티를 이용하다 보면 답변이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아 이해가 될 때까지 추가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로 전공 과목에 대해서 공부하던 중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았을 때, 챗지피티의 일부 문장을 정확히 이해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할 때마다 일일이 타이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음성인식을 사용해 질문이 길던 짧던 빠르고 확실하게 이해될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물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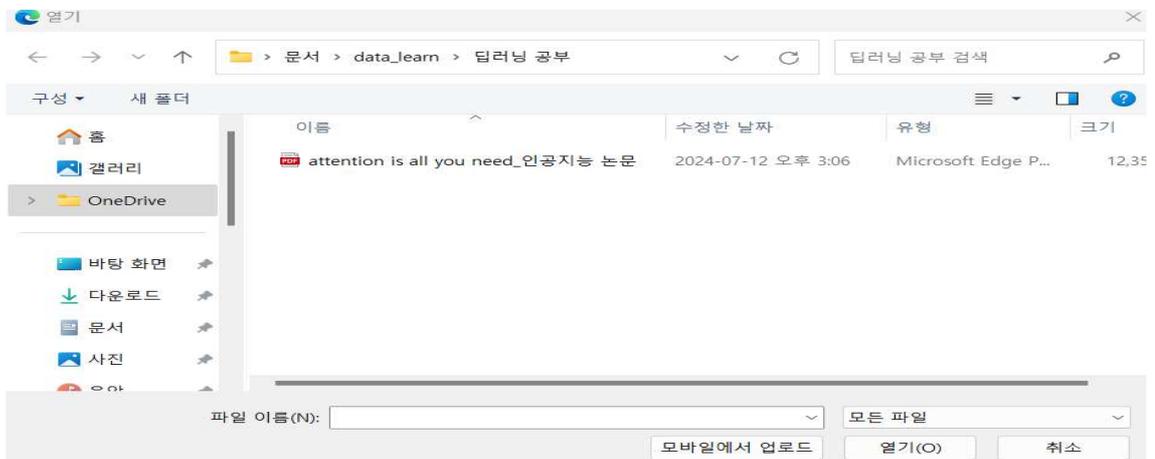
챗지피티 음성인식 화면 및 음성인식 활용에 대화한 내용 일부_모바일

4. 파일 분석 기능 활용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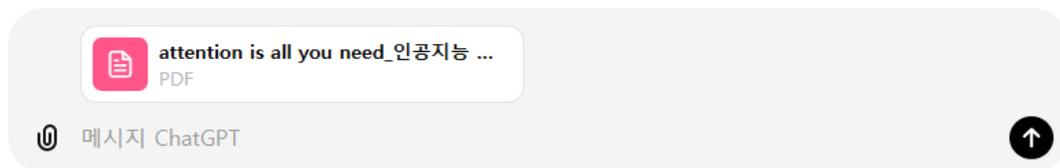
Chatgpt-4o 버전에서 새로 추가된 파일 분석 기능을 활용하는 것도 챗지피티를 공부에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다. 챗지피티에게 궁금한 부분이나 모르는 문제를 질문할 때 음성인식이나 타이핑으로 정확한 질문 전달이 어려울 것 같다면 챗지피티에 파일 업로드를 활용하면 된다. 다음은 챗지피티에 파일을 업로드 하는 과정이다.



1. 챗지피티 왼쪽에 있는 클립 모양 버튼을 누르고 '컴퓨터에서 업로드'를 클릭한다.



2. 컴퓨터에서 공부하려는 파일을 찾아 선택한다.



3. 선택한 파일이 챗지피티의 입력 프롬프트에 들어있으면 엔터키를 누른다.

위 논문에서 인코더를 어텐션 메커니즘만으로 대체한 이유가 뭐야?



논문 "Attention Is All You Need"에서 인코더를 어텐션 메커니즘만으로 대체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병렬 처리의 효율성:

- 순환 신경망(RNN)과 같은 기존 모델들은 시퀀스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어렵습니다. 반면, 어텐션 메커니즘은 시퀀스의 모든 위치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병렬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훈련 속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2. 장기 의존성 문제 해결:

- RNN은 긴 시퀀스에서의 장기 의존성(long-term dependency)을 효과적으로 모델링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은 시퀀스의 모든 위치 간의 관계를 직접 모델링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단순함과 효율성:

- 어텐션 메커니즘은 구조가 단순하고 계산 효율이 높습니다. 이는 모델의 구현과 최적화를 더 쉽게 만듭니다.

4. 더 나은 성능:

- 실험 결과, 어텐션 기반 모델인 트랜스포머는 번역 품질 등 다양한 자연어 처리 작업에서 기존의 RNN 기반 모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어텐션 메커니즘이 복잡한 종속성을 더 효과적으로 캡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attention is all you ne...).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트랜스포머 모델은 인코더에서 어텐션 메커니즘을 사용하여 기존의 순환 구조를 대체하였습니다.

4. 파일 분석이 완료되면 해당 파일의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한다.

파일 분석 기능은 다양한 형식의 파일 업로드가 가능해 이미지부터 PDF, Excel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공부하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혼자서 풀기 어려운 문제들에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으며 AI에게 질문의 범위를 인식시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전달도 가능해진다. 이를 활용하면 혼자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 혹은 문제에 관련된 타인에게 일일이 자문을 구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결론

나는 학기 초부터 공부를 잘하던 학생은 아니었다.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정체되는 학점과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1년간 휴학을 결정했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여러 공부를 하며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좋은 결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고 생각 끝에 내린 결론 중 하나가 바로 이 글에서 소개한 챗지피티를 활용한 학습 전략이었다. 이 방법으로 인해 나는 이번 학기 동아리 회장 일을 병행하면서도 남들보다 적은 시간에 최대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었고 직전 학기 대비 높은 학점 상승을 이룰 수 있었다. 챗지피티는 아직 완벽한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긴 어려울지라도 잘 활용하면 여러분께 어떠한 방식으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임은 확실하다. 내 경험을 토대로 한 이 학습 전략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원하는 학점, 원하는 꿈을 이루어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며 이 글 마치겠다.

JLPT N3, 초보자도 한 달 만에 합격하는 비법

경영학부 21학번 **홍재영**

JLPT N3 응시 사유

나는 현재 한일문화콘텐츠를 복수전공 중이다. 한국과 일본의 문화콘텐츠에 관심이 생겨 시작한 한일문화콘텐츠 복수전공 도중, 일본의 문화콘텐츠를 알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학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뿐만 아니라, 다전공 중인 학생도 졸업을 위해서는 JLPT N2 이상의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는 졸업 요건이 있었기에 본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다.

다전공 중인 학생은 토익 850점 이상 혹은 JLPT N2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면 졸업 요건이 충족되지만, 일본의 문화콘텐츠에 대해 더 파악하고 일본에 대한 지식을 높이기 위해 토익 대신 JLPT를 선택해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바로 JLPT N2에 도전하기에는 스스로의 일본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한 단계 낮은 JLPT N3부터 도전하기로 마음먹었다.

JLPT란?

JLPT는 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에서 주최하는 공인 일본어 시험이다. 전 세계에서 주최되는 자격증 시험이며, 한 번 취득한 급수는 평생 유효하나 보통 취득한 지 2년 정도 되는 자격을

유효한 자격으로 인정한다. N5부터 N1까지의 급수가 존재하며, N1이 가장 높은 급수이다. 시험은 언어지식, 독해, 청해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치러진다.

시험 점수는 언어지식, 독해, 청해를 각 60점 만점을 부여해 총 180점 만점이며, 각 영역에서 19점 이상의 과락 점수를 넘고 전체 점수가 95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따라서 어느 한 분야도 놓치지 않고 점수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채점은 ‘득점등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각 문제의 배점을 각 문제의 정답률에 따라 지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가채점을 통한 점수의 예측은 거의 의미가 없어 가채점을 하는 경우가 적다.

현재 지식 점검

시험을 치기 앞서 먼저 나의 일본어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응시할 급수에 적절한 정도인지 확인해야 했다. 우선 나는 한일문화콘텐츠 복수전공 중 일본어 수업을 들은 바 있다. ‘커뮤니케이션 일본어 1’, ‘커뮤니케이션 일본어 2’가 해당 과목이었다. 교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해당 과목들은 JLPT N3와 유사 수준의 일본어로 진행되었다. 완벽하진 않지만 해당 과목을 수강하는 데에 있어서 큰 무리는 없었으므로, 우선 예정대로 JLPT N3에 응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막상 시험을 신청하려 하니 내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지표가 없어 다시 한번 망설여졌다. 검색을 통해 알아보던 중 어학 학습 사이트에서 ‘JLPT 무료 일본어 레벨 테스트’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약 15개 정도의 JLPT 예제를 풀고 정답 개수에 따라 적합한 JLPT 급수를 추천해 준다. 나의 경우 절반 이상의 정답률을 기록해 예상대로 JLPT N3 응시를 추천받았다. 간단한 절차를 통해 나의 현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 검색만 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JLPT를 처음 도전하는 학우들에게 꼭 추천하는 서비스이다.

08

Question 8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일본어는?

ここから先はかんけいしゃいがい立ち入り_____です。

停止 禁煙 停車 禁止 **모름**

< 이전 다음 >

실전 레벨

맞은 개수 : 10 / 10

당신에게 필요한 건 실전연습! 아직 일본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실전연습이 부족해서입니다.
 시험을 준비한다면 JLPT 학습반을 통해 실전연습을 하고,
 일상회화를 잘하고 싶다면 회화수업을 통해 프리토킹에 도전하세요!

(그림 1 - 무료 일본어 레벨 테스트 /

https://japan.hackers.com/?r=japan&c=event&evt_id=18110904#;)

시험 신청

시험 신청은 JLPT 공식 홈페이지에서 서울, 부산, 제주 중 해당 지역을 선택 후 회원가입을 한 뒤 진행할 수 있다. 응시료는 N3 이상의 경우 6만원, N4, N5 등급의 경우 4만 5천원이다. 시험은 1년에 두 번 뿐이며 매년 7월 첫째 주 일요일과 12월 첫째 주 일요일에 시험을 보며, 접수는 3달 전부터 가능하다. 추가 접수 기간에 접수할 경우 5천원 상당의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정규 접수 기간에 맞춰 접수하는 편이 좋다. 나는 9월에 시험 접수를 하여 12월 첫째 주 시험을 신청 했다.

시험 준비

시험 준비 전에도 나는 일본어 수업을 통해 일본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간단한 회화가 가능한 정도였으므로 아예 기본기가 없다고는 할 수 없었으나, JLPT N3가 요구하는 중급 난이도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학교 여러 일정으로 JLPT 자격증 시험 준비가 어려워져, 결국 시험을 한 달 앞둔 11월부터 학교 수업과 병행하며 본격적인 자격증 시험 준비를 시작했다.

JLPT는 앞서 설명했다시피 언어지식, 독해, 청해의 세 부분으로 나뉘며 그 중에서도 언어지식 분야는 단어, 문법의 두 분야로 나뉜다. 즉 한 달 동안 네 가지 분야를 공부했으며, 본 학습 전략도 1달을 기준으로 한다.

<분야별 학습 전략>

단어

일본어 단어 대부분은 한자어다. 한자어에 따른 일본어의 히라가나(일본어의 기본 문자) 발음을 대응하거나, 히라가나 단어를 보고 그에 알맞은 한자어를 대응시키는 문제가 출제된다. 히라가나 뿐만 아니라 가타카나(의성어나 외래어를 표기하는 일본어의 문자) 문제도 출제되며, 유의어나 상황에 맞은 단어를 선택하는 문제도 출제됨으로 전반적인 단어의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JLPT의 진입장벽이라 불리는 한자어는 다량으로 출제되는데, 몇 백개 정도의 한자어와 그에 상응하는 히라가나 및 뜻까지 파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심지어 단어는 JLPT 시험 첫 번째 시간에 진행 함으로 시작부터 앞길이 막힌 느낌이 들 정도였다.

약 한 달 동안, 반 이상을 단어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 단어는 단어 시험 시간 뿐 아니라, 후반부 독해 시험 시간에도 등장하므로 단어를 모르면 시험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전혀 알지 못하는 한자어들을 한 달 안에 전부 암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단어 학습 전략을 바꾸었다. 한 번에 전부 암기하려 하지 말고,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한자어를 보고, 뜻을 파악해야 했다. 우선 뜻을 알아야 히라가나로 어떻게 표기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한자어는 낱선 언어나. 그러나 한자어를 언어나 아닌 그림, 즉 다른 형태를 가진 무엇인가로 여긴다면 마치 교통 표지판을 보듯 간단한 구분 정도는 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한자어는 그 의미를 담아 만든 상형어이므로 뜻과 대응해 보면 내 천(川)자처럼 뜻과 모양을 연결 지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자도 많았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한자어와 뜻의 유사성을 연결 지으며 단어의 뜻을 파악해, 한자 단어를 보면 뜻이 나올 수 있도록 학습했다.

다음은 히라가나와 한자어의 연결이었다. 놀랍게도 한자어의 뜻을 파악하고 나니 히라가나와 한자어를 연결해 학습하는 것은 매우 쉬워졌다. 이유는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한자어에서 유래한 단어가 많은 만큼, 발음이 매우 유사했기 때문이다. 가령 ‘改札’ 즉 ‘개찰’은, 일본어로 ‘카이사츠’, ‘樂器’ 즉 ‘악기’는 ‘각키’라고 읽는다. 심지어 ‘治癒’ 즉 ‘치유’는 일본어로도 ‘치유’로 발음이 완전히 같은 한자어도 존재한다. 발음 체계가 비슷하므로 히라가나와 한자어를 연결 지어 학습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웠다.

이렇게 한자어의 뜻을 우선 학습하고, 그 뜻을 바탕으로 유사 발음의 히라가나를 학습하는 순차적 학습으로 단기간 내 거의 대부분의 한자어를 암기하는 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뜻, 한자어, 히라가나 3개를 모두 암기하는 데에는 부담을 느낀다.

그래서 내가 택한 방법은 문제에 알맞은 정도로 단어를 암기하는 것이다. 단어 문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자어를 제시하고 알맞은 히라가나를 선택하는 문제와, 반대로 히라가나 단어를 제시하고 알맞은 한자어를 선택하는 두 유형이다. JLPT 교재에서는 두 유형별로 자주 출제되는 단어를 분류해 기재하므로, 유형별로 한자에 치중해서 암기할지, 히라가

나에 치중해서 암기할지 선택해 효율적으로 학습하면 된다.

따라서 첫 번째 유형의 경우 히라가나 단어를 암기하는 데에 좀 더 치중해야 한다. 가령 ‘予防’라는 단어의 뜻을 물을 때, 선택지로는 보통 발음이 유사한 다른 단어를 출제한다. よぼう [요보우]/ よほう [요호우]의 식이다. 이 경우 히라가나 암기에 더 치중해 한자어는 ‘예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정도로만 파악하고, ‘예방’이라는 뜻의 히라가나는 ‘よぼう’ [요보우]라는 것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다. 보통 발음이나 표기가 유사한 다른 단어를 선지로 채택하는 경우가 많아, 히라가나는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앞서 설명했다시피 발음이 유사해 선택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발음이 유사한 만큼 입으로 직접 한 글자씩 또박또박 발음하며 한국어와의 유사점을 찾아 이해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장음이나 축음(받침음)의 경우, 사소한 차이로 헷갈리는 선지가 등장하는 경우도 많아 해당 부분을 신경써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두 번째 유형의 경우, 히라가나를 제시하고 한자를 선지로 제시하기에 한자어를 더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좋다. 물론 한자어는 복잡한 만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울 필요는 없으며, 보통 두 가지 한자가 결합해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만큼 각 한자의 생김새를 구분할 정도로 학습하면 된다. 가령 ‘せいげん’이라는 히라가나 단어가 있을 때 ‘제한’이라는 뜻을 파악하고, ‘制限’와 ‘制限’의 두 한자어 중 ‘제한’의 ‘한’자는 볼 ‘현(現)’이 아닌 ‘제한할 한(限)’이라는 것을 파악해 답을 선택하는 것이다. 각 한자의 생김새를 뜻을 구분할 정도로 파악해 답을 선택해야 하며, 보통 한 가지 한자만 유사한 생김새의 것으로 다르게 출제하므로 그 점만 파악하면 된다.

이렇게 문제 별로 단어를 파악하는 학습법을 설명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한 번에 한자어의 생김새를 익히거나 뜻을 익히는 것을 완벽히 하기보다는 버스로 통학할 때 등 오고 가는 틈새 시간에 단어를 전반적으로 훑어보며 눈으로 익히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좋다. 틈새 시간을 활용하면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반복하는 것만으로 어느새 학습할 때 모르던 한자어 들이 낯익은 형태로 돌아와 있어 든든한 도움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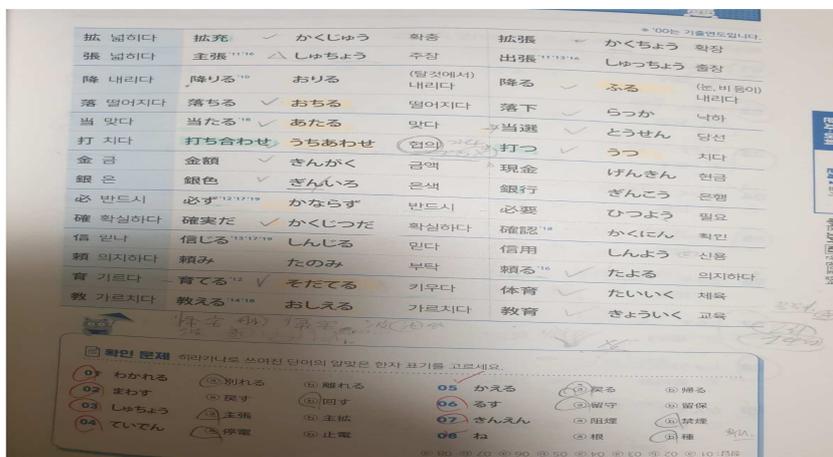


그림 2 - 단어 연습, 잘 모르는 단어는 반복해서 체크와 형광펜으로 표시하며 자투리 시간 내 암기를 반복했다

또한 단어 부분에서 어려운 단어가 많아 걱정되더라도 JLPT의 합격 커트라인은 95점으로 약 반만 넘으면 됨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학습하다 보면 금세 합격선을 넘을 수 있다.

문법

다음은 문법이다. 단어에 비해 문법은 암기해야 하는 어휘의 수가 많지 않지만, 형태를 변형하고 적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문법은 크게 조사, 핵심 관용어구처럼 변형하지 않는 부분과 경어, 수동/사역 표현처럼 변형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여러 번 읽으며 암기하면 된다. 해당 표현이 포함된 예문이 교재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예문과 함께 익혀두면 표현을 사용하는 상황을 표현과 함께 기억할 수 있어 좋다.

후자의 경우, 경어와 수동/사역 표현의 다양한 변형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N3의 경우 크게 복잡한 표현이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한 가지 팁을 추가하자면 일본어 동사를 1, 2, 3그룹으로 구분해서 동사 유형별로 문법의 변형 유형이 다른데, 그룹별 변형을 확실히 파악 해두면 이후 문제에서도 오답 확률이 떨어진다. 특히 변형 문제는 막상 실전에서 맞닥뜨리면 낯설기에, 다른 유형보다 기출 문제를 더 많이 풀어보며 정답률을 올릴 수 있도록 학습한다.

독해

독해는 일본어 지문을 해석하는 문제로, JLPT를 준비하는 수험생 대부분이 가장 어려웠다고 말하는 부분이다. 한자 단어에 요미가나(본 한자 단어를 어떻게 읽는지 표기해주는 히라가나로, 요미가나가 있으면 단어의 뜻을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를 거의 기재하지 않는 데다가 일본어 독해 지문의 길이도 상당하고 읽어야 하는 양도 많은 편이기에 시간 내 점수를 내기가 어렵다. 나 역시 한자 단어의 벽을 겨우 뛰어넘은 뒤 마주한 또 다른 벽과 같이 느껴졌다.

따라서 내가 취한 전략은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였다. 독해 문제는 전반부의 단문 독해 지문들과 후반부의 중/장문 독해 지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단문 독해는 짧아서 내용을 파악하기 쉬우며 지문당 문제수도 1개지만, 중/장문 독해는 길이도 길고 지문당 문제 수도 3~4개로 많은 편이다. 설상가상 할당된 시간도 적어 40분도 안 되는 시간 내에 16개의 문제를 전부 풀어야 한다. 그러나 합격 커트라인은 여전히 전체 95점, 과락 커트라인은 부문당 19점 이상이므로 이 점수만 달성하면 합격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문제를 푸는 게 도저히 어렵다면, 후반부 장문 독해를 포기하고 전반부 단/중문 독해의 답을 정확히 맞히는 것이 합리적인 전략이다.

독해 문제를 푸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빠르고 정확한 판단’이다. 정확한 풀이를 위해서는 앞서 단어 시간에 단련했던 한자어 지식을 활용하면 되고, 빠른 풀이를 위해서는 수능 국어 지문 풀이를 연습했던 것처럼 스톱워치를 맞춰 두고 문제를 푸는 것이 좋다. 특히 한자어와 히라가나를 구분해 한자어에는 밑줄을 치는 등 표시를 하고 뜻을 빠르게 적어 두면, 필기본이 전

반적인 문제 풀이에 이정표 역할을 해준다. 또한 지문을 해석할 때 앞뒤로 오가며 해석을 반복하기 보다는, 한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 정확한 해석을 하는 것이 시간 절약에 좋다. 마지막으로, 지문보다 먼저 선지를 체크 하면 지문의 전반적인 주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으므로 더 빠른 풀이가 가능하다.

청해

JLPT의 마지막 부분은 청해다. 청해는 듣기평가로 지문을 듣고 지시에 따라 답을 체크하면 된다. 평소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즐겨 보던 나에게는 일본어를 듣고 뜻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익숙했기에, 청해 단원은 따로 연습을 거의 하지 않았을 만큼 쉽게 느껴졌다. 하지만 평소 일본의 애니메이션, 영화 등을 잘 보지 않아 일본어를 듣고 뜻을 파악하는 것이 낯설다면, JLPT 지문 뿐만 아니라 일본의 라디오, 뉴스 등을 자주 들어 일본어를 듣고 뜻을 파악하는 훈련부터 하는 것을 추천한다. 유튜브나 어학 사이트 등에서 N3 수준의 듣기 파일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자투리 시간에 들어 두면 금방 뜻을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청해 단원은 전체 2시간에 해당하는 JLPT 시험의 마지막 부분이므로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우니,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는 끈기가 필요하다. 특히 청해 단원의 마지막 문제는 한 문장 당 한 문제의 매우 짧은 문제가 연이어 등장하므로 집중력을 잃어 하나라도 놓쳤다가는 연달아 답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마지막까지 집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결론

JLPT 시험은 분명 일본어를 처음 접하는 초보 학생들에게 매우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쉬운 시험을 만 점 받는 것보다, 어려운 시험의 반을 맞히는 것이 더욱 쉽다. 한자어도, 독해도, 문법도, 청해도 모두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반만 넘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열심히 하면, 어느새 합격 증서를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다.

인원	
응시레벨	N3
결과	합격(Passed)

그림 3 - 온라인 N3 합격 통지표

학습 전략을 철저히 세워 학기 중 1달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합격한 나의 사례처럼, 나만의 학습 전략이 JLPT를 처음 준비하는 학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방랑자가 아닌 신대륙을 발견한 개척자

경영학부 23학번 **김영아**

1. 방랑자에게 닥친 위기

때로는 방랑자가 신대륙을 발견한 개척자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2024년도의 하늘이 파랗게 물들 시점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4학년을 맞이한 저는, 점점 더 다가오는 냉혹한 현실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1학년이었던 2023학년도에는 압박감이 없었냐고 묻는다면 “아니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1학년일 때는 20년 동안 확신했던 길이 아닌 경영학부에 입학해 경영학이라는 전공에, 또 대학교 수업 방식에 적응하기 벅찼다면, 2학년이 된 지금은 재무, 회계, 생산관리, ICT, 인적자원관리 등 다양한 분야 중 나만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드는 것이지요. 간단히 말하면 적응에 대한 압박감에서 진로에 대한 압박감이 강화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개강 직후 오리엔테이션 주간에 대부분 전공 교수님들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너만의 길을 찾을 때이다.”

“하루빨리 진로의 방향을 잡아 그와 관련된 성과를 내야 한다!”

성과를 내야 한다,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면 눈 앞이 캄캄해지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2학년의 입장에서 3학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벌써부터 막막해지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진학이라는 사회적으로 정해진 길대로 따라가면 되었지만, 대학교에 와서는 정해진 길도, 올바른 길도 알려져 있지 않아 신대륙을 개척해야 하는 개척자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닥쳐온 현실에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척자만 할 수 있는 일을 시도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시도와 실패는 때로는 큰 업적으로 남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압박감을 이겨내고 저만의 길을 찾기 위한 시도를 해보고자 경영학부 동급생들과 함께 스터디상생플러스 프로그램에 자격증 및 공모전 부문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 ‘시도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는 깨달음

스터디상생플러스에 지원하기 위하여 전공인 경영과 관련된 공모전을 물색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ESG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마케팅 광고 공모전, 영상 공모전 등 정말 다양한 공모전이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작년 ‘마케팅 트렌드&인사이트’ 과목에서 기말 팀 프로젝트로 진행한 ‘벨리곰 캐릭터 콘텐츠 공모전’을 제외하면 팀원들 모두 정식으로 공모전에 참가하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시도하는 것을 겁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아이디어를 내서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경영학과의 전공 특성 중 하나라고 정의내린 저와 팀원들은 솜품 공모전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비록 영상 편집을 배운 경험이 없지만 공모전을 통해 배울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생각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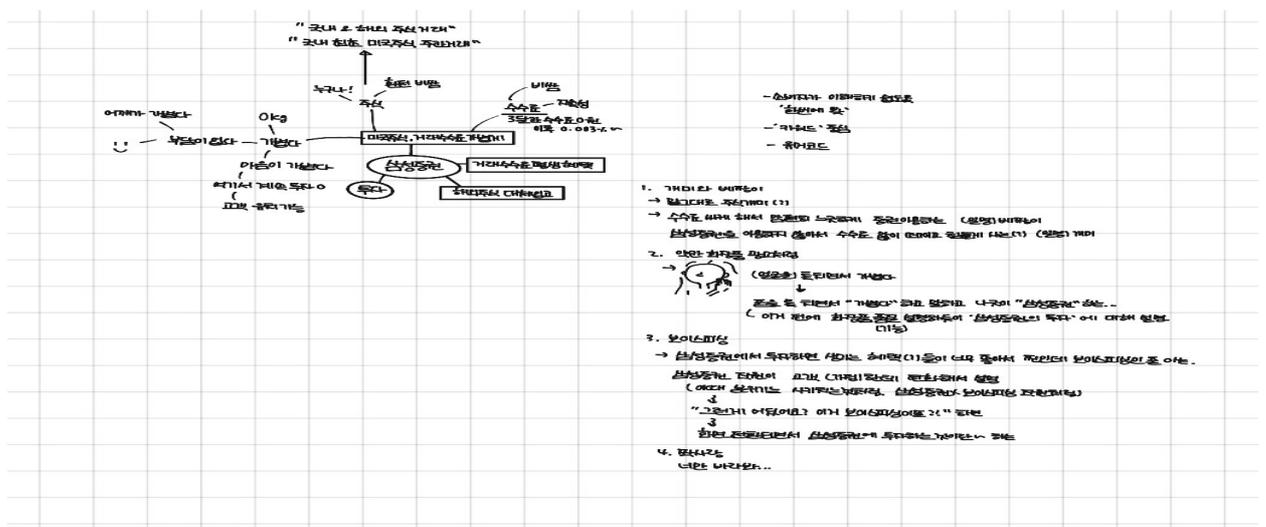
‘2024 삼성증권 대학생 솜품 공모전’의 주제는 “여러분들에게 삼성증권에서 투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였습니다. 삼성증권의 전반적인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키고, 삼성증권이 추구하는 이미지를 파악해 솜품을 제작해야 하는 만큼 삼성증권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우선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때문에 총 8회차의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스터디상생플러스 프로그램인 만큼 1회차에는 1학년 때 수강한 마케팅, 기업과 금융의 내용을 복습하는 활동을 통해 삼성증권 솜품을 제작할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는 것과 동시에 삼성증권과 관련된 기사를 요약 및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 삼성증권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래도 금융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삼성증권에 대한 솜품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삼성증권의 강점을 활용해 새로운 투자자를 유입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생이 그렇겠지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마치고 나면 전공 지식들은 서서히 휘발되곤 합니다. 19세기 후반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언급했던 망각 곡선 원리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터디상생플러스에 참가하며 전공 지식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에 한번씩 활동을 진행한다면 전공 지식은 물론 전공 지식을 응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6개월 이상 기억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애써 외운 지식들이 휘발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가졌던 상명대학교 학생들이라면 스터디상생플러스에 참가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효과적으로 옮길 수 있는 경험을 해보길 바랍니다.

2회차 활동에서는 삼성증권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역대 수상작들 특히 ‘2023 삼성증권 솜품 공모전’ 수상작들을 감상한 후 기억에 남는 수상작을 채택해 해당 작품이 수상한 이유를 분석하고, 채택되지 않은 나머지 수상작들도 추가로 분석하였습니다.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자린고비' 등 한 가지로 특정되는 키워드를 중점으로 삼성증권이 보고만 있어도 활용만 하고 있어도 좋다는 점을 뇌리에 박히게 할 수 있었고, 일종의 언어유희로 삼성증권이 뻗어나간 모든 사용자의 일상을 의미하는 것 같아 삼성증권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키워드 중점의 유머 감각이 있는 솜품을 제작해야겠다는 결론을 짓게 되었습니다. 수상작들은 영상 편집면에서 배우들이 등장하는 극 형식의 솜품과 글자들만

등장하는 형식의 숏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는데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영상 편집 실력이 0에 가까웠기에 글자만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광고 영상은 제작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배우들이 등장하는 극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시도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했다 한들, 성공할 확률이 0%에 수렴하는 일에 도전하는 것은 다른 경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는 법도 알아야 이후에 일어날 새로운 기회에 시도할 의욕이 생길 것이니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기업멘토님께 도움을 요청해 편집을 수월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그것은 제 힘으로 이루어낸 온전한 성과가 아니므로 아쉬운 마음을 삼키며 제가 가진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년도 수상작 중 ‘엠피 유니버스’라는 작품의 경우 삼성증권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모든 요소를 다 담으려고 한 것 같아, 마케팅 측면에선 전 시장을 공략할 수 있어 가성비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mPOP의 한 가지의 기능 및 장점을 주제로 잡은 영상보단 여러 가지 기능을 나열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어지는 3회차 활동에서는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을 진행하였습니다. 삼성증권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투자, 미국주식 및 거래수수료 가뭄계, 거래수수료 평생 혜택, 해외주식 대체 입고를 중심으로 마인드맵을 그려보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에 확!’, ‘키워드’ 중심, 유머코드의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총 4개의 간단한 시나리오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저는 개미와 벼짱이, 화장품 광고, 보이스포싱, 짹사랑 이렇게 4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숏폼 시나리오를 풀어나갔는데 ‘금융’이라는 단어가 가진 진중한 이미지 때문에 적절한 선을 넘지 않도록 신경써야 했던 점이 어려웠습니다. 이전에 진행되었던 마케팅 수업에서 유머 소구의 적정선을 지켜야 광고의 효과를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실제 마케팅 회사에 취직하여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면 역효과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스테디상생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경험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마케터들보다 더 확실한 마케팅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 활동 기록을 첨부합니다.)



스테디상생플러스를 통해 삼성증권 숏폼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증권에 대한 지식은 물론 삼성증권의 특징에 관한 금융 지식이 요구되는 경영학부의 금융기업분석 분야와 이를 숏폼으로 소비하는 고객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마케팅 분야가 서로 연계되어 금융과 마

캐팅 두 분야에서의 전공 적합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융복합 인재를 원하는 현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길 원했던 저로서는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연계해 확장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1. 보이스피싱
2. 화장품
3. 남친여친 달리기
4. 뉴진스 앨범
5. 줄라맨

>> 1. 보이스피싱

꺼져있는 폰 화면 갑자기 확 켜지면서!

수수료 > 6월 30일까지..>보류
 미국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 0.003%
 평생혜택..? > 보류
 미국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 '국내 최초'
 국내해외 주식 거래 동시에 할 수 있음
 국내해외 증시뉴스
 간편한 비대면 계좌개설
 나만의 시금율상품픽
 공모주 청약 알림
 해외주식 투자 지원금 지원 (최대 100달러)
 환율 평생 우대..? > 보류

우리가 말하는 건 1.5배속해야함 ~ 3,4개론 설명하기 부족
 1분이내로

조건이 딱 나에게 맞고 너무 좋은 스펙이라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던 찐 삼성증권 광고형 전화
 -수수료/
 -나레이션으로 속마음 깔기
 -보이스피싱 참고육 노선 > 육함 > 믿음 + 삼성증권 전화임을 인지
 -주요 포인트 3~4개 정해서 앞쪽에 뺀해서 보이스피싱같이 > 뒤쪽에도 해서 믿음생기게
 -처음에 목소리 변조하다가 믿음생기면서 변조 점점 풀음

전화 오는 것 보기

(음? 뭐지 하고 전화받음)

전화 받기

전화 받고 대사

"여보세요"

"네~삼성증권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말씀하세요(딱딱하게. 속으론 뭐지 보이스피싱인가)"

"네 고객님. 저희 삼성증권에 투자할 계획있으신가요?" "아니요"

(무시하고 상담원은 계속 말씀한다)

"어 그러시구나. 저희 삼성증권에서 지금 투자하시면~혜택을 드리구요" "관심없습니다"

(동시에 말하기. 상담원은 다급하게 말을 이으면서 계속 이어짐)

중간에 끊기

"아 몬놈의 혜택이 이렇게 많아!" (통명스럽게)

마지막에 플레이스토어에서 mpop을 간다 "크흠"하면서!

엔딩 때 배우가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야 이거 진짜야?"

카메라 맨이 카메라를 흔들면서 당황한다

앵글은 밖으로 빠짐= 카메라맨이 카메라 들고 있는모습 보이게

엔딩 끝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을 통해 도출해낸 샷폼 제작 아이디어와 방향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광고, 보이스피싱, 연인과의 달리기 등 다양한 의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중 '보이스피싱'이라는 키워드를 중점으로 전체적인 스토리를 재구성 및 구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삼성증권의 강조할 키워드 개수, 대사와 영상 구도 등을 정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보이스피싱 영상을 참고해 특징들을 정리해 샷폼 시나리오에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삼성증권에 투자한다는 것의 의미를 묻는 공모전인 만큼 삼성증권의 소비자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시나리오 검토 과정에서 염두에 두었던 요소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요소는 피해자분들에게 괴로운 기억을 되살릴 수 있기 때문에 삼성증권의 이미지에 맞추고자 수많은 검토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보이스피싱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스팸전화처럼 믿기지 않는 삼성증권에 투자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들에 중점을 두고 샷폼을 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의 입

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사고를 넓힐 수 있었고, 마케팅 방법 중 하나인 숏폼 홍보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경영학과는 기업경영자의 입장에서 경영 이익을 극대화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주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소비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에게 기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본인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 또는 대학교를 다니며 본인이 가진 시야를 더 넓히고 싶거나 한 분야를 깊이 파고들고 싶다면 스터디상생플러스에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활동이 끝난 후엔 분명 발전된 모습을 가지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테니까 말이죠.

[행동지시문] [표정/감정연기] [카메라] (속마음-자막으로 달 예정? 작게 속삭이기?) <편집>

<화면 반으로 나눠서 왼쪽은 상담원 모양으로, 오른쪽은 배우 화면>

#1. 전화 받기 전 상황

공부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모습. 그때 전화가 걸려옴 [전화가 걸려오는 화면으로 zoom]

#2. 배우가 전화를 받은 상황

[전화를 받고 있는 배우의 상반신]

배우: [전화받음] 어보세요

상담원: 네~ 삼성증권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배우: 네 말씀 하세요

상담원: 네 고객님. 저희 삼성증권에 투자할 계획 있으신가요?

배우: [의심스러운 표정] 아니요 (뭐지 보이스피싱인가?)

상담원: [친절하지않은 활력이 없는 목소리] 어 그러시구나. 저희 삼성증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요. 지금 계좌 개설하시면 거래 수수료가 0원인데 평생 수수료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배우: [귀찮아하는 태도, 짜증섞인 목소리, 단호함] 관심 없습니다. - 동시에 말하기

상담원: 아 그러시구나. 저희가 미국 주식도 온라인 거래 수수료가 3개월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아 또 저희가 국내 최초로 미국주식 주간 거래 서비스 진행하고 있거든요. 현재 해외 주식 투자 지원금을 최대 100달러를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삼성증권 mpop을 지금 설치하시면 국내&해외 주식 동시 거래는 물론 증시뉴스도 보실 수 있고요. AI 금융상품픽도 <(능력이 된다면)배우의 귀로 말이 흘러가는? 모양..이익 보는 상상 그래프?>

배우: [언성을 높임, 의심스러운, 큰소리를 내며 화를 낸다] [전화 끊음] 아 뭘 놈의 혜택이 이렇게 많아!

<전화끊을 때 전화 끊기는 화면 넣고 상담원 화면 없어짐. 배우화면으로 전체화면.>

#3. 배우가 전화를 끊은 상황

배우: [플레이스토어에서 mpop을 열려 깬다] [해당 화면 zoom]

[다시 배우로 포커스 옮김]

배우: [머쓱한 듯이 마른기침을 하며] 크흠

[폰을 스크롤을 천천히 내리다가 점차 빨라짐]

배우: [놀라는 표정] [카메라 응시하면서] 아 이거 진짜야?

[카메라가 흔들리다가 떨어짐]

[카메라 안전-목소리만 들림]

카메라맨: 진짜라고?

배우: 아 이거 진짜데? 아 당장 깔아!!!

[웅성웅성]

<검은 화면에 "삼성증권 로고 띄움">

행동지시문, 표정/감정연기, 카메라 등으로 분류하여 표시한 위의 대본을 바탕으로 배우, 상담원, 카메라맨, 감독 4가지의 세부 역할로 나누어 비어있는 강의실에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영상 편집점, 카메라 구도 등을 대본에 맞게 설정한 뒤 #1 전화 받기 전 상황, #2 배우가 전화를 받은 상황, #3 배우가 전화를 끊은 상황으로 나눠 영상 촬영을 진행하였는데요. 저는 '감독' 역할을 맡아 팀원들의 여러 의견을 고려해 시나리오를 수정하고 촬영 시 구도, 포커스 등을 총괄하면서 기업 내부 관리자의 책임감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편집을 나눠 진행하며 분할된 장면들을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하나의 완성된 영상이 탄생되는 모습을 보니 “이렇게 조각조각난 다양한 경험이 모여 진정한 나를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스터디상생플러스에서 했던 경험들이 쌓이고, 추후에 이를 기반으로 진행될 다양한 활동의 경험들이 쌓이게 된다면 미래의 저는 얼마나 발전된 모습일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3. 방랑자에서 신대륙을 발견한 개척자로!

‘스캠전화라 생각했지만 진짜였다!’는 제목의 58초짜리 숏폼을 완성해 ‘2024 삼성증권 대학생 숏폼 공모전’에 제출을 완료하였고, 이후 안타깝게도 1차 심사 결과는 선발되지 못하였다. ‘삼성증권에 투자한다는 것은?’이라는 주제를 통해 숏폼을 제작하면서 영상 및 시나리오에 의미를 담는 법, 역대 수상작들의 비교를 통해 나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비교분석역량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에 후회없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수상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1차 심사에서 탈락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되새겨보며 보완해야 할 점들을 찾아낸다면 분명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 믿습니다.

2024 삼성증권
대학생 숏폼 공모전

공모개요

공모주제

시상내역

공지사항

Q&A

접수/확인

접수하기

1 참가구분

구분	팀	팀 인원수	4명
팀명	금융스타더스트		

상명대학교 가온누리의 부원이자 임원진 활동과 복지재단 서포터즈 활동을 병행하며 “이 길이 나에게 맞는 길일까?”라는 물음을 저에게 끊임없이 던져왔습니다. 저의 전공과 전혀 맞지 않는 길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들어온 사례들 역시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스터디상생플러스 활동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방랑자였던 저는 저만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저만의 신대륙을 개척하게 된 것이지요. 저는 사회공헌에 대한 열정이 담긴 저의 경험과 스터디상생플러스를 통해 더욱 향상된 경영학파로서의 능력을 융합해 사회공헌 사업을 실시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를 마케팅 측면에서 풀어낼 수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영인으로서 자리매김 할 것입니다. 아직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터디상생플러스에 참여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면, 저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진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상생플러스를 하며 마케팅에 대한 복습을 꾸준히 한 덕에 A+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저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의욕 덕에 평균평점 4점대를 가뿐히 넘어서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만의 길을 찾지 못했던 방랑자일 때는 얻기 힘든 결과였을 지도 모릅니다.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해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간다면 그 어떤 장애물을 마주해도 넘을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겠지요. 상명대학교 학우 여러분도 스터디상생플러스에 참여하여 방랑자가 아닌 신대륙을 발견한 개척자가 되시길 바랍니다.